

향토사료 제24집

횡성군 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발간사



황성문화원장 김광수

황성문화원에서는 향토사료 제2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엔 출판한 책은 우리 고장의 오일장 이야기를 담은 『황성군 오일장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황성장이 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장이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디까지 사실인지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전하는 말로만 여기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황성군 관내의 오일장을 답사하여 정리하고, 기존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발간한 책을 통해 우리는 지역의 오일장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알차게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전, 지역에는 황성장, 둔내장, 안흥장, 갑천장, 청일장, 공근장, 우천장, 서원장, 강림장, 가곡장, 대관대장, 정금장 등 각 면마다 형편에 따라 1~2개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모두들 사라지고 현재 황성군 관내에는 황성장, 둔내장, 안흥장만이 공식적으로 오일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오일장이 사라지는 까닭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지역민이 급속히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나아가 자동차의 보급 및 교통의 편리함으로 보다 큰 도시의 시장이나 대형마트

로의 장보기도 한몫했을 겁니다. 지역의 오일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역민
이 장을 많이 찾아주시시오.

전통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횡성 시장만의 일은 아니나, 이
책의 발행을 계기로 장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유난히 길었던 구제역으로 인해 답사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좋은 내용의 책
을 만들어주신 영서문화연구회 김세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
합니다.

2011. 9. .

횡성문화원장 김 광 수

격려사



황성군수 고 석 용

황성장을 재조명하는 향토사료 제24집 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동대문 밖에서 제일가는 장으로 불릴 정도로 호황기를 맞았던 황성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규모나 찾는 사람은 변해가고 있지만 오늘도 흥정을 하는 이들과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가득합니다.

시장 골목에서 말만 잘하면 맛도 보고 흥정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있냐는 말에 불평도 없이 후한 인심으로 덤을 드립니다.
다른 한편에선 옥수수로 만든 올챙이 국수를 드시면서 그동안 못 다한 정다운 이야기를 꽃 피웁니다.

여기저기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정겹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투박하지만 소박하고 정이 넘치는 이곳이 오늘의 황성장 풍경입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근대화에 밀리고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통시장으로서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가치는 무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료집 발간으로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황성장의 명성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 옛날부터 우리의 삶과 같이해온 황성장이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중심이 되고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황성군 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사료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료를 정리하고 집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

황성군수 고 석 용

축 사



황성군의회 의장
정 명 철

우리지역 5일장에 대한 형성과정과 변천사를 재조명 해보기 위한 「황성군 5일장의 어제와 오늘」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시는 김광수 황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료집 발간이야말로 오늘날 급속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대형마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 5일장의 어제와 오늘을 다시 되돌아보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황성의 5일장은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닳새를 단위로 하는 생활 주기를 형성하며 생활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주민들이 장터에서 각종 물자와 정보, 희로애락을 주고 받고, 민의를 모으고 표출하면서 지역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또한, 현재도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의 보고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료집을 토대로 우리 황성 5일장의 가치를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5일장을 찾는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

황성군의회 의장 정 명 철

목 차

I. 서론	9
II. 횡성군 개관	15
1. 자연·인문지리적 배경	17
2. 횡성군 오일장들의 역사	24
1) 전국 장시의 변화	24
2) 횡성군내 장시의 변화	39
III. 횡성장	51
1. 횡성장 입지 배경	59
2. 횡성장의 형성과 변천	61
3. 횡성장터와 상인, 점포 종류	84
4. 횡성읍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107
5. 횡성장 관리	113
6. 횡성 우시장	119
7. 강원도 주요 시장 연간 품목별 거래액	125
IV. 둔내장	133
1. 둔내장 입지 배경	136
2. 둔내장의 형성과 변천	139
3. 둔내장터와 상인, 점포 종류	150
4. 둔내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160
5. 둔내장 관리	168
6. 둔내 우시장	172
7. 둔내 장터와 속담	177

V. 안흥장	178
1. 안흥장 입지 배경	184
2. 안흥장의 형성과 변천	191
3. 안흥장터와 상인, 점포 종류	196
4. 안흥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212
5. 안흥장 관리	213
6. 안흥 우시장	215
7. 안흥 장터와 속담	216
VI. 강림장	217
1. 강림장 입지 배경	220
2. 강림장의 형성과 변천	221
3. 강림장터와 상인, 점포 종류	225
4. 강림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장세	230
참고문헌	232



서론



I. 서론

1. 연구 목적

장시(場市)는 오랫동안 한국 농촌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특히 농민사회에 있어서 시장구조는 그 지역의 사회조직을 형성하고 촌락공동체들을 단일한 사회체계, 즉 전체사회로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양식을 제공해준다.¹⁾ 그럼에도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근대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시는 급격히 쇠퇴하였고, 근대화이론에 따라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장시는 여전히 농촌지역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의 장시는 호황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강원도 횡성읍장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횡성군의 장들도 많은 부침을 경험해왔지만, 횡성장을 비롯한 안홍장·둔내장·강림장들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동대문 밖의 최대시장’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횡성장은 명성에 걸맞게 최근에 들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성이 무색하게도 이 횡성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횡성장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허명으로 남아 있는 횡성장의 명성의 근원에 대한 실마리도 찾아보고,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횡성장 나아가 횡성군내의 다양한 장시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지에 대한 1차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정승모, 「농촌정기시장체계와 농민 지역사회구조: 전라남도 광양군 일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호남문화연구』 13집, 1964, 223쪽.

2. 연구 배경과 방법

본 연구는 2010년 11월에 시작되었다. 횡성문화원이 2010년 10월경에 본 연구회(영서문화연구회)의 박관수 회원을 통해 횡성군 지역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왔다. 2007년부터 결성된 이래 강원지역의 사회문화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연구해 온 본 연구회는 연구회원이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연구용역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를 넘어 한국에서도 명성을 지니고 있는 횡성군의 장시들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본 연구팀은 현재 횡성군에 개시되고 있는 횡성(읍)장, 안흥장, 둔내장을 중심으로 장 문화를 살펴보기로 하였고, 세 팀으로 나누어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	이름	소속	집필부분
횡성읍장	강명혜	송실대 국어국문학과	횡성읍장
	이영식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김세건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횡성군 개관
안흥장	박관수	민족사관고등학교	안흥장
	이학주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둔내장 강림장	유명희	한림대 국어국문학과	둔내장 강림장
	최명환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연구팀의 구성과 업무분담

먼저, 11월과 12월에 본 연구팀은 각 팀별 조사과 집필의 일관성을 갖고자 함께 모여 참고문헌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조사일정, 조사내용과 인터뷰 목록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팀별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 조사 진행 과정을 검토하고, 횡성장·안흥장·둔내장·강림장을 비롯한 횡성

군에 개설되었던 장들과 평창, 원주, 홍천과 같은 인근지역 장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본 조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구제역으로 횡성장을 비롯한 횡성군내 모든 장이 폐쇄되었다. 2010년 1월13일 안홍장을 공동으로 조사하고자 안홍면사무소에 모였을 때 안홍장이 열리지 않았다. 그곳에 모인 모든 회원들은 주민들의 근심에 누가 되지 않을까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구제역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장 폐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부 마을은 통행도 금지되어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설대목을 보고자 모든 장들이 다시 개시되어 어렵게나마 연구를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제역 파동은 끝나지 않아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조사하는 연구팀의 몸과 마음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많이 입으신 축산농가를 비롯한 횡성군 모든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횡성군 개관



II. 횡성군 개관

1. 자연·인문지리적 배경

횡성군은 지리적으로 강원도의 서남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평창군, 서쪽은 경기도 양평군, 남쪽은 원주시와 영월군, 그리고 북으로는 홍천군과 접하고 있다. 횡성읍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주요 도시와의 거리상 위치는 서울이 125.9km, 춘천이 62.9km, 원주가 17.2km, 강릉이 110.3km로 시간상 거리는 2시간 이내로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그러나 사실 횡성은 5번과 6번 국도가 교차하는 곳이라 얼핏보기에는 교통이 편리한 듯해도 상대적으로 삼마치 고개를 넘어 홍천, 춘천으로 가는 것이나 성지봉 중턱을 넘어 양평, 서울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다.²⁾ 따라서 횡성은 다른 도시보다는 원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횡성-원주 간 도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두 마을의 사이에 칠우고개라는 험난한 고개가 있었다.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으려면 최소한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닐 정도로 험악한 곳이었다. 특히 북동 지역에 위치한 면들은 산간 지대로 이루어져 인적이 드물 뿐만 아니라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였다.³⁾ 그러나 춘천, 홍천, 횡성, 원주를 이르는 도로, 지금의 5번국도가 1917-1922년 사이에 부설되면서, 이들 도시들, 특히 원주와 횡성 사이는 소통이 매우 원활해졌다. 지금 횡성읍에서 원주시까지는 버스로 20여분 정도 소요된다. 무엇보다 2000년대 중후반에 중앙고속도로와 춘천-서울간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춘천, 서울로 가는 길이 훨씬 편해졌다. 횡성군

2) 주영화·전성현·강재석, 『사라져가는 우리의 오일장을 찾아서 1: 경기도·강원도·인천·서울 편』, 민속원, 2003, 196쪽 참조.

3) 국립민속박물관(황보명·김인규·김삼기), 『강원도 시장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5, 7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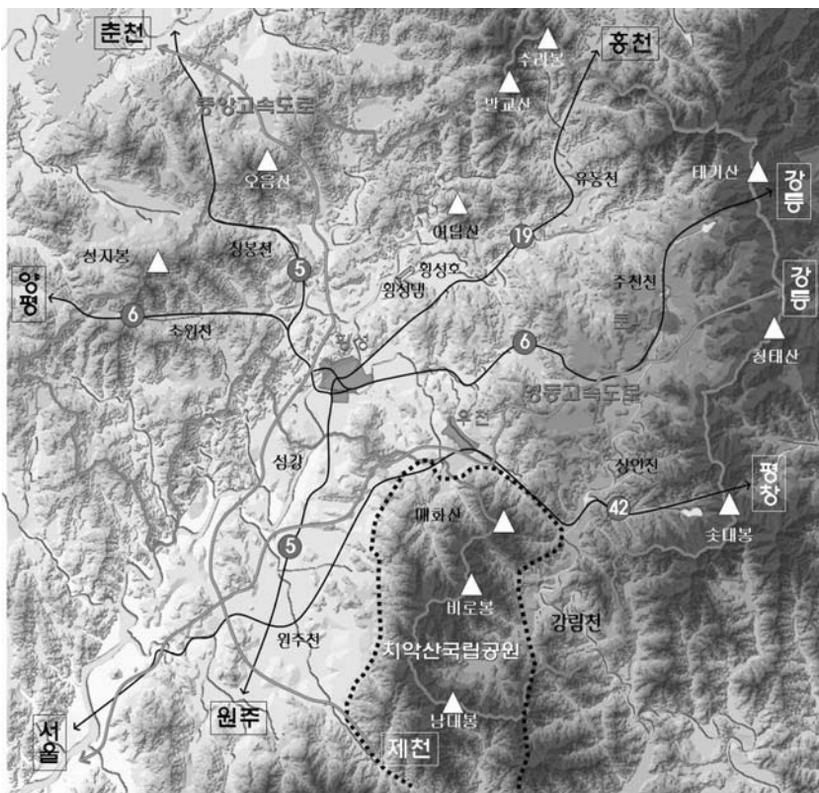
은 춘천-횡성-원주의 남북축 및 수도권-원주-영동을 잇는 동서 발전축의 중심으로써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하고 있다.

횡성군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도내 다른 곳과 같이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된 곳이지만 큰 산이 많은 동북방이 산악지대인데 비해 서남방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하고 비교적 넓고 비옥한 평야를 이룬다. 최저지대가 횡성읍의 표고 100m이고, 둔내면은 평야지가 표고 500m의 고지대로 형성되어 그 격차가 크다.

산악으로는 태기산(1,264m), 청태산(1,190m), 봉복산(1,028m), 운무산(980m)이 동북방에 선을 이어 산맥을 이루고 북방으로는 수리봉(1,028m), 발교산(998.4m), 오음산(930m)의 900m 대의 산이 있고, 동방으로는 사자산(1,040m), 배향산(808m)의 산이 있고, 남으로는 치악산 국립공원내의 남대봉(1,181.5m), 향로봉(1,040m), 비로봉(1,288m)과 매화산(1,084m)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성지산(791m)이 최고 높은 산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봉복산을 제외한 모든 산이 군계와 접하고 있어 군을 등글게 산으로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천은 모두 남한강계에 속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1개와 준용하천 17개 등 18개의 하천으로 횡성, 우천, 갑천, 청일, 공근 지방의 하천은 모두 횡성읍으로 합류하여 섬강을 이룬다. 둔내면, 안흥면, 강림면의 세 하천은 안흥의 주천강에서 합류하여 영월군을 통하여 흐르고, 서원면의 하천은 옥계천을 통하여 원주시의 남한강 하류에서 합류한다.

평야로는 횡성읍 화성들(앞들), 우천면 문암들이 있으며 비교적 평야가 적은 강원도에서의 횡성 앞들은 “횡성인의 앞들 자랑”이



황성군 지역지도

〈출처: 황성군청 홈페이지 자료실〉

란 속담이 전해질 정도로 비옥하고 넓은 들로 손꼽혀 왔다고 한다.⁴⁾ 황성군은 고구려 시대에 횡천(橫川), 일명 어사매라 부르다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황천(潢川)이라 부르며 삭주현령(朔州領縣)으로 되고 고려시대 횡천(橫川)으로 다시 부르고 공양왕 원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현감을 설치하고 같은 14년에 횡천(橫川)과 홍천(洪川)이 음이 서로 비슷하므로 황성으로 개정되었다. 조선 인조 5년 이인거(李仁居)의 난으로

4) 황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hsg.go.kr/about/03.asp> 참조.

원주 속현이 되었다가 같은 14년에 다시 복현이 되었다. 영조 36년에는 원주로부터 토포사(討浦史)가 이설되었다. 그리고 서기 189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주군 서원면이 편입되었으며, 1910년 면제(面制) 실시로 8개면으로 구성된 군(郡)이 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 계속 8개면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1961년 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63년 군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영월군 수주면의 강림리, 월현리, 부곡리가 횡성군 안흥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 행정 관할구역 개편에 따라 홍천군 남면의 상창봉리가 횡성군 공근면에 편입되었다. 1979년에 횡성면이 횡성읍으로 승격되어, 횡성군은 1읍 7면으로 구성되었다. 1982년에 서원면 산현리, 매곡리, 압곡리의 일부가 원성군(현 원주시)으로 편입되었고, 우천면 추동리, 정암리가 횡성읍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89년 횡성군 조례로 안흥면 강림출장소 관할 강림리, 월현리, 부곡리가 강림면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횡성군은 동북방으로 태백산맥의 운봉들이 둘러싸인 높은 산악고랭지를 형성하고 있고, 서남방으로 비교적 비옥하고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강상류의 섬강과 남한강 유역의 농경지는 관계시설이 잘되어 많은 농산물을 생산⁵⁾하는 농촌지역이다. 그렇지만 임야가 전체면적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논밭은 15% 정도 남짓하며, 그나마도 논보다는 밭이 더 많다. 따라서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더 활발한데, 이곳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밭곡식으로 감자와 옥수수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런 관계로 횡성군은 밭농사가 탁월하다.

횡성군의 주된 농산물로는 쌀·두류·옥수수·감자 등이 생산되

5) 횡성군, 『횡성군지』상·하, 2001, 95쪽.

고 있다. 이것 말고도 이곳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특산물로는 「맥주를 빚을 때에 발효를 도와줄 뿐 아니라 맥주의 고유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주는 홉이 있는데 한 때는 전국 총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했다.」 「원래 홉은 청일면 일대의 고랭지에서 재배되었으나, 매년 그 면적이 10ha씩 증가하여 점차 평야지대로 까지 확산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가 없는 까닭에 홉의 생산은 하지 않는다.」 또한 농경지가 좁은 이곳은 농사짓는 일 외에도 복조리나 황률 등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재래종 밤을 말려서 껍질과 보리를 벗긴 뒤에 더 말려서 만드는 노란 빛깔의 밤인 황률은 공근면 청곡리와 가곡리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동북쪽은 높은 산간 지대가 많으므로 산간 지대의 고랭지를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기도 한다. 이 밖에 고추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또 누에고치도 생산한다. 그리고 둔내면·우천면·공근면 일대를 중심으로 인삼 재배를 늘려가기도 한다. 광물로는 공근면에서 철이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금도 청일면에서 채굴되고 있다⁶⁾

무엇보다도 풍부한 산간 초지를 이용하여 한우의 사육이 활발한데, 횡성한우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2009년 말 현재 가축 사육호수는 전체의 25.5%를 점유하고, 그 중 한우 사육호수 및 두수는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높다.⁷⁾ 교통이 편리한 고속도로와 춘천 간의 도로변을 중심으로 낙농업도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번 2011년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횡성 축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횡성군 인구는 1815년에 3,271명이었다. 그러나 1910년대에

6)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69-70쪽 참조.

7)횡성군 통계 연보, 2010.

들어오면서 군에는 15배의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난다. 춘천헌병대본부에서 발행한〈강원도상황편개江原道狀況?概〉 및 〈조선헌국세조사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횡성군의 인구가 45,192명으로 1800년대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추세는 1940년대까지 지속되어 1940년 횡성군 인구는 79,676명이었다. 1950년대에 들어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감소가 나타나다가 중반부터 인구의 완만한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55년 횡성군 인구는 76,565명이었다.

이처럼 인구가 급격한 감소현상이나 급격한 증가 현상을 보이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 수 있다. 먼저, 해방 당시에 귀환 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본 군에 귀향한 사람이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주를 이루었던 관제로 인구 변동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증가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⁸⁾ 1950년대 중반부터 완만한 증가를 보이던 횡성군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역대 최고의 인구수에 이르렀다. 1960년대 횡성군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	1966	1977	1982	1989	1992	1999	2007	2008	2010 (1월말)
횡성군	96,740	103,726	85,133	69,911	51,691	51,481	46,986	43,799	44,043	44,033
횡성읍	15,060	15,640	18,932	17,820	17,924	19,060	19,572	18,905	18,784	19,162
우천면	8,207	8,885	11,559	9,196	5,329	5,433	5,418	4,691	4,781	4,542
안흥면	19,383	21,238	10,932	8,698	3,746	3,558	2,941	2,618	2,759	2,772
둔내면	14,492	15,296	12,037	9,916	6,731	6,082	5,597	5,495	5,516	5,411
갑천면	10,247	11,476	7,997	5,929	3,890	3,724	2,336	2,084	2,135	2,141
청일면	9,639	10,724	7,594	5,653	3,551	3,353	2,799	2,420	2,429	2,363
공근면	11,599	12,092	9,445	7,540	5,330	5,312	4,314	3,830	3,804	3,786
서원면	8,113	8,375	6,587	5,159	3,040	3,083	2,479	2,287	2,298	2,293
강림면	-	-	-	-	2,150	1,876	1,530	1,469	1,537	1,563

횡성군 연도별 인구변화

8)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71-72쪽 참조.

횡성군 인구는 1966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를 하였다. 횡성군의 인구감소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촌의 장년층이 도시로 이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횡성군에 인접한 원주시의 도시 발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원래 횡성읍이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교통요지로 일찍부터 상업도시로 발전하였으나, 인근 원주에 군사도시가 형성되면서 원주가 급속도로 발전·변창한 기세에 영향을 받아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다. 게다가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각종 차량의 교통량이 고속도로에 치우치는 관계로 해서 횡성의 도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 말부터 인구가 감소한 현상은 횡성군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60년대에 들어서는 농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1967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농업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횡성군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띤다.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 횡성군의 인구 감소 추세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오히려 2008년에 미미하지만, 인구가 전년에 비해 244명 증가하였다. 2010년 현재 횡성군 총 인구는 44,033명이다. 특이한 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 등의 영향으로 횡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995년 91명이었던 외국인은 2008년 630명으로 증가하였다.

횡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인구변화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안흥면 인구수가 횡성군에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것이다. 1963년도

에 영월군 수주면의 강림리, 월현리, 부곡리가 안흥면에 편입되면서 안흥면은 횡성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면이 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 1963년 안흥면에 편입되었던 마을들이 1989년 강림면으로 분화되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인구 감소 추이는 횡성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횡성읍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에는 횡성군 인구의 약 44%가 횡성읍에 모여 있다.

2. 횡성군 오일장들의 역사

1) 전국 장시의 변화

한국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서울과 지방 각지, 특히 삼남지방에서 장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장시는 지방마다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선조 때에 이르러 미약하나마 5일 간격으로 각 지역이 연결되는 시장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장시의 개설은 더욱 진전되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게 되면 국토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것은 그 동안의 주거지 확산과 수공업 부문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⁹⁾ 시장의 개설이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숙종조를 전후로 한 18세기 초엽이며, 1730-4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발달을 시작하여 장시 상호간에 연결 관계가 이루어진 1750년대에는 장시가 시전체계에 대립하

9)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2, 54-55쪽 참조.

면서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게 되고, 이러한 유통망을 배경으로 사상층(私商層)이 등장한다.¹⁰⁾

처음에는 6-7일, 10일 간격으로 서는 장시가 많았으나, 이후 점차 5일 간격으로 줄어 1일 행정(行程), 즉 하루 왕복거리인 30-40리 마다의 교통 요충지에 들어서 지역마다 하나의 교역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중엽인 영조 16년(1740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약 1,052개소에 산재¹¹⁾하여, 오늘날 분포하고 있는 정기시장의 기본체계가 형성되었다. 물론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는 정치사회적인 불안과 경제력의 약화 및 인구의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장시의 발달이 다소 부진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장시는 꾸준히 발달되었고, 장시는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크게 발달한 정기시장은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에 1,000여개소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정기시장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770	1808	1830	1909	1911	1921	1930	1938
경기	101	102	93	79	110	101	114	103
충청	북	157	157	158	125	55	52	57
						83	90	87
전라	북	216	214	188	149	83	67	63
						125	116	117
경상	북	278	276	268	201	129	159	169
						107	138	134
강원	68	68	51	54	73	97	132	148
황해	82	82	109	89	97	112	125	115
평안	북	134	134	143	101	43	56	91
						82	118	141
함경	북	28	28	42	51	28	44	52
						59	89	109
계	1,064	1,061	1,052	849	1,084	1,239	1,391	1,458

10) 한상권, 「18세기말~19세기초의 시장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집, 179-237쪽, 1981, 236쪽.

11) 이재하·홍순환, 『한국의 장시』-정기시장을 중심으로, 민음사, 1992, 72쪽.

출처: 이재하·홍순완(1992: 78, 103)

1770년: <<동국문헌비고>>(영조46년); 1808년: <<만기요람>>(순조8년);

1830년: <<임원십육지>>(순조30년); 1909년: <<조선요람>>;

1911-1938년: <<조선총독부통계연보>>(문정창, 1941);

1921/1930년 시장 수는 제1 2 3호 시장의 합, 1911/1938년 시장 수는 제1호 시장 수.

조선시대에서 일제시기까지 도별 정기시장수의 변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영조 46년, 1770년에 편찬됨)는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장시에 대해서 각 도별 각 읍에 따라 장 이름과 개장일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1064기의 장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740년에 비해 겨우 12장이 증가한 데 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18세기 이전에도 장이 설만한 곳에는 거의 개설되어 적어도 1000기는 넘어섰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1808년(순조 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향시의 도별 수와 각 도의 대규모 장 15개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전국의 장은 1061기에 달하였다. 그리고 순조 30년(1830년경)에 서유구에 의해 편찬된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는 전국에 1052기의 장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모든 장시의 이름, 행정구역별 소재지 및 위치, 개시일 그리고 주요 장의 주요 출장품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19세기 초반에 1050-1060여기의 장시가 나타나고 있어 18세기의 그것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조선후기에서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약한 장시가 폐장되는 반면에, 시장체계의 형성과 확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장시가 신설되는 등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조선시대에 정기시장의 도별 분포에서 가장 많은 도는 경상도

12)한상권, 앞의 논문, 201-235쪽 참조. / 이재하·홍순완, 앞의 책, 72쪽.

였고, 다음으로는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등의 순이다. 개설 장시의 수가 가장 적게 분포한 지방은 함경도였고, 그 다음이 강원도였다. 이와 같은 분포 패턴은 지역의 면적과도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그 지역의 인구와 농산물 생산량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³⁾ 물론 강원도에 개설된 장시의 수가 적다고 하여 장시의 규모도 작은 것은 아니었다. <<만기요람>>(1808년)에서는 19세기 초 향시 중에서 전국에서 그 규모가 큰 장으로 15기 장시를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의 하나가 강원도 평창의 대화장이다. 그 외의 전국 규모의 장시로는 경기도에서는 광주 사평장과 송파장, 안성 읍내장, 교화 공릉장, 충청도에서는 은진의 강경장과 직산의 덕평장, 전라도에서는 전주의 읍내장과 남원의 읍내장, 황해도에는 토산의 비천장, 황주의 읍내장, 봉산의 은파장, 경상도에서는 창원의 마산포장, 평안도에서는 박천의 진두장, 함경도에서는 덕원의 원산장이다.

이들 장이 분포한 것을 보면, 첫째는 서울 인근 지방인 경기도와 황해도에 큰 장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이 양도가 서울로 가는 길목이어서 각 지방으로부터 상인과 상품이 모여드는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송파장의 경우와 같이, 이들 장이 큰 시장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산물을 집산하기 쉬운 주요한 포구(강경, 원산, 마산포)와 나루터(津頭: 박천읍치에서 서남쪽으로 20리 떨어진 현 대영강(大寧江) 하류에 위치한 나루터)이거나 오래된 지방의 고을 중심지(전주와 남원의 읍내장)에서 큰 장이 형성

13)이재하·홍순완, 위의 책, 78쪽.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¹⁴⁾ 그러나 “오늘날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곡릉천(曲陵川) 부근에 위치한 포구로 추측되는 교화의 공릉장과 백제의 옛 도읍 위례성이 있었고 교통의 요충이기도 한 직산(稷山)고을의 덕평장과 평창의 대화장 등은 38년 전에 발간된 <<동국문헌비고>>와 22년 후에 간행된 <<임원십육지>>의 장시명에 모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당시에 전국을 대표할 만한 큰 장이었는지 의문시 된다”¹⁵⁾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옥한석은 대화장은 19세기에 들어 오대산 부근의 중심지로 등장하였다¹⁶⁾고 말하고 있다. 즉 “역로에 따라 교류가 지속되던 17·18세기와 달리 19세기에 들어서면 역로 대신에 오대산이나 운두령을 넘어 대화에서 내면으로 가는 교통로가 알려져 약수터 고개나 구목령을 경유하는 통로와 연결(이것이 후일 인제·양양·평창을 남북으로 잇는 국도가 된다)되어 새로운 인구유입지로 각광을 받았다. 인구성장에 따르면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대화장이나 둔내장이 개시되어 전자는 봉평면·진부면·내면·도암면의 주민이 이용하였고, 후자는 북청일면·갑천면·서석면·대화면 일부에서 이용하였다. 16세기까지는 시장을 개설할만큼 인구가 많지 않아 주로 자급자족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대화장과 둔내장이 오대산 부근의 주요 중심지로 등장함으로써 인근 촌락의 공동체가 서로 유대관계를 맺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¹⁷⁾

14) 이재하·홍순완, 위의 책, 80쪽.

15) 위와 같음.

16) 옥한석, 『향촌의 문화와 사회변동』, 한울아카데미, 1997(1994), 171쪽.

17) 위와 같음.

조선말의 장시에 대한 자료¹⁸⁾는 융희 3년(1909)에 구한국정부농상공부에서 발행된 <<조선요람朝鮮要覽>>에 바탕을 두었는데, 전국의 장시 수는 849기이다. 이렇게 본다면, 1830년경에서 1909년까지의 조선 말기에는 203기의 장시가 줄어든 셈이다. 이와 같이 말기에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각 지방중심지에서 상설시장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19세기 후반에 거듭된 진주와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민란, 동학 농민운동과 같은 일련의 반봉건적 농민운동과 홍수, 한발, 가뭄, 병충해의 자연 재해 및 질병 등으로 초래된 인구감소와 사회경제적 혼란에 따른 농촌경제의 피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¹⁹⁾

이점은 장시의 지역별 분포 수의 변화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먼저 1770년에서 1909년 사이에 정기시장의 수가 많이 줄어든 도를 보면, 전라도가 가장 심하고, 다음으로는 경상도, 평안도로로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시장밀도가 높았던 이들 지역에서 특히 정기시장의 감소가 많았던 것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형성되어진 대장시의 상권확대로 일부 소장시들이 흡수되어 폐지된 것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들 세 도에서 19세기에 대규모의 민란이 많이 발생했을

18) 조선말의 장시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은 1908년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와 융희 3년(1909)에 구한국정부농상공부에서 발행된 <<조선요람朝鮮要覽>>에 나와 있다. 그런데 증보문헌비고에는 전국에 1077기의 장시가 기록되어 있고, 1년 뒤에 나온 <<조선요람>>에는 849기가 나타나고 있어 자료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증보문헌비고>>의 자료에 대해서 일본인 선생영조(善生永助)는 고종조(1864-1907)에 박용대 등에 의하여 <<동국문헌비고>>을 고쳐 편찬한 것을 1908년에 재판하였다 하여 이 자료상의 장시를 고종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에 한상권(1981: 192-193)은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장시는 <<동국문헌비고>>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수록하면서 1770년 이후에 신설된 13장만을 <<증보문헌비고>>에 수록한 것이 때문에 당시의 시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증보문헌비고>>의 자료에 대한 불합리성은 <<동국문헌비고>>와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 외에, 전국 장시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삼남도의 장시 수가 19세기 초부터 각 도에서 비슷한 수치로 1870년대까지 감소한 사실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말의 장시자료는 <<조선요람>>의 것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재하·홍순완, 앞의 책, 73).

19) 이재하·홍순완, 위의 책, 74쪽 참조.

뿐만 아니라, 장날에 장터가 그러한 민중봉기의 장소로도 자주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시장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장시가 소멸되거나 또는 통폐합되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862년에 일어난 진주 및 삼남 지방의 민란 이후 1863년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893년까지 사이에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50회의 민란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진주민란이 발생하기 직전인 10여 년 동안에만 해도 1855년과 1858년에 두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홍수, 한발, 겨울가뭄, 병충해, 전염병이 찾아들었으며, 심지어 한해에 두세 가지가 겹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함경도와 강원도는 유일하게 장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이 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장시의 발달이 저조했던 지역이자 민란의 발생과 피해가 가장 적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장시의 발달이 꾸준히 계속될 수 있었던 것 같다.²⁰⁾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의 장시의 체계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일본의 경제적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1910년부터 1918년간에 걸쳐서 한반도에 대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의 자본제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시장에 대해서도 경제적 침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취하였다. 일제는 1910년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시장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하기 위한 통첩을 각 지방 장관에게 보냈는데, 시장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도 본부에 품의한 뒤 처리토록 하였다. 이렇게 시장의 운영권을 장악한 일본은 당시 조선인의 거의 유일한

20)위의 책, 74, 79쪽 참조.

상품교환 장소인 정기시장의 유용성을 그들의 경제적 침탈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재래 정기시장에 대해 장려정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였다. 농촌 재래시장의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정책의 결과로 1909년과 1916년간의 불과 7년 사이에 제1호 시장(정기시장)이 326기나 인위적으로 증설되었으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종전까지 시장이 전혀 서지 않았으나 단번에 8개의 장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시장 교환경제에 대한 일본의 침탈정책은 시장에 관한 새로운 법령의 제정으로도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먼저 1914년 총독부령으로 <시장규칙>을 제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장을 제 1, 2, 3 호 시장으로 확대 구분하고 또한 일본인이 경영하는 제 3호 시장을 제외하고는 공공단체(도, 군, 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니면 시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여 놓음으로써, 일제가 시장의 개설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그들의 의도대로 시장의 개설을 확대해 갈 수 있게 되었다.²¹⁾ 일제 말경에는 재래시장(제1호 시장) 1,458기와 이른바 신식시장(제2, 3호시장)이 64기가 신설되어, 이들 시장의 수가 1522기에 달하였다.

일제시대에 이와 같은 정기시장의 급성장에 대해서 총독부에서 간행한 시장자료집을 편찬한 선생영조(先生永助)와 이에 관계한 일본 학자들은 당시에 이루어진 토지생산성의 제고, 근대 교통의 발달, 상업의 자본주의화 등과 같은 일본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 와 이로 인한 농민의 생활향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²²⁾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과는 별로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시대에 한국사회가 진정으로 근대화되고 생활수준이 많이

21)위의 책, 97-98쪽 참조.

22)위의 책, 100쪽.

향상되었다면, 이론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시장제도인 정기시장의 일부는 상설시장으로 전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기시장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농민들의 주생산물이자 주소득원이기도 한 쌀의 생산량을 보면, 전에 비해 크게 증대되긴 했으나, 일본의 계속된 수탈에 의한 미국의 대일 출혈수출 때문에 1인당 소비량은 오히려 1930년대 중반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불평등한 저곡가(低穀價) 정책 때문에 쌀값도 크게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잡곡의 소비량도 줄었다. 따라서 일제치하의 농민생활수준은 실질적으로 더욱 더 낮아지게 돼 빈곤자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춘궁기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일제 때 한국민의 생활향상에 따른 구매력의 증대가 당시 정기시장의 발달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높은 인구증가가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여 당시 정기시장의 새로운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³⁾

일제시대에 시장분포는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와 같이 각종 지하자원과 임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높은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다주었는데 비해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경상도 등과 같은 평야가 넓은 농업지역은 절대적인 감소 또는 상대적인 저성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제의 자원수탈정책과 그에 따른 남농북공업정책(南農北工業政策)에 기인한 불균형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들 지역 사이에 인구성장률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²⁴⁾ 실제로 일제

23)위의 책, 100-101쪽.

24)위의 책, 102쪽.

시기에는 자원개발 및 원료가공산업 지역(경상도, 평안도, 함경도 등)과 서울이 포함된 경기도는 전국 평균 이상의 인구성장을 기록한 반면에, 여타 농업 중심지역의 도는 인구의 유출로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구증가가 당시 정기시장의 발달에 기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²⁵⁾

인구증가와 더불어 장시의 개설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일제의 적극적 시장 증설책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강원도의 시장은 모두가 공설시장이었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의지가 전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유통체계상 시장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 강점 이후 일제는 지역마다 농회, 산업조합 등 각종의 농업·산업단체를 조직했는데, 이들은 해당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면서 유통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때 각 지역의 시장은 그 하부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따라서 과거 각 지방의 시장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러 종류의 상인들을 대신하여, 일제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던 농회, 산업조합 등과 같은 각종 경제단체들이 시장거래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는 전국에 걸친 시장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말단의 유통조직을 구성해야 할 부담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시장수의 증감변경은, 종래의 자연발생적 상태를 이탈하여 인위적 행정방침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특히 강원도를 비롯하여, 평남, 평북, 함남, 함북의 6도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증설해 나갔던 것으로 지적된다.²⁶⁾

이처럼 장시가 현재의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는데,

25)위의 책, 103쪽.

이 점은 문정창이 분류한 전국의 대시장의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문정창(1941)은 1938년의 <<조선총독부시장통계표>>에 나타난 전국 정기시장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단순 분류하였다. 전국에는 거래액이 200만원이 넘는 대규모 정기시장이 20기에 이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경성부 가축시장, 충남의 예산장, 천안장, 전북의 남원장, 경북의 대구 서문장, 상주장, 경남의 부산진우시장, 진주장, 황해도의 취야장, 온천장, 연안장, 사리원장, 곡산 읍내장, 평남의 암적장, 평북의 박천장, 영미장, 강계장, 강원도의 횡성장, 함남의 원산 우시장, 함북의 길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들 장은 조선시대 말경에 큰 장의 분포와 많이 달라져서 북한지역과 지방의 주요 중심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일제 때에 있어서 북한지역에서의 상대적인 인구증가와 근대 교통의 도입에 따라 그 동안에 이들 정기시장의 기능과 시장권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²⁷⁾

강원도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시장수와 시장 거래액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1인당 시장 거래액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상설점포를 중심으로 한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재래시장의 거래 비중이 높았던 강원도에서 시장수가 증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강원도의 시장분포는 일제의 적극적 시장증설책이라는 경제외적인 요인에 따라 급속히 늘어갔다. 아울러 이 시기에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시장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인구는 늘어나고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극히 낮았던 상황에서 유통체

26)류승열, 「일제강점기 강원도의 상업과 시장 변동」, 『강원사학』 제15·16합집, 233-270쪽, 2000, 247-8쪽 참조.

27)이재하·홍순완, 앞의 책, 106쪽.

계마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시체제 하에서 통제경제체제를 시급히 확립해야 할 필요는 절실하였다. 즉 생산물을 값싸고 안정되게 수집하고 최소한의 생활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분배·배급 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였다. 이때 가장 손쉽게 찾았던 방도는 재래시장의 증설이었다. 지역이 넓고 인구는 크게 늘었던 반면 소득수준은 낮고 상업의 발달이 정체되었던 강원도의 경우, 통치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재래시장을 확대할 필요성은 더욱 컸던 것이다.²⁸⁾

일제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던 장시의 수는 다시 일제말의 태평양전쟁, 해방,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또 한 번 크게 변하였다. 전국에 개설된 장시의 수는 1938년에 비해 거의 반 이상이 감소하였다. 해방이후 장시의 변화이다.

도별 ¹⁾	1950	1960	1970	1975	1980	1983	1988
경기	75	94	104	83	70	71	51
강원	49	60	73	67	61	59	59
충북	52	60	79	70	64	68	68
충남	89	103	114	109	103	94	76
전북	46	53	69	67	60	56	51
전남	82	97	159	150	142	134	132
경북	131	186	235	217	200	166	166
경남	129	154	174	182	173	155	129
제주	19	19	25	18	16	17	16
전국	668	826	1,032	963	889	820	748
자료: 1970년, 경북은 이재하 정거시장 조사; 1975년, 김성훈(1977: 369-414에 발췌); 그 외 자료 상공부 제공.							
출처: 이재하 홍순완(1992: 127).							

해방이후 전국 도별 장시 수의 변화

28) 류승렬, 앞의 책, 248-9쪽 참조.

해방 이후 정기시장은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의 사회적 혼란기에 일시적으로 침체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가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재래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전후의 복구 사업과 미국의 소비재 경제 원조, 전후의 인구유입의 급증으로 전반적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오일장을 많이 설치하게 되었다.²⁹⁾ 그리고 무엇보다 월남 피난민과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적 방편의 하나로 재래시장을 선택하였다.³⁰⁾ 1950·60년대에는 농촌인구의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정기시장이 크게 발달하였다. 반면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는 시장수가 적은 편이다. 강원도는 타도에 비해서 지형적으로 산지가 넓게 분포하고 인구 밀도가 낮으며 경지면적이 적어 전반적으로 취락의 수도 적고 시장취락의 수 역시 적다. 시장수에 있어서 면적상으로 강원도보다 훨씬 작은 충북과 거의 같은 수이다.

특히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양분된 강원도는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 휴전선 부근에 접한 약 20km 이내의 지역인 양구, 인제 등지에서 다수의 시장이 폐지되었다. 또한 춘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등의 도시 주변에서 시장이 많이 폐지되었다. 도시주변에서 정기시장이 해방 후에 많이 폐지된 것은 전국적인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시장이 증설되었

29)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80쪽.

30) 고미현, 「번개시장(Flea Market)의 형성과 발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1쪽 참조.

다. 강원도의 경우 휴전선 남쪽의 강원도 동부에서 대부분의 시장이 폐지된 것과는 반대로 철원군의 와수리, 지포, 동송, 김화 등 4개의 시장이 신설되었다. 이는 주로 한국전쟁 이후에 외국군의 주둔과 이를 배경으로 한 상업적 기능의 향상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흥천읍을 중심으로 북한강의 지류인 흥천강 유역과 영월군과 정선군의 남한강 상류지역에 많은 시장들이 신설되었다. 특히 영월군의 마차(磨麩), 구래, 정선군의 사북, 문곡, 골지리, 삼척군의 장성, 철암 및 도계시장으로 이들 시장은 해방직후에 남한에서 동력자원이 부족하던 시기에 석탄의 개발에 힘입어서 이로 인하여 광업개발과 더불어 각지에서 이동해 온 광산종사자 및 그들 가족의 집결에 따라 새로운 광산촌의 성립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³¹⁾

산업사회로 접어든 1970년대 이후에는 농촌인구의 감소, 도시화 진전, 유통부분의 현대화로 장시는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도에서 정기시장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화양상에 작용하는 요인으로는 도시화, 교통 발달, 상품구매 대체시장 확충, 농업의 상업화와 농산물 유통기구의 변화, 근대적 대중문화 매체의 보급, 가축시장의 쇠퇴 등을 들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감소율이 특히 높았으며, 제주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의 감소율도 전국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서울의 성장과 그 주변 지역에서 위성도시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1973년부터 등장한 전철과 자동차교통의 발달로 인한 접근도가 높아졌다.

31) 이종우, 「강원도의 시장분포」, 경북대 교육대학원, 논문 1집, 1970, 32-3쪽 참조.

경기도 거의 전역이 서울시의 일상생활권화됨에 따라 기존의 정기시장이 상설화되었거나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 발달한 상설시장으로 정기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정기시장이 많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정기시장의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충청남도과 제주도는 최근에 도시화가 급진전 되었고 자동차 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서 주요 도시의 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³²⁾

이런 과정에서 전국의 주요 장지도 일제시대에 비해 큰 변화가 있었다. 김성훈은 1975년 현재 전국 정기시장의 장별 일일평균 거래액(가축시장은 제외)을 조사하고 그 분포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거래액 500만원 미만의 장(전체의 83.1%, 926기 시장 중 770기)을 기초시장(standard market),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장(12.1%, 112기)을 중급시장(intermediate market),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 거래되는 장(4.8%)을 지역의 중심시장(central market)으로 분류하였다. 김성훈의 분류에서 이른바 지역중심시장에 해당하는 44기의 정기시장(이 44기의 큰 장은 이재하·홍순완이 김성훈³³⁾에서 정기시장의 거래액과 이용자 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선정한 것)은 경기도 오산, 평택, 안성, 장호원, 강원도의 홍천, 강릉, 충북의 제천, 괴산, 신탄진, 충남의 당진, 서산, 홍성, 광천, 대천, 조치원, 공주, 논산, 금산, 강경, 전북의 김제, 부안, 정읍, 순창, 남원, 전남의 담양, 송정, 함평, 남평, 순천, 경북의 영주, 풍산, 안동, 상주, 안계, 의성, 김천, 영천, 청도, 경남의 함양, 밀양, 하남, 김해, 사천, 제

32) 이재하·홍순완, 앞의 책, 128-9, 195-216쪽 참조.

33) 김성훈, 『한국의 정기시장: 5일시장의 구조와 기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414쪽.

주이다. 이 시장들은 대체로 역사가 오래된 시장이고 상설시장이 발달한 중·대도시와는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면서 넓은 농업적 배후지를 갖고 있는 소도(읍 또는 소시)이자 농촌 지방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정기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교통이 편리한 소도시의 5일장들이 오늘날에는 대시장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⁴⁾

강원도 장시의 경우, 기초시장이 66기, 중급시장이 3기, 중심시장이 2기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지역중심시장에 해당하는 전국에 44기의 정기시장이 있는데, 강원도는 홍천장과 강릉시장이자이다. 일제시대 가장 큰 시장이었던 횡성장은 기초시장군 규모로 작아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장시의 쇠퇴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장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들과 맞물려 새로운 활기를 찾고 있기도 하다.

2) 횡성군 내 장시의 변화

강원도는 함경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와 더불어 개설된 장시의 수가 적은 지역이다. 강원도내에서도 시장취락의 분포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 특히 강원도의 지형상의 조건이 시장 형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태백산맥의 동쪽에 치우쳐서 남북으로 뻗어 한반도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태백산맥의 서사면(西斜面)은 전반적으로 한강수계에 속하며 춘천, 원주 등은 분지의 중심도시로 발달되고 있다. 태백산맥의 동사면(東斜面)은 단층에 의한 급사면을 형성하고 남북으로 길게 해안

34) 이재하·홍순완, 앞의 책, 133쪽.

평야가 발달하였는데, 취락도 그 해안평야상에 밀집해 있다. 강원도내의 시장취락의 분포는 동부의 산지에서는 적고, 이보다 지형상 낮은 한강유역의 낮은 곳으로 갈수록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중우는 1963년의 <<국토구역총람>>에 기초하여 강원도의 시장을 크게 4개 군(群)으로 나누어, 시장군마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³⁵⁾ 시장군은 강원도의 서북부 철원군 일대의 시장군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한강수계 및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태백산맥 이동, 즉 영동지방의 동해안에 면한 해안평야상에 발달한 시장군이다. 이 시장군은 속초, 강릉 등을 포함한 북쪽의 현내시장에서 남쪽의 호산시장까지 거진, 간성, 죽왕, 아야진, 천진, 물류(物溜), 양양, 현남, 주문진, 왕계, 묵호, 교하시장 등으로서 수산물 거래와 관계가 깊은 수산물의 생산지 시장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거진, 아야진, 천진, 속초, 강릉, 묵호 등은 어항(漁港)이다. 이와 같이 해안에 있어서 수산물의 판매를 위한 시장의 개설은 생산에서 소비의 중간과정을 담당하여 수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취락기능의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이 개설되고 있는 어항은 어업의 중심지로서 발전할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 기능도 활발해진다. 어항을 중심으로 발달한 어시장의 운영은 내륙의 재래시장에 비해서 특이하다. 조합이나 공판장의 운영 등 조직적이다.

두 번째는 태백산맥 이서(以西)의 북한강유역의 내륙에 발달한 시장군이다. 이 시장군은 춘천시를 중심으로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춘성군 및 홍천군을 포함하는 농촌과 산촌 성격의 시장군

35) 이중우, 앞의 논문, 37쪽 참조.

으로 한국 재래시장군이다.

세 번째는 태백산맥 이서(以西)의 남한강 유역의 원주시와 영월을 중심으로 한 시장군이다. 이 지역의 서부에 있는 원주시 주변의 제 시장은 농촌중심이며 평창군이나 횡성군의 제시장의 고도 500m 전후의 높은 산지에 위치한다. 정선군, 영월군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구는 태백산맥 종합개발에 따라 남한에서 대표적인 광산개발지역으로서 광산촌의 입지와 이에 따라 광업지역 특유의 소비성의 향상에 따라 시장의 성격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네 번째는 강원도의 서북부 철원군의 철원, 와수리, 지포, 동송 등을 중심으로 한 시장군이다. 이 지역 시장은 한국전쟁 후 시장의 성격이 상당히 변하여 군인의 주둔에 따라 소비성이 향상된 경제사정에 입각하여 그 규모는 작으나마 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상품의 유통이나 지역성격상 서울과 관계가 깊고 강원도의 다른 지역들과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횡성군은 태백산맥 이서의 남한강 유역의 시장군으로 원주시와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왔다. 하천 유역은 지역적 물자 교환이 유리한 교통의 요지로 시장의 입지로는 좋은 곳이다. 강원도 시장군에서도 드러나듯이, 춘천시, 원주시, 홍천, 횡성, 영월 등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유역에 위치하여 하천 유역에서 생산된 물자를 모으고 운반에 편리한 곳이다. 또한 원주, 홍천, 횡성, 춘천 등지는 여러 개의 도로의 교차지이며 대부분 지방 시장은 이차선이상의 도로의 집결지에 위치하고 있고, 태백산맥을 횡단하는 도로는 동서로 그 노선에 다수의 시장을 연결하고 있다.³⁶⁾ 이처럼 시장을 형성하는데 좋은 지역에 위치한 횡성은 예

36) 위의 논문, 43쪽.

부터 시장이 발달해 왔으며, 오일장을 빼놓고 횡성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강원인 성품요>의 “횡성 약동이”, <강원도 장타령>의 “橫城堅說 橫城장 에누리만어 못보고”, <강원도 郡名歌>의 “橫城 장돌뱅이” 등에서 보이듯이, 횡성은 ‘제 2의 개성’ 이라고도 하였을 정도로 상업이 발달하였고, 횡성 사람들도 장사 수단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일화가 있다. “횡성 사람과 개성 사람이 우연히 외딴 집에서 같이 밤을 지내게 되었다. 횡성 사람은 문에 창호지를 발라 바람을 막고 개성 사람은 초를 마련해 방안을 밝혔다. 개성 사람은 내심 자기 돈이 덜 들었다고 생각하며 좋아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횡성 사람은 문에 바른 창호지에 물을 묻혀 창호지를 떼어 갔다. 그러나 개성 사람은 초가 다 타버려 가져갈 것이 없게 되었다.³⁷⁾ 횡성 사람들은 개성 사람들처럼 상권을 장악하는 수완을 보이었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도처에서 상권을 장악할 때에도 개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횡성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했으므로 ‘제2의 개성’ 이라고 하였다.³⁸⁾ 이처럼 횡성사람들의 삶은 장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오래전부터 횡성군내에 다양한 장시들이 발전해왔다. 횡성군내의 장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주영화 · 전성현 · 강계석, 앞의 책, 197쪽.

38) 김의숙, 『강원전통문화총서』 민속, 국학자료원, 1997, 651-2쪽 참조.

읍면	시장명 (소재지)	1770	1912	1923	1926	1938	1963	1975	1984	1994	2010
횡성읍	읍내장(읍하)	16	16	16	16	16	16	16	16/ 상설	16/ 상설	16
안흥면	안흥장(안흥)	-	27	38	38	38	49	38	38	38	38
	강림장(강림)	-			-	-	-	49	49	-	49
	정금장(정금)	-			49	49	-	-	-	-	-
둔내면	둔내장(둔내)	49	-	510	510	510	38	510	510	510	510
	유동장(유동)			49		27	38	38	38	-	-
청일면	봉덕장(봉명)					-	49	-	-	-	-
	동평장(매일)				510	49	27	27	27	-	-
갑천면	대관대장					-	510	-	-	-	-
서원면	창촌장(삼거리)					510	-	49	49	-	-
공근면	공근장						(27)		-		-
	가곡장						(38)		-		-
우천면	우향장(우향)					-	-	49	-	-	-
군내시장수			2	4	5	7	79	8	7	3	4
도내시장수			88	95	110	146	92	67		51	

자료: 1770년, <<동국문헌비고>>; 1923년, <<시가지의상권>>(1926); 1926년, <<조선의 시장경제>>(1929); 1938년, <<조선의시장>>(1941); 1963년 <<국토구역총람>>(1963년); 1975년, <<한국의 정기시장: 5일시장의 구조와 기능>>(김성훈 외, 1976); 1984년, <<횡성군지>>, 1994년, <<강원도 시장민속>>(국립민속박물관, 1995).

출처: 국립민속박물관(1995: 85 참조), 횡성군(1986:432).

횡성군내 장시들의 변화

횡성군에 개설된 시장에 대한 기록은 <<동국문헌비고>>가 처음인데, 당시 횡성읍내장(1·6일)과 둔내장(4·9일)이 섰다. 횡성읍내장이 들어섰던 횡성읍은 행정의 중심지였다면, 둔내장이 열린 둔방내리는 주천강을 이용하여 정부 식량을 저장했다가 운반하는 둔창과 역원이 있던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913년에 들어와서 둔방내리장(둔내장)이 소멸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옥한석은 둔내장은 평창의 대화장과 더불어 19세기 들어 오대산 부근의 주요 중심지로 등장하였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그는 “19세기 말에는 화전민의 급속한 증가로 새로운 촌락이 개척되고 리(里)의 분화가 진행되자 둔내장, 대화장 이외에 청일장(청일면 유동장), 풍암장, 창촌장, 진부장, 봉평장, 계촌장, 광원장이

추가 개설되었으며, 장날을 따라 이동하는 상인이 출현하게 되었다.³⁹⁾고 하였다.

1913년에는 안흥장이 새로 등장한다. 1910년 당시에 안흥장이 생길 수 있었던 요인에는 기존의 수로에서 신작로라는 교통로의 영향이 지대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흥장은 당시 육로를 중심으로 하여 원주 문막에서 올라온 물산이 영서 내륙지방으로 분산되는 길목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미곡 추출을 위한 인위적인 정책으로 192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이 2기의 장이 등장하여 4개기의 장이 개설되고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적인 장의 증가로 면마다 거의 1기씩 장이 설 정도로 7기의 장이 열렸었다.⁴⁰⁾

1923년과 1938년 사이에 횡성군에는 정금장, 동평장(갑천장), 창촌장(서원장)이 신설되었다. 특히 정금장은 정곡면 산전리⁴¹⁾의 금·은광이 개발되면서 활성화되었는데, 1935년 3월 16일 <조선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이다. “본 군의 광업은 전 조선에서도 굴지한 만치 우수한 광업지대로서 전 군에 산재한 금, 은 광산 수는 실로 40여 광에 달하여 년산 60만원의 산출을 알 수 있으며 광맥은 전 군에 의하여 무소부재라 할 만치 양호 다량을 은폐하고 특히 품질이 양호하여 업계에 00이 00하고 현재 20만원 내지 100만원대의 평가를 받는 광산이 수 개에 달하는 바, 특히 정곡면 산전리 금산과 정곡면 험리 금산은 우이독경득하여 있으며 본 군의 광산계는 장래성을 가지고 있다.”⁴²⁾ 1920년대 들어 정곡면 산전리를 중심으로 금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광으로 몰려들었다. 이 지역에 이름난 술집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시기가 끝날 무렵 광산이 거의 폐광이 되면서 정금장도

39)육한석, 앞의 책, 171쪽.

40)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83쪽.

41)현 우천면 소속.

42)박미현, 『한말·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속의 횡성』, 횡성문화원, 2009, 236-7쪽.

쇠퇴하였다.⁴³⁾

특히 일제시기에는 횡성장은 전국적으로 큰 시장이었다. 횡성장의 “동대문 밖의 가장 큰 시장” 등의 이름은 이 때 형성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횡성장은 문정창인 1938년의 <<조선총독부시장통계표>>에 나타난 전국 정기시장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200만원이 넘는 대규모 정기시장 20기 가운데 하나였다. 한마디로 횡성장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장이었는데, 이 점은 강원도 각 군별 장수와 시장거래액의 상관성 비교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군별	1915		1928		1937	
	시장수순위	거래액순위	시장수순위	거래액순위	시장수순위	거래액순위
강릉	9	2	9	1	10	2
간성	14	17	9	17	17	16
김화	14	1	9	8	17	6
삼척	1	10	1	5	1	3
양구	9	17	6	18	7	18
양양	9	9	14	6	10	7
영월	9	21	17	19	5	19
울진	5	13	6	2	10	11
원주	14	11	17	11	10	9
이천	2	4	4	4	5	4
인제	3	16	4	19	2	10
정선	5	15	6	14	10	15
철원	14	3	17	3	20	5
춘천	3	6	14	13	10	12
통천	5	14	1	12	3	8
평강	18	7	17	16	19	17
평창	5	12	9	9	10	12
홍천	20	7	9	9	7	9
화천	18	20	7	21	20	21
회양	9	19	3	15	3	14
횡성	20	5	14	6	7	1

자료: 1915년, <대정4년 조선총독부강원통계연보>
 1928년, 경성상공회의소, <조선...시장취인의 현황>, <<경제월보>> 165, 1929년 9월
 1937년, 경성상공회의소, <조선...시장취인의 현황>, <<경제월보>> 275, 1938년 12월
 출처:류승렬(2000).

강원도 각 군별 시장수와 시장 거래액의 상관성 비교

43) 일제시대와 그 이전부터 일부지역에서 금은동의 소규모 광산이 산전리 등지에 있었다고 하나 일제시대를 고비로 그 수명을 다하고 거의 폐광이 되어 버린 실정이다. 이렇듯 군내의 각 광산은 모두 광맥이 짧고 매장량이 풍부하지 못하여 오래도록 지속되는 광구가 별로 없고 짧게는 3-4년 길게는 10여년을 조업하는 것이 통례이고 따라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횡성군, 『횡성군지』, 1986, 394쪽).

횡성군은 일제시기 동안 장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강원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장시의 수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횡성군의 시장 거래액은 다른 시·군들 가운데 큰 시장에 속하였고, 1937년에는 가장 컸다. 1938년과 1962년 사이에 횡성군에서는 정금시장과 창촌시장이 폐지되고, 대관시장과 봉덕시장이 개설되었다.

해방으로 일본인들의 퇴거에 따른 생산 활동의 저하와 상업자본의 결핍 및 인구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강원도의 상업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여기에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업 활동은 거의 마비상태가 되고 말았다. 해방 후 5년간의 혼란기와 3년간의 전쟁을 치루는 동안 생산 활동이 거의 정지됨으로써 상품의 절대량이 부족한데다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생활필수품의 품귀상태가 계속됐다. 이때 마침 외국에서 밀려들어오는 해외 구호물자 또는 미군물자가 시중에 범람하여 이들 외래품을 중심으로 노점상인의 상거래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상업은 도소매의 구분이 없었고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무시한 파행적인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⁴⁴⁾ 1950년대의 후반에 와서 생산시설이 점차 복구되어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되고 도시와 지방간의 교통이 발달되면서 상업이 그 기반을 굳히기 시작하였고 급격히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정기시장도 주민의 편의에 맞게 확대되어 1960년대에는 공근장(2·7일), 가곡장(3·8일), 서원장(4·9일), 우천장(2·7일), 강림장(4·9일) 등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⁴⁵⁾ 횡성군지(1986)에는 1960년대 초에 공근장과 가곡장이 개시되었다고 하나, 1963

44) 횡성군, 『횡성군지』, 1986, 431쪽.

45) 위와 같음.

년 <<국토구역총람>>에는 기록이 없다. 하여튼 1960년대에는 장시들이 발달하였고, 횡성군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시장망이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횡성군에 개설되는 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횡성장(1·6) - 갑천장(2·7, 동평장) - 청일장(3·8, 유동장) - 흥천 서석장(4·9) - 둔내장(5·10)이다. 두 번째는 횡성장(1·6) - 원주장(2·7) - 안흥장(3·8) - 강림장(4·9) - 둔내장(5·10)이다. 세 번째는 횡성장(1·6) - 평창 계촌장(2·7) - 안흥장(3·8) - 우천장(4·9) - 둔내장(5·10)이다. 평창 계촌장은 순회형태상 평창군내 시장권에 속하기보다는 횡성군의 시장권에 속하며, 이러한 연유로 같은 개시주기를 가진 봉평장과도 시장권상 크나 큰 갈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⁴⁶⁾

횡성군 시장망은 횡성장, 안흥장, 둔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횡성장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세 시장을 중심으로 한 횡성군 시장망은 일제시기부터 성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횡성장은 일제시기부터 지역시장의 중심이었고, 이 중심성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이 점은 1975년도 시장의 거래액에서도 잘 드러난다.

46)이덕성, 「한국의 정기시장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인류학논집 제2집, 1976, 90쪽 참조.

시장	건평	실부지평	가족시장 부지	가족제 외 일일 거래 액(천원)	고정 상인	이동상인	일반이용자	출장소 두수	출장돼 지두수	수 소 비율
횡성	1,300	2,056	971	4,300	180	70	4,000	270	30	45
안흥	160	904	0	1,325	20	40	300	0	0	0
강림	0	0	0	1,150	20	40	300	0	0	0
둔내	375	700	200	2,100	45	50	450	150	25	80
갑천	0	1,409	0	720	10	20	80	0	0	0
청일	0	2,553	80	1,700	30	50	400	25	0	60
서원	0	300	0	920	8	10	180	0	0	0
우항	298	1,298	0	580	20	20	200	0	0	0
강릉	700	1,120	700	16,000	400	1,000	1,400	400	0	75
홍천	0	2,300	1,000	10,000	500	700	3,500	150	20	30
문막	0	0	0	3,480	25	55	600	0	0	0
대화	1,380	6,039	400	4,600	80	20	600	80	12	60

출처: 김성훈(2006: 279-282 참조).

횡성군 장시의 일반 현황

횡성장은, 앞에서 언급한 김성훈외의 분류에 의거하면, 시장 일일 거래액이 500만원 미만의 장인 기초시장군에 속하지만 거래액은 거의 50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일반이용자 수는 강원도의 중심시장인 강릉시장과 홍천장보다 많다. 그러나 고정상인이나 이동상인을 고려해보면, 횡성장의 일반이용자수가 강릉과 홍천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통계상의 오류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횡성장은 강원도 영서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장들인 춘천 풍물시장, 원주 풍물시장, 홍천장과 비교하여 오늘날까지도 가장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장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즉 “5번 국도상에 있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춘천과 홍천, 횡성과 원주다. 춘천시와 원주시의 풍물장이 2·7일에 서고 그 사이에 낀 홍천읍과 횡성읍의 오일장은 1·6일에 선다. 그 중 춘천장과 원주장이 사라졌던 오일장 대신 노점상 대책으로 생긴 풍물시장이라면, 홍천장은 오일장꾼을 상설장 옥상으로 올린 것이고, 횡성장은 장의 모습이야 달라졌지만 예전 모습을 많이 간

직하고 있는 장이다. 그러기에 장돌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이기도 하다.”⁴⁷⁾

196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교통망의 발달과 시장의 상설시장 정착, 상품의 대량생산, 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1960년대 말에 서부터 한 두 개의 장들이 다시 폐쇄되기 시작하였다. 공근장, 가곡장, 대관대장은 5번 국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횡성장에 흡수되었으며, 또한 봉덕장도 유동장에 흡수되었다.⁴⁸⁾ 그렇지만 1970년대도 횡성군에 8개의 장이 개설되며, 장시는 여전히 횡성군 지역의 가장 중요한 유통기관이었다. 1980년대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정기시장은 횡성 (1·6일), 안흥 (3·8일), 둔내 (5·10일), 갑천 (2·7일), 청일 (3·8일), 서원 (4·9일), 강림 (4·9일)으로 7개 시장이 남아있으며 우천, 공근면에는 장이 서지 않고 안흥면에는 2개의 장이 서고 있다.⁴⁹⁾ 물론 장이 선다고 해서, 장이 활성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예로 1973년에 간행된 <<서원지>>에 따르면, 서원장, 이른바 창촌장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장날은 4·9일이지만 서원면의 장이 잘 안 된다. 생활권이 사분오열(원주, 횡성, 용머리, 양동, 창말)되어 있어서 좀처럼 시장이 육성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농협의 중점적인 구관 사업을 하는 데는 오히려 이로운 위치에 있다.”⁵⁰⁾

일제시기에 신설되었던 서원면의 창촌장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지만, 1970년대에 이미 장시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로 1900년대 초반 신작로와 함께 등장한 안흥장

47)주영화·전성현·강재석, 앞의 책, 193-4쪽.

48)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82쪽.

49)횡성군, 『횡성군지』, 1986, 431쪽.

50)서원면·기관장협의회, 『서원지(書院誌)』, 1973, 29쪽.

은 해방 후에도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 요충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안홍장도 급속하게 쇠퇴하여 지금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은 서원장과 안홍장에만 국한되었다기보다는 횡성장을 제외한 횡성군의 모든 장시에 해당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횡성군의 여러 장들은 주변 장들에게 흡수되거나 폐쇄되며, 장들 사이에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겠다. 나아가 오랫동안 농촌 사회에서 장시의 유통기능을 대신하는 농협구판장 같은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농협하나로마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장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예로 현재까지 어렵게 유지되어 왔던 강림장은 2010년 안홍농협 하나로마트 강림지소가 새로이 건립되면서 오일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횡성군 농촌 인구의 급속한 도시화로 말미암아 인구가 적은 곳부터 폐지되기 시작해 횡성읍과 거리가 멀고 인구가 집중된 안홍장과 둔내장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다른 장은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장이 사라지면서 매월 1·6일에 열리는 횡성장은 오히려 활기를 띠면서 ‘동대문밖 제일 큰 장’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있다.⁵¹⁾

51) 횡성군, 『횡성군지』상·하, 2001, 4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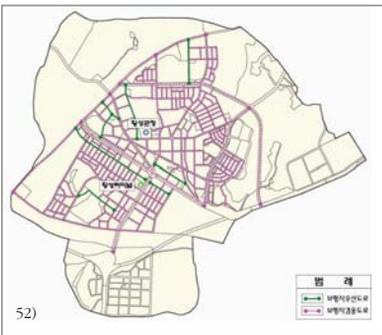
회성장



III. 횡성장

횡성군은 중심 핵에 해당되는 횡성읍가지와 그 외, 면소재인 우천, 둔내, 안흥, 강림, 갑천, 청일, 공근,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횡성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열거한 면단위를 모두 아우르는 상위개념인 횡성과, 횡성군에서 파생된 하위개념인 횡성(횡성읍-이하 횡성)이 존재하는데 이 후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하위개념인 횡성(횡성읍)이며, 그 중에서도 횡성장(횡성읍장-이하 횡성장)이다.

횡성군에서 가장 (도시의)규모가 큰 횡성읍에는 횡성군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과 상업, 교통, 병원 등의 편익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횡성장은 횡성시장과 오일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횡성시장은 횡성읍 읍하리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대략 1022m²(350여평) 정도이다.

현재 오일장은 1일과 6일이며, 횡성 농협과 횡성 법원 및 등기

52) 횡성군청 사이트 자료(<http://www.hsg.go.kr>) 참조.

소 사이에 장이 선다(읍상로 31-35). 입구에서 80m 정도는 ‘신토불이장’이 서며, 그 뒤로는 민속장이 선다. ‘신토불이장’은 우리 농산품을 파는 장으로서 거의 횡성 물건이지만 횡성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공수해 판다.

횡성군청 사이트에 “일부 구간은 신토불이 장터로 지정되어 횡성 관내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이다”라고 제시해 놓은 것으로 보아 ‘신토불이 장터’라는 이름은 공식어이다.

오일장에는 1개읍 8개면 등을 비롯한 횡성군민이 주축을 이룬다. 신토불이 장에는 각종 야채 및 잡곡 몇 되씩 파는 것, 기름[참기름, 들기름], 손수 만든 강정, 엿, 새끼줄로 만든 닭둥지, 생선, 도자기, 고추나 호박을 말린 것 등이 자리잡고 있고, 신토불이 장 다음에 이어지는 민속장에는 음식(떡볶이나 국수, 오뎅, 족발 등), 안경, 국화차, 과자, 과일, 농기구, 주방물건, 골동품, 삼베 물건 등을 팔고 있다. 잡동사니를 팔고 있는 분은⁵³⁾ 횡성-원주-충주-이천장 등을 돈다고 했다.



예전 저자하던 사람들이 주로 자리 잡은 신토불이장

53)자신은 잠깐 봐주고 있어서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신토불이장 다음에 이어지는 민속장

신토불이 장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박종심씨⁵⁴⁾는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호박, 버섯과 그 외 고추, 연근, 파, 오이 등을 산지에서 직송으로 주문해서 팔고 있는데, 횡성에서 장사한 지는 20년 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저자⁵⁵⁾에서 농사한 배추, 무를 팔다가 점차 구색을 갖추기 위해 다른 것도 조금씩 다루다가 지금처럼 여러 종류를 다루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답사한 날[2011. 2. 21]은 자신이 농사지은 버섯과 호박을 가지고 나왔는데, 고추나 오이는 다른 지역[안성]에서 주문해서 가지고 왔다고 했다. 횡성은 추워서 하우스가 되질 않아 다른 지역 하우스 물건을 받아다 판다는 것이다. 횡성 저자가 없어진 이유는 원주에 도깨비시장[새벽장]이 생기고 나서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리면 서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에는 먹고 나머지를 저자에 가서 팔았지만 점차 본격적으로 저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장사하러 왔다갔다하면 농사지을 시간이 없게 된다.

54)남59세,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2011년 2월 21일 채록.

55)제자라고 발음했다.

이러한 이유로도 저자가 없어졌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여름 일[농사 일]은 띄약별 아래에서는 할 수 없는데, 아침 저자를 갔다 오면 이미 해가 중천이라 일할 수 없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저자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는 오일장만 선다고 했다.

집에서 키운 것은 모두 가져가서 파니 남편이, “내가 들이면 나라도 팔 것이다”라고 할 정도이다. 아침에 남편이 무거운 것을 부려준 후 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되받아쳐서 “무거운 것 들어주는 남자를 알아봐야겠다.”고 한다고…. 박종심 아주머니는 무척 명랑했으며 밝았다. 인터뷰하기 위해 1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장사가 무척 잘 되었다. 본 조사자가 “내가 서 있어서 잘 되는 것”이라고 농담을 했더니, 웃으며 “그런 사람을 기[손이]가 건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게 ‘건사람[좋은 운을 가진 사람]이 ‘첫 마수[개시]’를 하면 하루 종일 재수가 좋다고 했다. 그래서 마수걸이 할 때 처음 물어본 사람한테는 원래 물건 값이 10,000원이라면 9,000이나 8,000원이라도 판다고 했다. 이상하게 개시한 대로 하루 종일 간다고 한다. 화장을 싹하고 깔끔떠는 사람보다는 빈틈이 있고 수수한 사람이 재수가 있다고 했다. 즉 개시한 사람이 “손이 건사람”이 좋다는 것이다. 자기들끼리는 그런 사람을 “뒤가 구리구리하다”고 표현한다. “구리구리”가 무슨 뜻이냐고 하자 “그냥 재수가 좋다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장사를 나갈 때 “오늘은 또 어찌나?” 싶다가도 장에 나오면 하루가 금방 간다고 했다. 서로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한다. 장에서 있으면 100m 밖에도 나가보지 못하고 장이

진다고 했다. 보통 겨울에는 7시 30분쯤 도착해서 장을 열고, 여름에는 6시쯤 열어서 껌껌해 질 때까지 장사를 한다. 일찍 나온 사람한테는 “장에 나오고 싶어 잠도 못 잤지?”라며 농을 건다고 한다. 짐을 싸지 않고 늦게까지 있는 사람한테는 “호랑이 나온다.”고 놀리기도 한다.

김장배추 나올 때의 장이 가장 뻑뻑하고, 지금 장은 헐렁하다는 표현도 했다. ‘저자’ (제자)의 의미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것을 조금씩 갖다가 파는 것으로 아침 일찍부터 오전까지 파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런 장을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고 하자 “시골장 간다”고 말해 주었다.

여러 명을 만나본 결과 저자는 ‘제자’라고 불리웠으며 “횡성 근교의 아낙네들이 집에서 키우는 소규모의 농작물이나 두부 등 가공품을 아침 일찍 가지고 와서 파는 행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오늘 저자보러 온 사람 많이 있어?”는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량소머리국밥집 주인 전 사장도⁵⁶⁾ “제자 보러 온 사람 많이 있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이는 “물건 가지고 온 사람들 많이 있어?”라는 의미이다. 구정 전부터 5일장이 섰다. 하도 오래 만에 장이 서서 호박이 다 썩었다고 했다.

장날 자리는 이전에는 이 문제로 싸움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오래 된 순서대로 정해진 셈이다. 자리는 집 사듯이 산다고 했다. 자신은 오래 되어서(장사한 지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자릿세는 영수증은 없지만 암암리에 형성되어있다. 자신은 원래 25,000원 정도 내야 하는데 10,000원만 낸다. “10,000원이나 내면 부담

56)50대로 이름을 알리기 꺼려함.

스럽지 않냐”고 했더니, 그래서 군수가 바뀔 때마다 건의를 하고 이번 군수도 자릿세를 없앤다고 했는데, 군수가 되고 나서 시장 관련자들과의 알력에 의해 무산되었다고 했다. 그 날도 10,000원을 낸 자리 값을 보여주었다. 영수증을 줄 수 있냐고 하니 흔쾌히 주었다.⁵⁷⁾ 누가 걷어가냐고 하자 ‘시장사람’이라고 했다. 영수증에는 횡성시장조합(황광열)으로 되어 있다.

신토불이장에는 거의 이전에 저자하던 사람들이 주로 많다. 말린 고추를 팔고 있던 윤할머니(74세)는 21살 때 횡성으로 시집왔는데, 그 때 시어머니는 자신보다 16살이 많았는데 곡식을 가지고 저자를 다녔다고 한다. 이때도 서울, 원주 등지에서 상인이 와서 곡식을 걷어 갔다. 역시 원주장이 생기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횡성장에 늘 나오는 몇 분 할머니는 주로 곡식을 가지고 와서 판다고 했다.



민속장 관리비 영수증

57)사진참조.

1. 횡성장 입지 배경

1) 자연지리적 위치

횡성읍은 횡성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횡성읍은 태백산맥의 오대산에서 분기된 동령산맥이 군의 남서방향으로 뻗어 3면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해지며 평야 부가 많아지나 전체적으로 산악고원지세를 보이고 있다. 횡성이 높은 산과 남한강으로 뻗어나가는 십여 개의 하천(18개의 물줄기)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횡성읍은 다른 면보다는 하천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남한강으로 뻗어나가는 이들 하천이 횡성읍을 가로질러 섬강으로 흘러들기에 횡성읍 근교에는 여전히 여러 하천이 흐른다.

횡성읍을 중심으로 한 거리상 위치는 서울이 125.9km, 춘천이 62.9km, 원주가 17.2km, 강릉이 110.3km로 수도권 그리고 주위의 주요 도시와의 시간상 거리는 2시간 이내이다.⁵⁸⁾

산지로 둘러싸인 지형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를 덜 받는 편이다. 특히 횡성읍은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논밭이 마른다거나 물이 범람하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읍가지(邑街地)가 발달되어 있어서 자연재해가 횡성군 소재 다른 면보다 훨씬 덜한 편이다. 이전에는 횡성읍 교항리, 읍상 4리가 침수 등 재해 위험 지구에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해제된 상태이다. 이런 지리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횡성읍 주변은 비옥한 농토로 이루어져 있어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더욱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58) 횡성군청 자료실, 인터넷 사이트, 인터뷰 등 참조.

주요 도로가 횡성읍을 중심으로 방사형체계를 이루면서 발달했다. 이런 천혜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횡성읍은 아주 일찍부터 장이 형성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자연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횡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밀집해 있다 보니 교통이 혼잡하여 장날에는 주차문제로 마찰이 빈번히 야기되며, 보행이나 주차 등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2) 인문지리적 위치

1973. 07. 01 대통령령 제6542호(1973.3.12. 공포)로 군, 면간 경계가 조정되었는데, 횡성군 우천면 조곡리, 생운리, 남산리와 공근면 학곡리 일부를 횡성면에 편입시켰다.

횡성읍은 1975. 5.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횡성면이 횡성읍으로 승격(1읍7면)되면서부터 현재까지 횡성읍이라고 불린다. 또한 1983. 2.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우천면, 추동리, 정암리가 횡성읍으로 편입되고, 2002. 01. 10 횡성군조례 제1770호(2002.1.10 공포)로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일부를 횡성읍 읍상리에 편입시키면서 현재의 규모가 되었다.

현재 횡성읍은 면적 72. 41km²에 읍상, 읍하, 북천, 내지, 마옥, 궁천, 송전, 개전, 옥동, 영영포, 마산, 교항, 입석, 청용, 곡교, 묵계, 모평, 반곡, 갈풍, 가담, 조곡, 생운, 남산, 학곡, 추동, 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횡성읍은 횡성군청, 대한지적공사, 법원, 우체국, 대한전력공사 등 공공기관과 학교, 교육청, 학원 등 교육기관,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요새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횡성지역의 중심지역이다.

인구는 1967년 전까지는 10만 명 정도였으나 점차 감소 추이를 보여 2008년도 횡성군 총 인구는 44,043명이며, 이 중 외국인인 630명을 차지하고 있고, 남녀 비율은 비슷하다(II장 횡성군 연도 별변화 참조). 사람들은 횡성읍에 밀집해 있다. 2008년 횡성읍 인구는 18,784명이었으나 2010년 1월말 현재 19,16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한마디로 횡성읍은 군내 다른 면과 비교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인구의 감소 추이는 최근 들어서는 덜하며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상태라고 한다.

횡성읍은 횡성군에서 1차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상업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상업지역 면적은 횡성읍이 17.7㎡로 (우천면44.9㎡)이나 둔내면(25.9㎡)보다 작다. 이는 횡성읍의 상업지역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1인당 상업지역을 차지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이다. 기대할만한 것은 횡성군의 교통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웰빙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는 시대적 추이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동대문 밖 제일 큰 시장, 횡성”이라는 명성이나 다시 부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2. 횡성장의 형성과 변천

1) 고대~조선시대

횡성읍 목계리 등지에서 긴돌갈, 간돌화살촉 등이 출토되어 구

석기 때부터 황성읍에도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전의 황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지형적 특색으로 보았을 때 황성읍은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형성하며 농토가 비옥하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등 천혜의 자연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터전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장도 일찍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장이 언제부터 섰는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문헌에는 조선조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락이나 부족이 형성된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삼국시대 노래인 <정음사>에 저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황성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보았을 때 삼국시대 정도면 충분히 장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문헌에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는 황성장은 177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국문헌』에 보면 1770년에 황성장(1, 6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⁵⁹⁾ 또한 이 당시 황성에는 ‘황성장’ 뿐만 아니라 ‘둔방내리장(둔내장)’도 열리고 있었다. 즉 당시 황성에서는 2개의 장이 열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황성 ‘장날’은 『동국문헌』에 정리된 1770년 당시부터 현재와 마찬가지로 ‘1일과 6일로 끝나는 날’이었지만 이는 오늘날과 다른 개념이었다. 오늘 날의 ‘1일과 6일’은 ‘양력’을 지칭하는 데 비해 그 당시는 ‘음력’ ‘1일과 6일’로 끝나는 날을 지칭했음을 1938년 <매일신보>(1월 7일)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59)황보명·김인규·김삼기, 『강원도 시장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5, 83쪽 재인용.

당군(황성) 각면 시일은 음력으로 하기와 같이 개시하였었는데 시세추이에 의하여 음력일을 양력으로 변경하여 1월 1일부터 관민합심하여 실천에 당하였다.

황성시장 매월 1일 6일
 안흥시장 매월 3일 8일
 둔내시장 매월 5일 10일
 유동시장 매월 2일 7일
 정금시장 매월 4일 9일
 동평시장 황성시일과 동일함⁶⁰⁾

따라서 1938년 이전에는 음력으로 1일과 6일로 끝나는 날이 황성장날이었다면, 1938년 이후에는 양력으로 1일과 6일로 끝나는 날이 황성장날이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조선시대 황성장 경로는 2개였다. “관동에는 2개 큰 도로가 있었는데 한성-원주-진부-강릉대로와 한성-서수라대로이다. 이들 두 주선에서 나온 춘천-양구-홍천(연봉)-인제-간성, 원주-정선-강릉의 3개 지선이 분지되어 남북으로 이어주는 역로와 교차하였다.⁶¹⁾ 이렇듯이 조선조에도 황성읍은 행정, 교통의 중심지로서 5일장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큰 도시인 강릉, 원주, 춘천이 황성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해 있는 형상이라 특히 황성장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원주와 황성은 40리 거리에 인접해 있었는데, 이러한 거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문막장에서 물건을

60)박미현, 『한말·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속의 황성』, 황성문화원, 2009, 281쪽.

61)황보명·김인규·김삼기, 앞의 책, 70쪽.

구입한 상인들이 횡성을 포함하여 평창 방면으로까지도 이동하였을 것이고, 강릉, 진부지역 등의 바닷가 지역 어산물이 원주를 거쳐 횡성장으로까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거리적 접근성으로 냉동시절이 전혀 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염장을 한 생선이나마 횡성장에서는 구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온 산물이 객주나 여객을 통해 횡성 방면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들 산물을 구입한 상인들은 또한 횡성장과 방내리장을 이용하여 상권을 형성하였을 것이다.⁶²⁾ 이렇듯이 횡성은 바닷가 지역과 수도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교통적 요새에 위치해 있었기에 “동대문 밖 제일 큰 횡성장”이라는 명성을 얻었을 것이다.

1770년대와 1830년대에 편찬된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현재의 횡성군 지역에는 개시일의 변화나 새로운 장의 출현이 없다. 1913에 둔방내리장이 잠시 소멸하고 안흥장이라는 새로운 장이 등장할 뿐 횡성장의 입지는 이전 그대로였다고 한다. 이러한 횡성장은 일본 강점기에도 특별한 변화없이 지속되었던 듯싶다.

2) 일본 강점기

일본 강점기의 횡성읍에서는 여전히 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더욱이 조선조까지의 협소한 교통도로는 1920년대에 들어와 신작도로로 대체되었기에 수로가 용이해져서 더욱 활성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5일장 외에도 횡성읍에는 시장체계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특히 현대적 의미의 조합이 등장하는 등 어느 면

62)황보명·김인규·김삼기, 위의 책, 77쪽.

으로는 시장이 체계적이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상인조직이 체계적으로 결성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강점기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결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28년 <중외일보> 12월 5일자 기사내용에는 “민간 단체 중에 황성상업조합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⁶³⁾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성상업조합은 10년 전에 황성상업 송제씨의 발기로 조직된 것인데 해당조합에서는 외부침입 방지와 상업 기간 저자 율통과 친선을 도모한다는 3대강령에서만 활약을 하는 바 현재에 조합 기본금은 3,000, 4,000원에 달하여 상당한 상업단체로 있다

기사내용을 보아 황성시장의 공적인 조합 단체는 1917년 정도에 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외부침입 방지’라는 항목이다. 이때부터 황성시장에는 타지역 상인이 거의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다. 1917년경에 조합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외부침입’은 특히 ‘일본’을 의식하고 결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외부침입’이라는 말에는 ‘민족단결’이라는 의미가 행간에서 추출되기 때문이다. “일본 상인들이 시장을 점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본상인들은 발도 붙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당시에 이처럼 조합이 결성되었기에 보다 수월하게 단결할 수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그 외에 신문 기사를 참조해 보면 상인 전체가 형성되어 있는 조합 외에도 한 가지 ‘상품’에 대해

63) 박미현, 앞의 책, 11쪽.

서도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횡성주류 조합” 같은 것이 그것이다.

또한 ‘대마공판’, ‘면화공판’ 처럼 1940년대에는 공판이 형성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신보>(1942. 10. 11)에 보면 ‘축우품평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이전부터 횡성을 포함해서 강원도에서는 좋은 소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에서는 축우개량 000의 00을 00하고자 도내를 2구로 나누어 제 3회 강원도 축우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 1구는 춘천, 양구, 회양, 평창, 원주, 횡성, 김화, 철원, 이천, 평강 11개군으로 하고 제2구는 인제,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정선, 영월, 화천 10개군으로 하여 이를 다시 4조로 나누어 좌기 일정에 의해서 품평하기로 되어 있는데….⁶⁴⁾

축우개량을 하기 위해 축우 품평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강원도 전체를 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각 둘로 나누어서 품평회를 개최한다는 품평회 방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품평회가 3회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만약 매회 실시되었다고 본다면 1회 품평회는 1939년 정도에 열린 것이 아닌가한다. 아무튼 1930년 말경부터 횡성을 비롯한 강원도는 축산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소’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횡성장이 “동대문 밖 제일 큰 시장”이라는 명성은 “우시장 때문”⁶⁵⁾이라는 제보도 있듯이, 횡성의 축우는 강원도에서도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횡성은 ‘축우’가 가장 발달

64)박미현, 위의 책, 419쪽.

65)장태중, 남, 횡성시장상인회 전조합장, 2011년 1월 17일 채록.

한 지역 중 하나이며, ‘축우’ 를 이용하여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선조들의 노력과 전통이 뒷받침된 것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 외에도 <매일신문> 1942년 10월 14일자 신문을 보면 “거세우 경이회”라는 대회도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축우’에 대한 이런 저런 방식을 택하여 각별한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일제강점기의 황성읍은 시장 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발했다. 『조선의 시장』⁶⁶⁾에 정리한 1938년 장 거래액을 보면 황성장(3,153,200圓)-둔내장(565,967원)-안흥장(279,760원)-정금리장(200,350원)-동평장(78,200원)-유동장(60,000원)-창춘장(1,785원)이었고, 1910년대부터 1938년대에 이르기까지 황성군에 있어서의 정기시장은 크게 황성읍장-안흥장-둔내장을 중심으로 주위의 장들과 상권을 형성하면서 상업활동이 이루어졌다. 30년대 말의 이러한 증가는 일제에 의한 인위적인 시장정책과 함께 급격히 늘기 시작한 인구 증가에 크게 기인하였던 것이다.⁶⁷⁾

3) 광복이후

광복이 되면서 황성장이 어떠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제보자들의 기억 속에서는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광주리에 물품을 이거나 지게나 리어카아를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주류였던 듯 싶다. 그러나 장은 여전히 열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6. 25전쟁으로 인해 상업활동은 거의 마비상태가 되고 말았다.

66)문정창, 『조선의 시장』, 일본평론사, 1941, 307-8쪽.

67)황보명·김인규·김삼기, 앞의 책, 79쪽.

그후로 전쟁이 끝난 뒤 조금씩 안정되면서 다시 장이 서게 되었는데, 제보자들에 의하면 이때의 횡성은 이전과는 다른 특수한 장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횡성장인 5일장 외에 아침마다 장이 섰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일명 ‘번개시장’, ‘새벽시장’ 개념의 ‘저자’와, 특별 종류를 다루고 있는 새벽장 개념의 ‘화목장’이 그것이다. 이 두 종류의 장은 1950년대 후반, 주로 1960년대에 성행했던 장이었는데, ‘화목장’은 연탄이 등장하고 정부에 의해 녹화조림사업이 개시되면서 사라졌고, ‘저자’는 1980년대까지도 아주 성행하다가 최근에는 형태를 달리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장 형태이다.

‘저자’는 전쟁이 끝난 후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 농산물을 조금씩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⁶⁸⁾ 이는 횡성읍 근교에 사는 아낙네들이 집에서 키우는 푸성귀나 들이나 산에서 나는 나물, 집에서 키우는 과일,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두부 등을 아침 일찍(통금 사이렌이 불 4시 즈음) 가져와서 팔다가 아침 9시 전후로 끝나는 아침 새벽시장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저자는 “물건을 판매하는 부녀자(상인)”를 지칭하거나, “파는 행위(저자본다)”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이러한 저자는 횡성읍에만 있었다. 이는 둔내, 안흥 등 다른 곳은 자신들이 키운 농산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자가 형성될 필요가 없었지만, 횡성읍의 경우는 횡성 시가지 주변의 입석, 청룡·가담 그리고 소초면의 의관대리 등에서 생산되는, 참외, 복숭아, 양파, 마늘, 수박, 토마토, 시금치, 콩, 두부 등을 농사를 짓지 않는 횡성

68) 청룡리에 거주하는 고영자(여, 81), 정태화(여, 75세), 김영애(여, 70세), 고주식(여, 79), 이순옥(여, 79), 이연옥(여, 75) 등 제보자들은 모두 저자를 직접 했던 분들이다. 이들의 제보 및 장태종, 전상국, 조정택 등의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 내용을 구성하였다.

읍 시가지에 와서 공급했기에 ‘저자’가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횡성읍은 ‘저자’가 형성될 필요충분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횡성읍 인근 사람들이 채소, 과일, 두부 등을 횡성읍 시장 안 가게 앞에 놓고 팔자 주부들이 아침거리를 사러오면서 저자가 형성되고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저자를 보던 사람도 사던 사람도 모두 ‘부녀자’들로만 형성된다는 특수형태를 띤다. 남자들은 함께 온다고 해도 단지 짐을 부려주기 위함이지 저자활동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청룡리 사람 안 오면 저자가 안 된다!”⁶⁹⁾는 말이 있듯이 청룡리에서 저자를 많이 했다고 한다. 청룡리에서는 새벽마다 저자에 가기 위해 마을 아낙들은 앞내다리 앞에서 기다리다가 4시 통금해제가 울리면 다리를 건너 횡성시장으로 향했다. 저자물건은 발호박, 울타리호박, 참외, 배추, 시금치, 토마토, 참외, 수박 등을 가져가서 팔고 온다. 봄에는 봄나물(밭미나리, 냉이, 솔고지), 봄동, 발작물, 김장배추 등으로 이어진다. 이때 저자는 농협 보건약국 앞에 섰다. 저자가 성행하자 인근 원주에서 상인이 와서 물건을 사갔는데 이를 ‘되넘기’ 또는 ‘되멕이’⁷⁰⁾라고 한다. 장세는 보통 이전에는 10원, 그 다음 100원, 1,000 등으로 화폐가 바뀌거나 물가가 오르면서 함께 올랐다. 그러나 자릿세는 유동적이며 일률적이지 않다. 때와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 자릿세를 받으러 12시에 왔다. 저자는 3월 11월에는 성행하고 겨울에는 시장 안에만 섰다. 그러나 남산리는 콩이 많이 나서 두부를 주로 했기에 사철 저자를 할 수 있었다. 특히 김장철에 붐볐다. 저자가 많이 설

69) 고영자(여, 81세)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에서 횡성 청룡리 164번지로 18세 시집왔다.

70) 보통 ‘되멕이’라고 발음한다. 되멕이는 물건을 사서 조금 더 붙여서 다시 파는 행위를 말한다.

때는 한 100명 정도(200명이상이라는 분들도 있음)되었다고 한다. 되넘기를 하지 않고 스스로 팔면 이문이 조금 더 남지만 하루 종일 있어야 해서 되넘기장사꾼에게 넘긴다. 대략 1970년대에 저자가 제일 성했다. 시장 안에서 조그맣게 저자를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밖으로까지 나오게 되었다.

저자하는 분들은 “마수걸이 물건을 뒤적이다가 홀랑 뒤집어 놓고 가면 하루 종일 재수없다.”, “수더분한 사람이 재수있는 사람이다.” “깁깁한 사람은 재수없다.”, “일찍 여자가 물어보면 재수없다.”, “남자는 다 좋아한다.”, “개시가 좋아야 하루 종일 좋다.” 등의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청룡리 부녀자들



정태화(74)

청룡리 노인회 여성회장 정태화(75)씨는 20세에 결혼 했는데, 23세부터 토마토, 참외, 수박 등을 가지고 저자를 다녔다고 한다. 아이들이 앞고개까지 밀어다 주고 아이들은 다시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가고 두 내외가 저자에 갔다.



김영애(70)



고영자(81), 이순옥(79)

저자에 갈 때는 새벽 3시쯤 아이들까지 밀면서 리어카 끌고 간다. 아이들은 집에 와서 해놓은 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 청룡리에서는 앞내다리에 모두 모여 4시 해제 사이렌이 불면 횡성읍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팔 것을 이고 가다가 후에 리아카아→경운기로 바뀌었다. 경운기를 잃어버린 적도 있다. 청룡리에서 제일 먼저 경운기를 끌고 다녔다. 물건을 넘기고 다 팔고 나서 돈을 걷어서 왔다. 50세까지 저자에 갔다. 저자에 다니면서 재미보았다. 저자로 인해 살았다. 한 30년간 했다. 장날에도 저자에 간다. 5일장에 상관없이 저자는 아침에 늘 간다. 저자 가다가 이제는 장 날 다닌다. 저자 다니면서 엄청 도움이 되었다...되멕이도 하고 팔기도 한다.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일찍 가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잡는다. 어디에 뭉이 좋다는 것을 알고 서로 일찍와서 자리 잡는다. 일찍 가는 사람이 제자리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간다. 집에 오면 9시쯤 된다. 그 때 집에 와서 아침밥 먹는다. 아침밥은 밤에 해놓는다. 참외나 토마토를 할 때는 낮에 농사를 짓고 아침에 가져갈 참외나 토마토를 따면 밤 10시쯤 집에 온다. 장날에는 되멕이도 하고 다 팔고 온다. 참외가 가장 쏠쏠했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가서 파는 것을 저자라고 한다. ‘사러 가는 사람은 저자가 아니다’, ‘저자간다’는 것은 물건 팔러가는 것이다. 오일장은 ‘장보러 간다’고 한다. 시장은 ‘시장간다’고 한다.

나중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고추를 해서 세원(서원)으로 1시간 30정도 경운기로 싣고 가면 서워서 오는 차가 가지고 간다. 지금은 고추와 파프리카를 하는데 전화 주문을 받는다. 고추는 말려서 판다. 고모가 서원 살았기에 차대기로 하게 되었다. 저자 때 보다 지금이 더 좋다. 편하니까. 수익도 괜찮다. 고추만 조금 남는다.

여자들이 저자를 하는 반면 남자들은 나무를 해서 팔았다. 청룡리에서는 ‘화목장’에서 나무를 판 것이 아니라, 덕고산에서 해서 남자가 지고 가서 황성읍의 주문한 집에 가서 주고 온다. 즉, 나무해 달라는 사람이 “몇 짐 해달라고” 미리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받아서 나무를 해다 주었다. 저자를 하던 여자들이 겨울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대신 겨울철에 남자는 나무를 해서 판다. “입석리 사람이 오면 산을 막고 못 들어오게 했다. 이곳사람이 연료를 마련해야 했기에, 석유풀로와 연탄이 나오면서 나무 때는 것이 없어졌다. 연료가 바뀌면서 없어졌던 것이다.”⁷¹⁾

이렇듯이 저자는 처음에는 집에서 먹고 나머지를 파는 수준이었지만 ‘장사’가 잘되면서부터는 우선 ‘저자’를 하기 위해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성읍 ‘저자’는 전쟁 직후부터 황성읍에서 새벽마다 열렸던, “생산자가 직접 물건을 가져다가 즉시즉시 그날 직접 판매하는(판매자-부녀자, 소비자-부녀자) 직거래 형태”를 취하는 특수장이었던 셈이다.

71)김영애, 여·70세, 청룡리.

(저자가, 뭘 보고 저자라 그러니까?)

저자야 아침에 시골에서 나오는 곡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오일장이 아닌 매일 아침에 나와서 파는 것, 그런 걸 갖다가 저자 본다 그러죠. 아침에. 그리고 사계절에 나오는, 시골에서 나오는 뭐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아침 일찍, 아침 전이죠, 새벽에. (저녁에는 안 합니까?) 저녁에는 안 해요. (그럼 이거는 시장 하고는 달리.) 그렇죠. 시장에서 문 열기 전에 이때 보는 거죠. 새벽에. 그 때 여는 것을 저자 시장이라고 봐야죠. (본 시장이 열기 전에) 예. (그럼 오일장하고도 달리 보는 거죠?) 그렇죠. 오일장은 오일에 한번 서지만 저자는 매일 서죠. 일년 삼백육십오일 아침에, 새벽에 시장을...

(‘황성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황성장’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이야기 합니까?) 황성장은 5일에 한 번 서는 장. 이거를 갖다가 황성장이라 그러죠. 황성장에도 안흥장도 있고, 둔내장도 있고, 면 단위에 뭐 이렇게 해서 세 네 군데 정도 서는 걸로 알고 왔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장이 번성하지 않고 그런 실정이죠. (그럼 사람들이 황성장 간다 그러면 오일장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상설시장이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러니까?) 그건 현재 시장 안의 재래시장은 상설 시장이고. (그럼 거기 갈 때는 뭐라...) 뭐 오일장 보러 간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황성읍에 나올 때는 장 보러 간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장보러 간다 그래요, 평일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장날을 기점으로 해서 장날은 시골에서, 각 읍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장을 많이 보죠. 그 때 이제 물건들이, 장이 많이 서니까. (저자 보러 간다는 것은...) 그렇죠. 틀리죠. 아침에, 새벽에 서는 장이니까. 그 때 저자 보러 간다 그러고... 특히 여자, 대개 저자는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남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저자거리에는 거의 다 여자들이, 할머니들, 아낙네들이 거의 이렇게 하죠. 그 전에는 남자는 이제 뭐 나무 시장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모였겠지...(다 못 팔면 팔릴 때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냉기고 가지. 시장에 상주하는 상인들이 있잖아. 채

소가계라든지 이런데다가 넘기고 가지, 그거를. (급하면 에이, 이거 얼마에 사쇼, 하고 그냥…) 그렇지, 넘기고 가고, 그렇지 않으 면은 인제 가지고 들어갔다가 내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해뜨면은 장이 없어지지.⁷²⁾

(그러면 저자와 오일장은 개념이 다른 겁니까?) 다르죠. 저자는 매일 나와서 파는 거고 저자는 화목이나 이런 걸 매일 나와서 파는 거고 오일장은 정해놓은 날짜에 나와서 파는 거고. (위치는?) 위치는 시장 안에 점포가 이렇게 쪽~ 있어요. 이렇게 쪽 있으면 이 자리가 다 저자자리예요. 시장 안에. 이걸 아이러니하게 시장 상인만의 저건데, 서로 자기 앞에 끌을라고, 자기네 앞에 앉혀 놓을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손님들이 저자 물건 사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자기 가게 저자꾼들은 많이 유치를 하는 게 유리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저자가 아침 일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이 네 시에 나와서 문을 연다는 개념이 뭐겠어요? 손님들이 저자에 와서 물건을 사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물건을 팔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집에 가기 전에 생필품을 사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손님을 받기 위해서 네 시에 문을 여는 거죠.⁷³⁾

횡성군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횡성시장은 1953년도에 목조건물을 지으면서 형성되었다. 그 전까지는 좌판식으로 존재했다. 이 당시는 목조건물로 하코방이라 비가 오면 뚜껑 여는 시멘트 하수도가 있어서 빗물이 그냥 똑똑 떨어졌었다고 한다. 더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2차례 대화재로 시장을 2차에 걸쳐 일부 복구하였으나 목조건물로 초라하던 것을 1981년에 신축했다. 신축할 때는 점포가 57밖에 되지 않아서 제비뽑기를 했다. 1981년 신축시 시장은 개인 사유지로 시장 법인체로 만들어졌다. 그

72) 홍성진, 남, 횡성문화원 사무국장, 2011년 1월 26일 채록.

73) 장태중, 남, 횡성시장상인회 전조합장, 2011년 1월 17일 채록.

래서 상인 등록 시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다.

신축 당시 기존 목조건물 155개 점포를 완전철거하고 최신 콘크리트 2-3층 건물로 신축하였다. 신축공사비는 총 3억 4천만 원으로 1980년에 이미 완공한 6동 27개 점포와 이해에 신축한 21동 155개 점포 등 27개동에 182개 점포로 1981년 말에 완공되었다. 한편 비용은 출자금과 융자금 등 민간자본으로 건립하였으며 횡성군은 1,700만원을 지원하여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였다. 1982년 이후에도 하수도 정비, 인도블럭 설치, 소방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현대식 상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현대화하였다. 이로써 횡성장이 개장하였던 공설시장에서 횡성시장조합이 개장하는 군내 첫 상설시장으로 바뀌게 되었다.⁷⁴⁾

횡성읍 상설시장이 6. 25전쟁 후에 형성된 것에 비해, 횡성읍 5일장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어 140여 년 전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횡성 5일장은 과거 동대문 밖 제일가는 장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민속장이면서도 1919년 음력 3월 1일 횡성장날을 기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3.1만세운동을 벌였으며, 일제 침략 시기에는 일본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으나 횡성 상인들과 주민들이 단합, 불매 운동을 벌여 일본 상인들을 몰아내어 말 그대로 ‘민속’ 장터임을 입증했던 역사도 지닌다. 그러나 장꾼들이 무조건 많이 온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고 상인수를 적정하게 기술적으로 조정해서 200~300명 사이가 될 때 가장 장사가 잘된다고 한다.

(고향이 여기십니까?) 네 여기예요. (횡성 여기십니까?) 네. 횡성. 초중고까지 여기서 다 나오구요. 저는 지금 원일곱이구요. 시장에서 부모님 사업을 승계

74) 『횡성군지』, 횡성군청, 2001, 436쪽. 안준하, 전상국 등 인터뷰 참조.

받아서 정확하게 77년 5월 5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도양회...) 네. (2대째)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은 만복상회라는 것을 1953년 3월 15일날 개업을 했어요. 부모님이 차렸던 낱짜를 서까래가, 거기에 써 놓으셨더라구요. (기록이 있나요? 사진이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개업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정식 개업이 그렇지 그 전에 사업하신 건 그 전이었었고 점포라고 생긴 것은 53년도에 목조건물로 시작이 되면서 시장이랑게 생겼죠. 그 전에는 좌판 같은 식으로 있었었죠. (53년 아버님께서 시작하실 때 이 자리가 그 기존의 황성 시장의 터였습니까?) 그럼요. 그 자리죠. (육이오 이전에도요?) 네. 아, 육이오 전까지는 내가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개업할 때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다 목조건물로 하꼬방처럼 있었었고. 그 때 인제 당시에 부모님이 점포를 개설을 하고 만들 때는 하꼬방에서 현대식으로 진다고 진게 그렇게 됐었겠죠. 슬레이트에다가 목조건물 이렇게 해서. 비가 오면 가운데로 철철 흘러내려 가운데 하수도, 뚜껑 여는 시멘트 하수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떨어지게 그렇게, 재래식이었죠. 옛날에. 그런게 82년돈가 시장을 새로 지었죠. 목조건물을 뜯어다가 황성 한의원 자리 있죠? 거기 뒤에 큰 공간이 있어요. 거기쯤 타이어 가게 생겼던가? 황성 한의원은 아시잖아요. 심명규 의원은 아세요? 둥근 타원형 그 뒤에 공터가 있었었는데 임시로 일년동안 시장을 새로 지을 때, 목조 건물을 뜯어서 며칠 만에 거기 가서 가시장을 새운 거지. 지금처럼 시장을 현대식으로 짓기 위해서 그 때 목조 건물을 떼어서 임시 이동을 했었죠. 거의 일 년 동안. 11개월... 거의 일 년이라고 봐야겠죠. 일 년 만에 여기 들어온 거죠. 현재 모습으로. 82년도에. 81년도네.⁷⁵⁾

화목장은 로터리 부근에서 열렸다고 한다. 화목장, 즉 나무시장은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성행했으며, 70년 초에도 삼일관광호

75) 장태종, 남, 황성시장상인회 전조합장, 2011년 1월 17일 채록.

텔 앞 로터리 부근에서 새벽 4시쯤부터 그 앞이 꽉 차도록 나무시장이 열렸다. 주로 리어카로 나무를 가져왔으며 지게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다. 새벽 3시 30분쯤 통금시간 해제되기 전에 준비했다가 서원면 쪽에서 유현리, 공근면 초원리, 학곡 2리 큰골 부근 그리고 입벌 등 황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나무를 해 왔다. 나무를 하는 이유는 용돈과 생필품, 아이들의 학용품값을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화전민들이 주로 나무장사를 했다. 여름 내 준비했다가 주로 가을부터 겨울까지 팔았다. ‘화목장’은 보통 ‘나무장’이라고 불렸다. 매일 열렸고 주로 30~40명쯤 모였다. 소비자는 주로 황성읍의 공무원이나 시장상인들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해서 땀다. 나무장에는 주로 싸리나무가 많이 나왔으며, 싸리나무 덩불 밑에는 장작을 숨겨 놓고 팔았다. 장작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처벌대상이 되었기에 내놓고는 팔지 못했다. 그 당시는 산림법이 엄했다. 젊어서 경찰에 종사했던 전상국씨와 직접 나무장사를 했던 읍상1리 이장 조경택(72)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70년 초에도 로터리시장 삼일관광호텔 그 앞에 새벽 3, 4시간 전에 꽉 찼으니까. 나무장사 리어카로 꽉 찼지요. 리어카가 많았고 지게 가져오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요. 3시 30분쯤 통금시간 해제되기 전에 준비했다가 공근면 쪽에서 초원리, 유현, 공근면 초원리, 학곡2리 큰골 부근 뭐, 입벌 이런 데서부터 나무를 해왔지요. 서원, 유원, 석산, 학곡리, 밤골 등에서 나무 엄청 해 와서 팔았어요.

공근 학곡 2리 사람들, 쇠판이, 그 위에 석산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주로 나무 많이 해와서와 심는데, 주로 싸리나무 많이 나왔어요. 보통 한 길씩, 2미터 되는 싸리나무를 해 와서 여기 와서 팔았지요.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내려와요.

어떤 사람들은 리어카에는 속에는 장작이고, 위에는 솔가지나 싸리나무를 덮어서 오지요. 그 당시 장작은 불법이고, 장작은 산림단속 경찰관이나 산림 관계 공무원한테 걸리면 끌려가고 뭐 단속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속에 장작을 숨기고 해서 들어오지요. 그런 거 뭐 종종 많이 보았으니까. 64, 65~67, 68까지 다 그랬지요. 연탄으로 바뀌지면서 없어졌지요. 시장사람들은 모두 밥을 해 먹거나 추울 때 사용하는 등으로 해왔지요. (그럼 회장님 그 장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그냥 나무장, 나무시장이라고 불렀죠. (어떤 산이 제일 큼니까?) 명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초원 있는데. 성지봉이 커요. 학곡리도 산이 크지요. 입벌도 그 안에 골이 깊어요. 거기서 뭐 해 가지고 뭐 그저 그 사람들은 가을서부터 준비한다고요. 겨울에 나무팔라고... 비참한 사람들이죠. 비참했지요 뭐. 그런 분들이 70년대 연탄 바뀌면서 일이 떨어졌잖아요? 못하잖아요.⁷⁶⁾

(화목장은 언제까지...) 그건 얼마 안 가다 망가졌어요. 연탄 나오고 부터는 없어졌어요. 그거는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초창기에 좀 있고. 나무를 많이 해 댔 때. 살림 가꾸기 대회 십 주년 기념. 김종필 총리가 살림 가꾸기 십 주년 계획인가 세우고 할 때 그 때부터는 못 가는 거지. 나무를 못 자르니까. 그래서 없어진 거지. (6.25 때는 나무가 거의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지역에는 다 있었어요. 나무 다 해 뺐어요. 나무 해 때고 젊은 사람들은 나무 하는데 가서 리어카를 가지고 가서 사서 때기도 하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몇 십리 가사 싣고 오고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거야 리어카 끌고 가서... (어디까지?)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서원면 유현린데, 유현 1리쯤 되는데 거기서 그 때 나무를, 싸리나무를 해서 팔기도 했어요. 현장에서 팔고 가지고 들어와서도 팔았는데, 현장 가서 사면 싸니까 가서 사가지고 싣고 오고 그랬죠. (리어카 가지고 가세요?) 그럼요. (유현리가 꽤 멀던데.) 한 삼십 리길 돼

76)전상국, 남, 대한노인회 황성군지회장, 2011년 1월 18일 채록.

요. 하루 종일 걸리죠. 갔다 오면. (그 때 국도 따라...) 그렇죠. 포장 안 났을 때, 자갈 길. (그 때 몇 살 때였습니까?) 한 이십대였었죠. 저기 갔다 와서 살 때니까... 스물 한 다섯 여섯 일곱 때 그렇게 했죠. 그 때 다들 고생했지. 그래서 나무 시장 선 걸 알죠. 나무 장사들이 가서 싣고들 오고, 그 무렵에 그랬어요.⁷⁷⁾

이렇듯이 황성읍의 장 형태는 이전부터(적어도 조선조) 전해왔고 현재까지도 형성되고 있는 ① 5일장과 ② 우시장, 그리고 ③ 조선시대부터 편린적으로 존재하던 1981년에 개축된 정기시장, ④ 6. 25전쟁 후(어떤 분은 5일장보다 앞서 생겼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적 정의인 ‘저자’를 의미하는 듯하다)부터 아침 일찍(4시~9시 정도) 형성되던 ‘저자’(70~80년대에 성행했으며, 2000년 초에도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없어졌고 대신 5일장이 신토불이장으로 대체)와 ⑤ ‘화목장’(일제 강점기부터 있다가 연탄이 나오던 1970년대 초반까지 열렸던) 등의 장이 있었다. 이중 완전히 없어진 것은 ⑤의 화목장 뿐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속되거나 약간 변이(비록 ‘저자’는 새벽에 열리는 형태는 아니지만 아직 몇 분이 하고 있거나, ‘신토불이장’으로 대체)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77)조경택, 남·72세, 황성읍 읍상1리 이장, 2011년 1월 24일 채록.

문정로 47→27(임둔규법무사사무소에서 일성당약국 방향)

배추
파,호박,고구마
과일
배추
배추
호박
조화(꽃)
잡곡
잡곡
부추(모종)
파
생선

과일, 채소
잡곡
버섯
약초
고추
잡곡
파
채소
고구마
채소
잡곡

문정로의 경우, 종합신밭에서 일성당 약국까지, 횡성농협에서 하나의원까지 그리고 읍상로는 횡성등기소에서 횡성군 농업인회관까지의 거리에 약 150~200여 명의 지역민이 쌀, 잡곡, 건고추 등 자신들의 잉여 농산물은 물론 두부, 콩나물, 엿, 채소, 냉이와 같이 직접 만든 제품 및 채취한 나물류 등을 판매한다. 특히 문정로에 많이 있는데, 이들은 (사)횡성시장조합에서 발행한 신도불이 판매증이 있다. 물건을 판매할 때는 그 판매증을 목에 걸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귀찮다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

음상서로 23→1(북천로터리~서울떡집~종합신발 방향)

계란, 잡곡
그릇
과일, 채소
책, 지팡이 등
떡볶이, 튀김 등
머리핀
모자, 스카프
보온장판
복어껍데기
약초, 생강
더덕, 마늘
건강보조식품

생선
젓갈
반찬류
인삼
속옷
과일
옷
김
어묵, 튀김
건어물
버섯
더덕
여성옷

과일

의류

이불, 베개

의류(바지)

가방

건어물

양말, 수세미

채소

채소

젓갈, 나물류

더덕

병뚜기

채소

과일

채소

채소

미역, 채소, 과일

생강, 건나물

약초

남성옷

문정로 19번길(어담산더덕영농조합법인~서울떡집~송강루~명수약국 방향)

과일
편빵,도넛
건강보조식품
옷

생선

옷
화장품
젓갈
속옷
액세서리
액세서리
젓갈
생선

양말
두부,콩나물
신발
사탕,건어물
김장비닐
철물
벨트
버섯
양말
과자
톱(수리)
젓갈
옷

생선
계란
채소
밥,대추
땅콩
건어물
김
과자
모자
된장
순대
옛기름
연교(나환자촌)
튀김류
김
야콘,건오징어

건어물
의류
비누

건어물
대추
과일
의류
건어물,젓갈
신발
신발
옷
생선



3. 횡성장터와 상인, 점포 종류

1) 장터

횡성장터는 횡성시장을 중심으로 문정로, 읍상로, 읍상서로, 문정로 19번길 등 네 곳의 도로 및 인도에서 펼쳐진다. 먼저 문정로의 경우는 임둔규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성당 약국까지 장이 서는데, 이곳에서는 인도에서만 영업을 한다. 그러나 읍상로, 읍상서로, 문정로 19번길은 차도와 인도 모두가 장터이다. 따라서 장날에는 읍상로, 읍상서로, 문정로 19번길 등 세 곳의 장터로는 차량 통행을 금하고 있다.



예전부터 횡성장터가 지금처럼 확보된 것은 아니다. 원래는 횡성시장을 가운데 두고 삼일로 읍하우체국에서 일성당 약국 방향, 북천 로터리에서 보건 약국 방향 등에서만 장이 섰으나, 도로 및 인도에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혼잡하므로 그곳을 폐쇄하고 문정로와 읍상로 그리고 문정로 19번길을 장터로 이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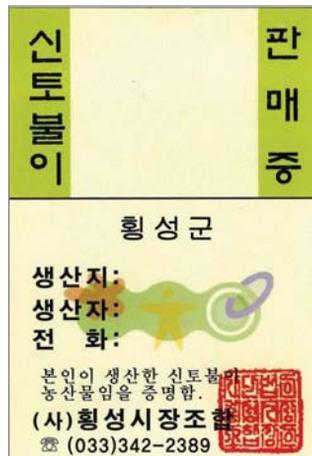
1963년부터 횡성장에서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최순철에 의하면, 1960년대 횡성장의 규모를 비교할 때 지금의 장은 당시보다 10배 이상 더 커졌다고 한다. 이렇듯 횡성장이 커진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먼저 개인 소유의 차량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즉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장꾼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장을 순회하였으나, 요즘은 대부분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충주, 서울, 성남 등 예전에는 생각도 못할 지역에서도 상인들이 오고 있다.

다음으로는 개인 소유 차량의 증가에 따른 판매 품목의 다양성과 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도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그 양이 몇 배로 늘어난다. 아울러 도로사정이 좋아지

고 나아가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까닭에 시간이 단축되므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활어를 횡성장터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의 불편함을 단적으로 이르던 말 중에 “횡성가면 썩은 고등어 먹는다.”고 한 강릉 사람들의 말은 이젠 옛 얘기가 되어버렸다.⁷⁸⁾

2) 상인

횡성장을 찾는 상인들은 많으나, 이들은 잉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민들과 전문 상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잉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민들을 소개하면, 이들은 시장조합에서 발행한 ‘신토불이 판매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장날이면 문정로 종합신발에서 일성당 약국까지, 횡성농협에서 하나의원까지 그리고 읍상으로 횡성등기소에서 횡성군 농업인회관까지의 거리에 약 150~200여 명이 있다.



78) 심진황, 남·80세,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전횡성문화원장, 2011년 1월 14일 채록.

이들이 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쌀, 찹쌀, 잡곡, 호박, 호박고지, 계란, 은행, 버섯, 마늘, 건고추 등 농산물을 비롯하여 두부, 콩나물, 엿, 채소, 냉이와 같이 직접 재배하거나 만든 제품 및 채취한 나물류 등을 판매한다. 판매인 대부분은 여성으로 아침 일찍 집에서 걸어오거나 버스를 타고 나온다. 그리고 가져온 물건은 점심 전에 판매한 후 다른 일을 보는 게 일반적인데, 다 팔지 못하더라도 보통은 점심 전에 자리를 정리한다.



다른 한 그룹은 전문 상인이다. 이들은 다시 고정상인과 이동상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정상인은 시장 및 상가 건물에 자기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자신의 점포에서만 장사를 하다가 장날에는 점포 앞 장터에 물건을 더 진열하여 판매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시장 및 장터 근처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점포가 장터와 접해 있지 않으면 고정상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고정상인은 읍상서로 장터, 문정로 19번길 장터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데, 읍상로 및 문정로 장터의 경우는 고정상인이 한두 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다른 장터에 비해 읍상로와 문정로에 고정상인이 많지 않은 까닭은, 첫째로 읍상로 장터에는 가정집, 농업인회관, 농협, 등기소 등 장사와는 관

계가 없는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고 일반 점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둘째로 문정로의 경우는 가게가 있어도 자전거, 가전 제품, 교복, 세탁소, 약국 등과 같이 장날에 판매할 물품으로는 적합지 않은 점포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곳에는 고정상인과 마찰의 소지가 없는 잉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민이 자리하고 있다.



이동상인은 횡성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까운 원주를 비롯하여 제천, 충주, 성남, 서울 등 각처에서 온다.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한 까닭에 이동상인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이 위치한 장을 장날에 맞춰 순회하지만, 요즘은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횡성장에 오는 이동상인의 경우 계절에 따라 그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0~250명이 된다. 이들은 대부분 자기 고정자리가 있는 까닭에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싣고 와서 아침 일찍 진열을 하고 판매하지만, 자리가 없는 분들은 차량으로 장터 주위를 돌면서 팔기도 한다. 그리고 차량이 없거나 한두 군데 장을 다니는 분들은 장터 근처에 창고를 빌려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장날마다 필요한 물건만 보충하여 판매하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차를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아울러 이동상인 중에 고정 자리가 없는 경우 ‘땀빵’이라고 하여 빈자리에서 임시로 장사하는 분들도 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장날이면 생산한 농산물들을 직접 가지고 나와 파는 분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버스를 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되넘기 장사꾼이⁷⁹⁾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낚아채듯 가지고 가서 흥정을 한다. 값이 안 맞으면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일성당 약국 앞에서 개인적으로 팔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가게에 도매 값으로 넘기기도 한다. 이들의 판매 품목은 계절에 따라 다른데, 봄·여름에는 나물류가 주종을 이루며, 가을·겨울에는 잡곡, 콩, 마늘, 건고추, 생률 등이다. 이렇게 되넘기 장사꾼이 거두어들인 물건들은 모두 원주나 서울로 실어간다. 되넘기 장사꾼은 대부분 원주에서 오는 분들로 주로 여성이다.

79) 지역민들은 흔히 ‘되매기’, ‘되멕이’라 한다.

3) 점포 종류 및 판매 상품



횡성장의 이동상인 물품 구입처는 취급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과일류와 채소류는 횡성 인근의 원주 원예공판장에서 물건을 떼어오고, 의류, 이불, 신발류, 모자, 액세서리 등은 서울에 있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등에서 구입한다. 그리고 어류는 대부분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시장, 원주 등지에서 구입해 오지만, 도치를 비롯한 일부 생선 및 활어의 경우는 주문진이나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어시장에서 구입하여 판매한다. 그리고 도라지, 더덕, 파프리카, 호박 등 농산물은 횡성에서 재배·생산한 것으로 보통은 구입하여 판매하지만,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2010년 11월 11일 조사에서는 의류·양말상인(23명), 장갑·

모자·액세서리상인(7명), 신발상인(3명), 침구류상인(1명), 채소상인(24명), 마늘·생강·고추·파 등 양념류상인(24명)⁸⁰⁾, 장아찌·두부·콩나물·젓갈 등 찬류상인(14명), 과일상인(15명), 도라지·더덕상인(9명), 어패류·생선회·어류 등 생선상인(12명), 건어물상인(11명), 잡곡상인(10명), 만두·튀김·호떡·족발·국수 등 먹을거리상인(7명), 목기제품상인(3명), 그릇상인(4명) 등을 비롯한 총 219명의 이동상인이 및 고정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⁸¹⁾

횡성장에는 네 곳의 장터가 있으며, 곳마다 상인의 수와 더불어 판매하는 품목 또한 다르다. 뿐만 아니라 장날마다 이동상인의 수가 달라지는데, 이를 장터별 및 품목별 상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²⁾ 먼저 읍상로에서는 채소상인이 10명, 과일상인이 4명, 양념류상인이 18명, 생선상인이 7명, 잡곡상인이 4명 등을 비롯한 총 77명이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문정로에서는 채소 상인이 5명, 양념류상인이 4명, 과일상인이 2명, 잡곡상인이 5명, 생선상인 1명 등 23명이 있었고, 읍상서로에는 채소상인이 7명, 의류상인이 7명, 과일상인이 4명, 인삼·더덕상인이 4명, 찬류상인이 5명, 건어물상인이 2명 등 27명이 있었으며, 문정로 19번길에서는 양말·의류상인이 13명, 액세서리상인이 5명, 화

80) 횡성장엔 채소상인과 양념류상인이 항상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상인의 수는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에 정리된 장터별 점포 조사는 11월 1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때는 김장철이기 때문에 채소·양념류상인 그리고 젓갈류상인이 많았다.

81) 219명의 숫자에는 잉여농산물을 조금씩 가져다서 판매하는 지역민은 제외하였다.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당시 횡성장엔 참여한 상인은 모두 300~350여 명이 될 것이다. 잉여농산물을 판매하시는 지역민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 팔고 가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분들이 자리를 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몇 명이나 왔다가는 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이 펼쳐진 적당한 공간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82) 여기에 정리한 상인 및 품목의 종류는 2010년 11월 11일 기준이다.

장품상인 1명, 과일상인 5명, 채소상인 2명, 찬류상인 8명, 건어물상인 7명, 생선상인 5명 등을 비롯하여 총 74명이 여러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① 청과물

횡성장에서 과일과 채소 등 청과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원주의 공판장 또는 도매상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이와 같이 과일과 채소를 가까운 원주 공판장에서 구입하는 까닭은 과일·채소 상인들이 대부분 횡성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판장이 인근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락시장 등 서울의 대형 시장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물건을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는 까닭에 원주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인이 소비자를 만나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좋은 물건을 남들보다 싸게 구입하여 파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예전에는 사과 등을 생산지에 직접 가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산지에서 청과물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남들보다 차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다.

민영진 씨는 원래 농사를 지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과물 도매상에 취업을 했다가 1992년부터 장에 다니게 되었다. 과일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산지를 다니며 물건을 구입해 팔았으나 대량으로 구입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지금은 원주 공판장에서

당일 판매할 수 있는 양만 구입한다. 장사 초기에는 황성장(1, 6일), 원주장(2, 7일), 진부장(3, 8일), 장호원장(4, 9일) 등을 다녔으나 지금은 황 성장과 진부장만 다닌다.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점점 장사가 안 되어 어떤 때는 자동차 기름 값도 안 남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에 가지 않는 날은 고향 소사리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과일은 설이 지나고 3월, 4월까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다가 토마토가 나오는 5월부터 가을까지 잘된다. 여름에는 물건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과장 때는 가져온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장사는 여름이 가장 잘 된다.⁸³⁾

그런가 하면 1980~1990년대에는 황성에도 청과물 도매상이 몇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과일을 떼어다 장에서 팔기도 했다.

〈사례〉 과일

37세부터 장에 다녔어요. 처음에는 지금의 자리 뒤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가, 지금의 자리에 있던 사과장수가 그만두자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예전 장사가 잘 될 때는 옆에 청과상회가 있었어도 한 장에 사과 20상자씩 팔았어요. (그래 물건은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물건은 지금 '해물 나라' 자리에 있던 '일성청과' 에서 떼어다 팔았어요. 지금은 아들이 아침 일찍 원주 공판장에서 떼어오지만, 당시에는 '일성청과' 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그 집 차로다가 둔내장, 안흥장까지 다 실어주고, 저녁때는 또 와서 남은 거 실어 와서 그 집 창고에다 싸냈죠. (그럼 그 차를 타고 갔다가 오고 그랬네요? 장차가 아니네요?) 맨 먼저는 장차로 했지. 여러 사람이 물건을 장차에 싣고 우리는 버스 타고 가고. (어디가 장사가 잘 되나요?) 다니는 장에서 둔내장이 장사가 잘되는데, 어떤 날에는 강림장이 둔내장이나 황성장보다 나올 때가 있어요.

83)민영진, 남·53세, 황성군 안흥면 소사리가 고향으로 현재 원주에 거주하고 있다. 2011년 2월 11일 채록.

난로 기름 값이 하루에 5천원이나 들어 집에서 가까워도 경비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어떤 분이 와서 마수를 하면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믿지는 않아요. 어떤 이는 자신이 물건을 팔기 전에 비닐봉투도 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⁸⁴⁾

예전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원주에서 떼어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더욱이 과일 여러 상자를 짐차에 싣고 본인은 버스를 이용하여 목적지 장까지 가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이에 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의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집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일이 편한 만큼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했으니, “그전에 일성청과는 원주보다 엄청 비싸게 받았어요. 그래 팔기는 많이 팔았는데, 저녁에 계산하면 전부 일성청과로 가는 거야. 그러니 그 집만 좋은 일 시켰지.” 그 물건을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비싸게 구입한 까닭에 이문이 많이 남지 않았던 것이다.

② 식품류

식품류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계절에 따라 그 품목을 조정하는



84)이선녀, 여·71세, 황성군 황성읍 청룡리, 2011년 2월 16일 채록.

데, 특히 여름에 쉽게 상하는 찬류는 관리가 어려운 까닭에 일부 품목은 제외하기도 한다. 횡성장에 나오는 식품류는 김치, 계장, 장아찌, 젓갈, 어묵, 즉석 김구이, 두부, 콩나물, 나물 등 다양한 품목이 있으나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두부이다. 특히 남산리 주민이 직접 만든 두부를 높게 치는데, 이는 오래 전부터 남산리 두부가 횡성읍 아침 저차에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장날이면 지역민이 남산리 두부를 한두 모씩 사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사례〉 반찬

장에 다닌 지는 8년 되었다. 장은 세 곳만 다니는데, 횡성장(1, 6일)과 원주장(2, 7일) 그리고 여주장(5, 10일)을 다닌다. 장에 나가지 않는 이틀 동안은 집에서 반찬을 만든다. 젓갈류는 제천 도매상에게 주로 구입하는데, 그 사람은 젓갈 종류에 따라 여러 곳에서 납품을 받는다. 겨울철에는 김치, 창란젓, 명란젓, 꿀뚜기젓, 오징어젓, 깻잎, 장아찌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주로 젓갈류가 중심을 이룬다. 다니는 장에서는 주로 오징어젓갈이 많이 팔리며, 봄에는 김치가 많이 팔린다. 물김치는 잘 팔리지 않는다.⁸⁵⁾

횡성장에서 찬류를 판매하는 상인은 여러 분인데, 대부분은 한두 가지 반찬만을 취급한다. 횡성장에서 신기선 씨처럼 여러 찬류를 판매하는 상인은 두 명뿐이다. 이렇듯 찬류를 판매하는 분들이 여러 반찬을 함께 취급하지 못하는 까닭은 반찬이 쉽게 상하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여름에는 파는 물건보다 상해서 버리는 물건이 더 많을 때도 있다. 그래서 소비

85)신기선, 남·57세, 원주 거주, 2011년 3월 16일 채록.

자들이 선호하는 반찬을 주로 준비하고, 쉽게 상하지 않는 젓갈류를 많이 취급하게 된다.



③ 공산품류

공산품은 대부분 서울에서 구입해 오는데, 품목에 따라 구입처가 조금씩 다르다. 의류는 주로 동대문 시장이나 평화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모자를 포함한 잡화류도 평화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신발 또한 서울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는데, 밥상, 목기의 경우는 남원에서 가져온다. 남원에 직접 못가면 전화로 주문하고 택배로 부쳐온다. 공구류 또한 서울에서 가져오는데, 어떤 때는 한두 개의 물건을 구입하러 서울에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사례〉 신발

1960년대 초부터 신발장사를 했다. 처음에는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횡성, 문막, 신림, 황둔 등을 다녔다. 장차는 규모가 큰 장을 중심으로 다니지만, 마이크로버스는 규모 작은 곳만 다녔다. 초기에는 다이아프 검정고무신과 장화를 취급했는데, 생산하는 공장을 아는 게 관건이다. 쉬는 날은 보통 공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 후 화물로 부친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등에도 갔다. 1967년부터 횡성장(1, 6일), 진부장(3, 8일), 대화장(4, 9일), 평창장(5, 10일)을 다녔는데, 물건은 각 장마다 확보한 창고에다 두고 몸만 다녔다.

황성장을 마치면 다음날 서울에 가서 물건을 보고, 다음날 진부장을 보고 그날 저녁에 대화에서 잔다. 다음날 대화장을 보고 그곳에서 또 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창장을 보고 원주로 넘어간다. 평창장을 보고는 원주 집으로 와서 다음날 황성장을 본다. 평창장에서 일이 늦어 버스를 놓치면 방림 사거리 초소에 와서 경찰에게 부탁하여 화물차 도움을 받아 원주 집에 왔다. 장이 서는 곳마다 장꾼들을 위한 숙소가 있었는데, 저녁과 아침을 준다. 보통 여러 명이 함께 묵는다. 각 장마다 창고가 있었으며, 수시로 필요한 물건만 보충한다. 힘이 들어서 재작년부터 황성장과 진부장만 다닌다. 지금도 황성과 진부 두 곳에 창고가 있는 까닭에 창고비가 만만치 않다. 물건의 재고가 없어야 돈을 번다. 아이들 신발은 유행을 타기 때문에 노인들 신발이 좋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역마다 잘 팔리는 신발이 있는데, 황성은 고무신이 잘 팔렸고, 진부와 대화는 장화와 우화가 잘 팔렸다.⁸⁶⁾

최순철 씨는 현재 황성장에서 오랜 상인의 한 분이다. 장사가 잘될 때는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로 다니며 물건을 구입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무신이 중심이라 재고가 별로 없었으나, 지금은 신발이 모양 중심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아이들 신발의 경우는 변화가 심해서 유행을 타지 않는 어른들 신발만을 판매하고 있다.

〈사례〉 도서 · 잡화

1973년부터 장을 다녔는데, 그때는 안동, 의성, 예천 등 경상도 지역에서 공책을 팔았다. 황성장은 1979년부터 다녔으며, 봉평장(2, 7일), 진부장(3, 8일), 대화장(4, 9일), 평창장(5, 10일) 그리고 황성장(1, 6일)으로 넘어온다. 그때는 쉬는 날도 없이 다녔다. 물건은 옷 장사를 하는 분이 실어다 주었다. 대신 그 분

86) 최순철, 남·78세, 원주 거주, 2011년 1월 21일 채록.

이 물건을 펄 적에 거들어주었다. 물건을 그 분이 실어다주니까 아침 일찍 서울에 가서 새로운 물건을 사와서 장을 보고 그랬다. 지금도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는 경우가 많다. 잠은 봉평장에서 자고, 다음날 진부장 보고는 그날 저녁에 대화에서 묵고, 다음날 대화장 보고 그곳에서 또 잔다. 다음날 아침에 평창장을 보고 저녁에 원주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횡성장을 본다. 이때 팔던 물건은 초기에 공책이었으나, 스테인리스 칼이 나오면서부터 스텐 칼과 숯돌을 팔았다. 1985년부터 현재와 같은 잡화상이 되었는데, 1980년대에 장사가 잘 되었는데, 특히 진부장이 잘 되었다. 10년 전부터 횡성장에만 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날은 원주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 횡성에는 창고를 얻어 물건을 보관하고 장날에 필요한 물건만 가져온다.⁸⁷⁾

김광현 씨는 고향이 안동이라 초기에는 경상도 지역의 장을 다녔으나, 몇 년 후에 가족들이 이주한 원주를 중심으로 하여 평창군의 여러 장과 횡성장을 다니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공책만으로도 인기가 좋았으나, 1980년대에 다양한 공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소비자들 취향을 따라 갈 수가 없었다. 이에 스테인리스 칼을 취급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성남에 있는 공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그때는 횡성장에서 스텐 칼을 혼자만 취급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다. 이후 스텐 칼도 보편화되면서 지금처럼 책과 공구류 등 다양한 물건을 파는 잡화점이 되었다.

87) 김광현, 남·75세, 원주 거주, 2011년 1월 21일 채록.

〈사례〉 밥상

장에 다닌 지는 20년 되었다. 처음부터 상을 팔았으며, 지금은 병풍도 취급한다. 처음에는 중고차로 경기도 여주(5, 10일), 이천(2, 7일), 양평(3, 8일), 장호원(4, 9일) 장을 다니고 1일장은 쉬었다. 13년 전부터 1일은 횡성장, 2일은 원주장, 3일은 진부장을 다니며, 4일장은 영월장과 대화장을 같이 다닌다. 그레 한번은 영월장에 가고, 다른 날에는 대화장을 다닌다. 그리고 5일날에는 평창장에 다녔으나 경비가 많이 들어 둔내장으로 바꿨다. 쉬는 날은 없다. 물건은 남원에서 오는데, 갈 때도 있지만 주문하면 택배로 온다. 경기도를 다니다가 강원도만 다닌 이유는 경기도에 비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다. 이곳이 장사가 더 잘되어 가까운 곳으로 옮긴 것이다. 물건은 남원에서 가져온다. 직접 가는 경우는 드물고 주문하면 택배로 온다. 상다리도 수리하며, 요즘은 상뿐만 아니라 병풍, 제기 등도 판다. 장사는 진부장이 잘된다. 그레 경비가 많이 들어도 진부장에는 꼭 간다. 다른 품목은 모르겠으나, 5일장 경기는 IMF 직후 몇 달 동안 고전하다가 이후 2000년까지는 좋았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정말 안 좋다. 앞으로도 5일장은 좋아질 거 같지 않다.⁸⁸⁾



〈사례〉 의류

11년 전부터 장에 다니는데, 차를 가지고 횡성(1, 6일), 원주(2, 7일), 문막(3, 8), 둔내(5, 10일)를 순회한다. 초기에는 영월장(4, 9일)에도 다녔으나 수입에 비해 경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지금 안 간다. 물건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떼어온다. 남대문시장은 더러 가지만 주로 동대문시장이다. 이유는 작업복을 하기 때문

에 남대문시장에는 물건이 별로 없다. 그리고 교통이 원주권에서는 남대문시장보다 동대문시장이 더 좋다. 때에 따라서는 전화를 걸어 택배로도 오지만 주로 물건을 직접 보고 떼어온다. 작업복은 유행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별로 없다. 다니는 곳 중에서 장사는 그래도 원주가 제일 낫고, 문막은 못하다. 문막이 잘 안 되는 까닭은 장날이 원주장 바로 다음날이고, 시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⁸⁹⁾

④ 생선 · 건어물류

횡성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가운데 한 가지는 생선류와 건어물류이다. 이들 물건은 네 곳의 장터에서 생선상인 12명, 건어물상인 11명이 판매하고 있다. 각 상인 대부분은 나름대로 단골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선류와 건어물류는 원주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직접 떼어와 판매하는 분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에서 많이 나는 오징어, 도루묵, 도치, 홍게 등은 거진항, 아야진항, 속초항, 주문진항 등지에서 구입해온다. 아울러 건어물은 대부분 서울 중부시장 등에서 많이 떼어오지만, 영덕이나 포항에서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횡성장에서 판매되는 생선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동태, 새우, 도루묵, 오징어, 조기, 양미리, 홍합, 조개, 꼬막, 고등어, 임연수, 생굴, 도치 등이며, 건어물에는 북어, 노가리, 쥐치포, 오징어, 새우 등이 있다. 건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보통 미역, 다시마 등도 함께 판매한다.

89)박상무, 남·68세, 원주 거주, 2011년 3월 6일 채록.

〈사례〉 생선

장에 다닌 지는 20년이 되었다. 예전부터 횡성장(1, 6일), 양평장(3, 8일), 하남시 덕풍장(4, 9일) 등을 다닌다. 생선은 가락동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당일 팔 수 있는 양만 떼어온다. 재고 없이 그날 다 팔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쉬는 날에는 수산시장을 다니며 시세를 알아본다. 20년 전에 처음 올 때보다 횡성장이 커졌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팔기도 힘들고, 경비도 많이 든다.⁹⁰⁾

권태문 씨는 전날 시세를 파악하고 장날 새벽에 노량진수산시장이나 가락동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이 구입하게 되면 재고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 특히 생선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양만 떼어온다.

〈사례〉 생선

1년 전부터 흥게, 도루묵, 콩치, 오징어 등 계절에 따라 한 가지 품목씩만 취급한다. 횡성(1, 6일), 원주(2, 7일), 인제 기린(3, 8일), 양양(4, 9일)을 다니며, 속초항과 고성 아야진항에서 입찰을 보고 물건을 가져온다. 원래는 20년 동안 기린장, 원통장, 인제장 등을 다니며 아동복을 판매하였으나, 요즘 각 가정에 아이들이 없다보니 옷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거나 고급 브랜드를 찾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속초에서 다니므로 경비가 많이 든다.⁹¹⁾



90) 권태문, 남·53세, 성남 거주, 2011년 3월 6일 채록.

91) 권○○, 남·56세, 속초 거주, 2011년 3월 6일 채록.

⑤ 음식류

황성장터의 먹을거리는 팔죽, 올챙이국수, 감자전, 메밀부침개, 칼국수, 찌뽕, 만둣국, 붕어빵, 어묵, 호떡, 도넛, 떡볶이, 족발, 빵 튀기, 즉석과자 등이 있는데, 올챙이국수는 겨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 황성장에는 먹을거리 골목이 따로 있다. 문정로 장터를 제외한 읍상로, 읍상서로, 문정로 19번길 장터에는 두 서너 곳씩 먹을거리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읍상로 농협 담 옆에서 파는 팔죽은 준비한 양만 팔기 때문에 판매가 일찍 끝난다.

〈사례〉 도넛·순대

장사 한 지는 10여 년 되었다. 원주에 살 때는 원주 풍물장에 가게가 있어서 처는 가게를 보고 나는 황성장, 평창장, 장호원장, 미탄장을 다녔다. 장에 다니게 된 것은 원주 가게가 장날만 장사가 되고 평일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원주 가게를 정리하고 8년 전에 황성으로 이사 오면서 처랑 같이 황성, 화천 사창리, 인제 원통, 문막 등으로 다녔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자동차 기름 값이 비싸지면서 경비 문제로 가까운 곳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후 그때부터 황성장, 둔내장, 대화장, 강림장 등 여러 곳을 장날에 맞춰 다니다가 지금은 황성장, 둔내장, 대화장만 다닌다. 원주에서 황성으로 이사 온 것은 황성장이 장사가 잘되기 때문이며, 지금도 황성장이 장사가 잘 된다. 도넛장사는 계절과는 크게 상관없으며, 그냥 사람만 많이 나오면 된다. 그래도 봄하고 가을에 장사가 더 잘 된다. 도넛은 제과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수 다 만드는데, 반죽은 전날 저녁에 집에서 준비한다. 순대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떼어온다. 요즘은 구제역으로 인해 순대 값이 비싸다. 그래도 단골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많이 주게 된다. 점심은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먹는다. 밥을 사 먹으면 돌이서 두 끼를 먹으니 이만 사천 원이 든다. 노점이라 겨울이나 바람 부는 날, 비가 오는 날은 추워서 안

좋지만, 가게 세 나가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 현재 횡성장 상인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릴 거다.⁹²⁾

장에 다니며 장사를 하다가 횡성에 집을 풀은 경우는 흔치 않다. 횡성장 상인 대부분은 원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덕 씨는 반대로 원주에서 살다가 횡성에 온 경우이다. 이는 횡성이 살기 좋은 까닭도 있겠지만 횡성장에서 도넛장사가 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장을 정리하고 주거지인 횡성을 중심으로 몇 곳을 다니게 된다. 다른 장도 그렇겠지만 횡성장 상인들 중에 젊은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장꾼이 힘들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부분은 돈을 벌어 집포에서 장사하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장에서 젊은 상인을 찾기란 쉽지 않다.



⑥ 약초 · 곡물류

횡성군은 한우와 더불어 더덕이 유명하다. 이러한 까닭에 횡성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더덕을 판매하고, 더불어 산에서 채취한 희귀한 약초는 물론 나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약초는 산도라지, 민들레, 질경이, 은행, 장뇌삼, 산마, 갈근, 구기자, 감초 등이

92)이상덕, 남·44세, 횡성군 횡성읍 청룡리, 2011년 2월 16일 채록.

며, 곡물류는 조, 보리, 수수, 콩, 팥, 울무, 옥수수 등을 비롯하여 도토리 가루, 메밀가루, 감자가루 등도 판매한다.

〈사례〉 잡곡

농사만으로 자식들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1970년부터 장에 다녔다. 처음에는 원주에서 버스가 가는 곳으로 다녔는데, 주로 횡성, 흥천, 양평, 춘천, 양구 등을 다녔다.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까닭에 고춧가루, 참깨, 녹두 등 서너 가지 품목을 가지고 다녔다. 짐을 들고 타는 까닭에 버스기사와 안내양으로부터 잔소리도 많이 들었다. 당시 장에 갈 때는 보통 5시 경에 집에서 나오며, 장사가 잘 되던 곳은 양평장이었다. 그러다가 힘에 부쳐서 1990년대부터 원주장, 양평장과 횡성장만 다니다가 4년 전부터는 횡성장, 원주장만 다니고 있다. 횡성장에 오고갈 때는 아들이 횡성에 직장이 있는 까닭에 데려다주고 데려간다. 장이 끝나면 월세 2만원을 주고 사용하는 창고가 있어서 그곳에 물건을 보관한다. 부족한 품목이 있으면 다음 장에 그것을 보충한다. 물건은 원주 도매상에서 구입해오며, 거짓말을 안 하고 신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단골들이 주로 이용한다.⁹³⁾

무거운 곡물을 혼자서 머리에 이고 들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나이가 들면서 다니는 장을 줄이게 되고, 나아가 창고까지 얻어 물건을 보관하게 된다. 이렇듯 횡성에 창고를 얻어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한정옥 씨 외에도 여러 분이 있다. 특히 자신의 차가 없는 상인들이 그러한데, 이들은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93)한정옥, 여·76세, 원주 거주, 2011년 2월 1일 채록.



〈사례〉 약초

횡성(1, 6일) 원주(2, 8), 용문(5, 10일)으로 다닌다. 약초는 대부분 자연산으로 산에 전문적으로 다니는 분들로부터 구입한다. 장모께서 약초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시작했다. 용문장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와서 잘 되는 편이다. 집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에 안 가는 날에도 바쁘다.⁹⁴⁾

⑦ 화초류

최근 들어서 꽃과 화분 등을 취급하고 상인도 있다. 꽃을 구매하는 층도 다양해지고,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장사가 괜찮다고 한다. 상인들은 화초를 대개 서울 근교 화초재배지에서 구입하며, 판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장을 선택해서 다닌다.

〈사례〉 화원

성남에 거주하는 김○○ 씨의 경우, 1985년부터 꽃장사를 했다. 당시에는 버스타고 서울로만 다녔다. 그러다 1995년 우연한 기회에 장에 갔더니 장사가 잘되었다. 그때부터 계속 장에만 다닌

94) 김현수, 남·60세,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2011년 3월 6일 채록.



다. 본격적으로 장에 다닐 때는 차를 구입해서 다녔다. 현재 횡성장(1, 6일), 원주장(2, 7일), 안산장(4, 9일), 모란장(5, 10일)을 다니는데, 횡성장은 10년 전부터 다녔다. 장에 안 가는 3일과 8일은 쉰다. 장사는 모란장이 잘되며, 안산장도 잘 되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별로다.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화초가 다른데, 도시에서는 관엽식물을 좋아하고 지방에서는 화려한 꽃을 좋아한다. 꽃과 화분은 농장에서 구입한다. 꽃을 파는 장사꾼이 장에 오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다른 품목보다 수입이 괜찮은 편이다. 집에서 횡성장을 다녀가면 경비가 10만 원 정도 든다.⁹⁵⁾

대부분의 화초는 추위에 약하다. 그러한 까닭에 겨울에 장터에서 화초를 판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상인은 자신이 아닌 화초를 위하여 온통 투명천막으로 치고 그 안에 석유난로를 피워 보온한다. 따라서 겨울이면 유지비가 다른 품목에 비해 더 많이 든다.

95) 이○○, 여·59세, 경기도 성남 거주, 2011년 2월 1일 채록.

4. 횡성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1) 운영 시간

횡성장 운영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다. 그래서 지역의 잉여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민은 좋은 자리를 차지할 목적으로 이른 아침에 나오지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이동상인의 경우 동절기에는 08시, 하절기에는 07시 경에 장사 준비를 한다. 아울러 횡성 읍내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보통 10시가 되면 장에 나오지만,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우천면, 안흥면, 강림면, 서원면 등에 거주하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 시간의 다름으로 인해 읍내 거주자보다 빠른 시간에 나오는 일이 흔하다. 그리고 점심 때가 지나면 손님들이 장을 나와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는데, 장터가 한가해지면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장기를 두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동절기에는 오후 3~4, 하절기에는 4~5시면 손님들이 장을 빠져나간다. 폐장시간 또한 동절기와 하절기가 차이를 보이는데, 보통 해가 질 무렵이면 상인들은 하나 둘 집을 쏜다. 하절기에는 해가 긴 까닭에 동절기보다 1시간 정도 빠르게 개장하여 1시간 정도 늦게 폐장한다.

2) 인근 장과의 연결

이동상인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여러 장을 순회하는데,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위치한 여러 장을 순회하는 통근식 이동상인이 주류를 차지한다. 이처럼 몇 곳의 장을 선택하여 순회하는 방식은 오래된 것으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개인 소유 차량이 증가하면서 요즘은 순회반경이 더 넓어졌다. 이러한 까닭에 자신의 집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는 상인도 일부 보이지만, 보통은 자신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순회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현재 횡성장날이면 계란과 잡곡을 팔고 있는 전홍두 씨는 18세부터 횡성군내 여러 장을 다녔다. 초기에는 마을을 다니며 미곡을 사들여 되넘기를 했으며, 이후 군대에 다녀와서는 장에 다니며 가마니, 사과, 계란 등을 팔았다.

〈사례〉 곡물

옛날에는 장차라고 제무시(GMC) 꼭대기, 그러니까 거기에 짐을 싣고 그 위에 사람이 또 타고서 다녔어. (조사자; 군대 가기 전에는 어느 어느 장을 다니셨어요?) 그 뭐 가까운데. 그냥 개나리[갑천면 대관대리] 같은데, 우천, 또 저 가곡[공근면 가곡리], 횡성을 다녔지.⁹⁶⁾

장차는 보통 GMC를 가리키는데, 이 장차가 모든 장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 신림장, 황둔장 등과 같이 규모가 작은 장에는 GMC가 아닌 마이크로버스가 다녔는데, 짐과 함께 사람도 서너명 함께 탔다. 주로 짐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였다.⁹⁷⁾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에 거주하는 선원영 씨는 톱을 수리를 하고 횡성군내 장보다는 춘당리에서 가까운 홍천군 서석면을 중심으로 하여 홍천군 내면의 장을 주로 다녔다.

96)전홍두, 남·69세,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2011년 1월 9일 채록.

97)최순철, 남·78세, 원주 거주, 2011년 1월 21일 채록.

〈사례〉 톱수리

24세부터 장에 다녔다. 요즘은 나이도 있고 해서 여름에는 농사짓고 겨울에 심심하면 나온다. 예전에는 흥천 내면 창촌장(1, 6일), 흥천 내면 울전장(2, 7일), 황성 갑천장(2, 7일), 황성 청일장(3, 8일), 흥천 서석장(4, 9일), 흥천 내면 방내장 (5, 10일) 등을 다녔는데, 날이 같은 경우 번갈아가면서 다녔다. 서석에 장차가 있어서 그곳에서 출발했다가 장을 보고 다시 그 차를 타고 나온다. 그리고 황성 청일면 춘당리 집으로 오는데, 늦으면 서석에서 자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버스로 나오기도 했다. 2년 전부터 황성장에만 가끔 나온다.⁹⁸⁾

예전에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톱을 많이 사용했는데, 특히 흥천군 서석면과 내면에서는 벌목을 많이 했던 까닭에 톱을 자주 손질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선원영 씨는 춘당리에서 가까운 서석을 중심으로 하여 수입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다니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⁹⁾

그런가 하면 8년 전에 황성으로 이사 온 이상덕 씨는 황성, 화천 사창리, 인제 원통, 원주 문막 등으로 다녔으나, 자동차 연료비 문제로 집에서 가까운 황성, 둔내, 대화, 강림 등을 장날에 맞춰 다녔다. 하지만 수입에 비해 경비가 많이 들어 지금은 황성장, 둔내장, 대화장 세 곳만 다닌다고 한다.¹⁰⁰⁾ 따라서 장의 순회는 상인의 거주지 및 장의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1970년대 황성장을 중심으로 인근 장들과의 연결을 살펴

98) 선원영, 남·78세, 황성군 청일면 춘당리, 2011년 2월 16일 채록.

99) 황성장에는 이미 톱 수리를 해주시는 분이 자리하고 있는 까닭에, 여러 사람이 하기에는 황성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서석면과 내면 등으로 갔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00) 이상덕, 남·44세, 황성군 황성읍 청룡리, 2011년 2월 16일 채록.

보면, ‘횡성(1, 6일) → 갑천 매일장(2, 7일) → 안흥(3, 8일) · 청일 유동장(3, 8일) → 강림장(4, 9일) · 서석장(4, 9일) → 둔내(5, 10일)’ 등으로 장꾼들이 순회하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개인소유의 차가 흔치 않던 시절이기에 이동상인들은 짐 하나에 얼마씩 돈을 주고 장차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횡성에는 여러 대의 장차가 있어서 인근의 장에 상인들의 짐과 사람을 실어줬다.

이동상인들은 인근의 장을 모두 다니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자신이 개척한 장을 순회하면서 다닌다. 이러한 까닭에 안흥장과 유동장, 강림장과 서석장은 장이 서는 날이 같지만 이동상인들은 자신이 다니던 장에만 가게 되고, 장차 또한 이동상인의 순회 코스에 맞춰 안흥장과 유동장, 강림장과 서석장 등과 같이 겹치는 곳은 한 곳을 선택하여 다니게 된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순회 코스가 많이 바뀌었다.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대부분 개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까닭에 이동 거리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¹⁰¹⁾ 2011년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인근 장과의 연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1개 장만 이용하는 경우

횡성장(1·6일)

● 2개 장을 이용하는 경우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장)

횡성장(1·6일) → 진부장(3·8장)

횡성장(1·6일) → 제천장(3·8장)

101)최근 고유가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비가 많이 드는 까닭에 대부분의 이동상인들은 기존에 다니던 장의 수를 줄이고 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기존에 다니던 장을 계속 다니기에 힘이 부쳐서 그 수를 줄여서 1~2곳에만 다니기도 한다.

● 3개 장을 이용하는 경우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둔내장(5·10일)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용문장(5·10일)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여주장(5·10일)
- 횡성장(1·6일) → 대화장(4·9일) → 둔내장(5·10일)
- 횡성장(1·6일) → 서석장(4·9일) → 둔내장(5·10일)
- 횡성장(1·6일) → 양평장(3·8일) → 하남 덕풍장(4·9일)

● 4개 장을 이용하는 경우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문막장(3·8일) → 둔내장(5·10일)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진부장(3·8일) → 영월장(4·9일)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제천장(3·8일) → 영월장(4·9일)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기린장(3·8일) → 양양장(4·9일)
- 횡성장(1·6일) → 안홍장(3·8일) → 강림장(4·9일) → 둔내장(5·10일)
- 횡성장(1·6일) → 진부장(3·8일) → 대화장(4·9일) → 평창장(5·10일)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안산장(4·9일) → 모란장(5·10일)

● 5개 장을 이용하는 경우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진부장(3·8일) → 영월장(4·9일) → 평창장(5·10일)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진부장(3·8일) → 영월장(4·9일) → 둔내장(5·10일)
- 횡성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진부장(3·8일) → 대화장(4·9일) → 평창장(5·10일)
- 횡성장(1·6일) → 이천장(2·7일) → 괴산장(3·8일) → 장호원장(4·9일) → 충주장(5·10일)

횡성장을 중심으로 한 이동상인의 순회경로 보고서는 아직까지 없고, 단지 몇몇 상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순회경로를 간단히 기록

해 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교통이 불편했던 예전의 순회경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아울러 200여명의 이동상인의 순회 경로를 일일이 알아보기에는 조사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에 업종별로 몇 분씩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 결과 위의 5종류의 순회경로를 그릴 수가 있었다.¹⁰²⁾

먼저 횡성장 한 곳에서만 장사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민이고,¹⁰³⁾ 두 곳을 순회하는 분들은 원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나이가 많은 까닭에 여러 곳을 다니기에는 힘이 부쳐서 장사가 잘 되는 곳과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 등 두 곳을 1과수로 정하여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곳, 네 곳, 다섯 곳의 순회경로를 보면 횡성장에서 시작하여 둔내장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순회경로가 다양하다. 즉 횡성군 관내 장만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근의 원주풍물장, 서석장, 진부장, 영월장을 비롯하여 평창장, 기린장, 양양장 등으로 다니는 분, 나아가 충주, 괴산, 양평, 하남, 안산 등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장까지 가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듯 이동상인의 순회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거기에 전국의 시는 물론 웬만한 군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어느 장이든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⁴⁾ 따라서 예전처럼 거주지

102) 물론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동상인도 있다. 특히 뽕빵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이동상인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들은 순회하는 1~2곳의 장에는 자신의 고정자리가 있을 뿐 다른 곳에는 자리가 없다. 이러한 까닭에 고정자리가 없는 날에는 자신이 다녔던 여러 장에서 선택해서 가게 된다. 이처럼 횡성장에 뽕빵으로 다니는 분들이 여럿이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시키는 순회경로는 의미가 없다.

103) 앞에서 살폈던 도서·잡화상 김광현 씨의 경우는 원주에 가게가 있기 때문에 원주풍물장을 가지 않는다. 따라서 횡성장 한 곳만 다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104) 이동상인 중 최근 유튜브 영상 및 불경기로 인해 기존의 순회경로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즉 수입에 비해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앞에서 살폈던 이상덕, 박상무, 민영진, 백승덕 씨 등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를 중심으로 장을 선택하여 고정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흔했지만, 근래에는 이동상인의 순회경로가 개인사정 및 지역의 장 형편에 따라 가변적이다. 바꿔 말하면, 요즘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동상인에게 있어서 거리는 큰 문제가 안 되며, 단지 어느 장에 손님 이 많아 장사가 잘 되느냐가 관건일 뿐이다.¹⁰⁵⁾

5. 횡성장 관리

1) 장 자리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여 장사하는 업종은 자리가 중요하다. 오일장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장 자리’는 오일장의 이동상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장 자리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초입이나, 중간이나 또 주변에 어떤 업종이 있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 이러한 까닭에 상인들은 장 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좋은 ‘목’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는 기존에 상인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내기 상인들이 이러한 자리를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까닭에 가장자리에 자리한 상인들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알리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변두리로 취급받던 자리가 차츰 좋은 ‘목’으로 바뀌기도 하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좋은 목으로 꼽히던 곳이 다른 곳보다 장사가 안 되어 별로 좋지 않은 목으로 전략하는 경우도 있다.

105) 땀땀으로 오신 몇몇 상인은 횡성장의 유명세를 듣고 왔으나 그리 장사가 잘되지 않으므로 다음 장에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분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장사가 괜찮게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횡성장에서 장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읍상서로와 문정로 19번길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곳은 횡성장에 온 분들이면 한번쯤 지나게 되는 곳이고, 횡성장에서 좋은 목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이곳 주변에는 손님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진열하여 판매하는데, 신발, 양말 등을 판매하는 이동상인도 있으나, 대부분은 견어물, 생선, 콩나물·두부, 즉석구이 김, 젓갈, 반찬 등과 같이 주로 먹을거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곳이 읍상로, 문정로를 비롯한 다른 곳보다 장사가 항시 더 잘되는 것은 아니다. 여름에는 비교적 공간이 넓은 읍상로에 손님이 더 많이 모이고, 장사도 잘된다. 이는 위에 정리한 가게 배치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네 곳의 장터 중 가장 많은 이동상인이 모여 있는데, 여름이면 더 많은 장꾼들이 있다. 이처럼 읍상로에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여러 상인이 모여 있다는 것은 많은 손님을 불러올 수 있는 장터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¹⁰⁶⁾

한편 기존 상인으로부터 자리를 물려받거나 또는 장 자리와 함께 기존 상인이 취급한 물건을 같이 구입하는 조건으로 장 자리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장 자리의 인계와 함께 그 자리의 자릿세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가게 매매증서를 쓰는 등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릿세를 주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도 안 되며 불법이다.

또한 자기 자리가 있는 상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장에 오지 않았을 경우 그 자리에 다른 상인이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106) 어느 곳이 수입이 더 좋은 지는 상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업 비밀에 속하는 것이므로 쉽게 얘기해 줄 분들은 없다. 하지만 생선가게를 기준으로 할 때 교차지점보다 읍상로, 문정로 등에 있는 상인 더 많은 생선을 손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빈자리에 임시로 장사하는 분들을 보통 ‘땀땀’ 또는 ‘땀땀 상인’이라 한다. 땀땀 상인이 횡성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아침에 장에 와서 ‘횡성민속시장 오일장 상인회’ 사무실에 자리 신청을 한다.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품목을 확인하고 기존의 상인이 판매하는 품목과 겹치지 않는가를 확인한 후에 자리를 배정해 준다.

2) 장세

횡성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장들과 마찬가지로 상인들로부터 ‘장세’를 받고 있다.¹⁰⁷⁾ 장세는 횡성시장조합에서 징수하며, 금액은 상인이 장에 물건을 깐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1미터당 천 원을 받고 있다.

옛날에 메타에 천 원씩이라고 정했는데 벌써 한 이십년 이상 넘은 구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이 오 메타 이상은 못 쓰게끔 돼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지금은 나가 보면 한 사람이 십 메타 십이메타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 그것도 맨날 싸워야 돼요. 이런 문제가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민속장에서는 보통 얼마나옵니까?) 민속장에서는 잘 나와야 삼백. (한 달에요?) 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이백 한 오륙십? 그거예요.¹⁰⁸⁾

횡성장이 언제부터 쇠고, 당시 상인들은 몇 명이고, 장세는 얼마였는지 등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 1960년대

107) 횡성군 관내에 현재 장이 서는 곳은 횡성장, 둔내장, 안흥장, 강림장이다. 그런데 강림장은 공식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상인 몇 명이 예전 장날인 4, 9일에 맞춰서 장을 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장세를 받는 곳은 횡성장과 둔내장이며, 안흥장은 장세가 없다. 아울러 강림장은 공식적으로 장이 서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장세가 없다.

108) 안중하, 남·, 횡성시장조합 상무, 2011년 1월 17일 채록.

후반 황성장에 대한 간단한 증언이 있다.

(예전에는 장세를 얼마나 냈는지 기억하나요?) 첫 번째는 몇 십 원, 십 원 그랬을 거야 아마. 지금은 많지. 한 5~6천원 내지. (지역민들은 장세 안 내죠?) 그거 안 내는 거는 콩 한 말 가져오고, 뭐 쌀 한 말 가져오고 그건 안 내. 그전엔 냈었는데 지금은 안 내. (지역민이라도 크게 하는 분은 다 내는군요?) 어, 다 내.¹⁰⁹⁾

전홍두 씨는 18세부터 황성장에 다녔다. 처음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콩, 팥 등 잡곡을 사서 우마차에 싣고 황성장에 와서 도매상에 파는 되넘기를 했다. 그래서 1960년대 황성장 사정을 기억하고 있는데, 1960년대 초 장세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군에 다녀온 후인 1960년대 말 경에 장세를 10원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나물, 호박고지, 잡곡 등과 같이 농산물을 조금씩 가지고와서 파는 지역민들에게는 장세를 받지 않고 있다.¹¹⁰⁾

한편 나무시장, 화목장 등으로도 불리던 나무장이 일제강점기 때도 썼는데, 군청 아래에서부터 읍하리 우체국 사이에 나무를 가득 실은 우마차가 늘어섰었다고 한다.

느티나무 있었을 때에는, 그때도 장이 썼어, 나무장.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집 앞에, 그 어디까지 썼냐면 저 군청 있잖아? 군청 있는 데서 쪽 해서 지금 우체국 분점 있잖아? 거기까지. 마차에 나무 싣고, 그 다음에는 짊어지는 거는 이제 지금 로터리 거기에서 썼지. (근데 마차에 싣는 거는 몇 년도예요?) 오래 됐

109) 전홍두, 남·69세, 황성군 황성읍 내지리, 2011년 1월 9일 채록.

110) 이렇듯 장세를 안 받는 까닭은 현재 군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즉 영세 농가를 보호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다. 장날에 호박고지, 잡곡, 산나물 등을 조금씩 가지고나와 판매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의 영세 농가이다.

지. (그때가 해방되기 전인가요?) 그렇지. 해방되기 전이지. (그러면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나무를 못하게 했잖아요?) 아니여, 장작은 다 갖다 팔았어. 근데 집이 어디냐 하면, 우리 집 옆에 우체국 터가, 우리 집 터가 더 들어갔어. 그 골목 있는 데. 그런데 일본 놈들은 노가지나무, 측백나무를 심거든. 울타리가 싹 그거였었지. 거기 소를 매고 그랬는데 뭐[우마차를 그 나무에 댄다는 의미]. 그 해방되고도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몇 살이라고 얘기해야 하나. 그 장작을, 지세를 때는데 2가치(개비)씩 때다가 신통치 않으니까는 4가치씩 갖다가 어따 놓느냐면 우리 집 마당에다가 쌓아놓는 거여. (장작을?) 그럼. (어르신네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했어. 여기 박근수라고, 우리 집에 그 지세 때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집에 맡기고 그랬어. (뭐 허가 받고 하는 건가요? 지세 때는 걸?) 그럼 내야지. 누가 공짜를, 그럼 다 할라고 그러지. 지금 하고 똑 같아. 여 시장하고. 다 거기 줘야지. 그게 면에서 했는지 그럴 걸. 면사무소 터가 여기여. 여기고 느티나무가 있고 연못이 있고, 저쪽에 일성당 집 옆에 거기가 은행이 있었어. 그 금융조합이지.¹¹¹⁾

김창수 씨가 당시 어린나이임에도 일제 강점기 때의 나무장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집이 나무장이 서는 읍하우체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웃이 지세로 우마차 1대에서 장작 2개비 또는 4개비를 때던 것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듯 군청과 읍하우체국 사이에 서던 나무장이 언제부턴가 로터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는 우마차보다는 지게와 리어카로 나무를 해가지고 새벽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11) 김창수, 남·76세,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2011년 2월 16일 채록.

1973년도에 대동여중 앞에서 문방구를 했는데, 그때도 나무를 뺐다. 그때도 나무시장이 있었다. 나무시장에 오는 분들은 새벽에 온다. 장작의 경우 생나무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마른 나무만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싸리나무를 주로 가지고 왔다. 나무 100개비가 한 짐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같은 한 짐이라도 많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하면 나무장수는 그 나무를 소비자 집까지 가져다준다. 신뢰가 쌓이면 시장에 안 나오고 바로 집에 가져다주기도 한다. 솔가지보다 싸리나무를 선호한다. 싸리나무는 단단하고 화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연기가 적게 나온다. 로터리에는 나무만 오고 겨울이면 배추장사를 했다. 전에도 연탄을 때는 집이 몇 집 있었으나, 읍내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탄아궁이로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나무 때는 아궁이에다 구들을 그냥 두고 연탄아궁이로 바꿨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연탄보일러로 바뀌었다. 1980년대 초 소도읍 건설을 하면서 연립주택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연탄보일러를 많이 사용했다.¹¹²⁾

문구점을 하던 정두영 씨는 1970년대 초 당시에 나무를 뺐다가 197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황성읍내 많은 집들이 연탄아궁이로 변경하여 함께 변경하였다. 이렇듯 황성읍내 사람들이 연탄을 사용하게 되면서 로터리에서 새벽에 서던 나무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¹¹³⁾

112) 정두영, 남·73세,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113) 당시 나무는 주로 서원면 밤골, 공근면 초원리 입벌, 대관대리 등에서 왔다. “정월대보름날에는 싸리나무로 때야 벼가 잘 여문다!”는 말이 전한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겨울에 좋은 싸리나무를 해 두었다가 보름날 불을 땀다. 이러한 까닭에 보름 전에는 나무시장에 싸리나무를 많이 지고 온다.(제보자: 정두영, 남·73세,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6. 횡성 우시장

1) 위치

횡성장날 우시장도 함께 선다. 우시장은 원래 구리고개 넘어 섬강변인 뒷내다리 옆에 있다가, 1984년에 조곡리 321-1번지인 현재 우시장으로 이전하였다. 우시장이 뒷내다리에 있을 때는 흔히 ‘구리고개 우시장’이라고 불렸으며, 소뿐만 아니라 돼지도 취급하였으며 도축장도 이웃해 있었다.

현재 횡성 우시장의 정식명칭은 ‘횡성축협가축경매시장’인데, 소 중심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히 우시장이라 한다. 횡성 우시장이 뒷내다리에 자리하고 있을 때인 1974년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경매제도를 실시했으며, 이후 1984년 조곡리로 이전하여서는 1988년에 가축시장을 횡성군으로부터 축협이 재산을 인수하여 1989년에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송아지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우시장은 횡성장일이 서는 날과 같이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등 한 달에 6번이 운영되며, 이와 별도로 2001년 1월부터는 2일, 12일, 22일에 송아지를 경매하고 있다.

2) 운영 시간

횡성 우시장은 일반 장이 서는 1, 6일에 같이 열리는데, 여기에 별도로 2, 12, 22일에는 송아지경매를 운영한다.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까닭에 대부분의 채꾼은 장날 전날 우시장 근처 마방에 소를 맡기곤 하루 묵는다. 그리곤 다음날 아침에 소

를 끌고 우시장에 데려다 준다. 따라서 우시장이 지금처럼 일찍 서지 않았으며 폐장도 4시 정도에 했다.

장날만 우시장이 열렸지. 1970년대에는 마방에서 소를 먹여주고 재울 때, 송아지 100원, 큰 소는 200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300원도 받았다. 최근 횡성우시장에 있던 마방에서는 하루에 2만원까지 받았다. 채꾼에게는 1마리에 천원을 주었다. 천원에는 마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채꾼은 1마리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보통 2~3마리를 끈다. 소장수와 채꾼은 거리나 소 마리 수에 따라 가격을 흥정하기도 한다.¹¹⁴⁾

그런데 요즘 횡성 우시장은 하절기에 6시, 동절기에 7시(송아지 경매는 9시)에 개장한다. 소가 있으면 오후까지 계속하지만 대부분 점심때를 넘기지 않는다.



횡성 우시장에 있던 마방



마방

1970년대 후반, 당시 횡성에는 영업용 소차가 타이탄 1대, 신진 6톤이 한 대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횡성에는 자기차로 영업하

114) 이범주, 남·68세,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2011년 2월 1일 채록.

는 소 장수가 없었다. 이들 차에는 소 6마리 정도 실었는데, 당시 소들은 풀만 먹여서 키운 탓에 지금과 같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소는 손이 갈수록 살이 쪼다!”라는 구호가 나붙었다고 한다.¹¹⁵⁾

예전에는 ‘정선장(2, 7일) → 진부장(3, 8일) → 대화장(4, 9일) → 둔내장(5, 10일) → 횡성장(1, 6일)’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던 것이 교통의 발달로 1974년 인근의 홍천, 원주, 평창 등에서 횡성군으로 유입된 소는 전체의 97.9%를 차지하였으며, 1980년대에 오면 양평군, 평창군, 춘천시 등으로 집우권이 확산되어 소들이 횡성으로 모여들었다.¹¹⁶⁾

3) 거래 방식

예전에 어른들은 황해도 소가 제일 굼었고, 강원도에서는 삼척 소가 제일 굼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이는 과정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 소가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지금도 고랭지에서 자란 소가 좋다고 하는데, 이유는 더 선선하고 추운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면역성이 강해 더 건강하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대관령에서 나온 소를 우선 한다.

포터 용달이 횡성에는 1980년대 초에 나왔다. 그때 용달이 개인 용달과 회사용달이 있었는데, 횡성에는 한일용달, 삼화용달, 횡성용달이 있었다. 지금은 회사용달이 하나도 없다. 당시 소장수는 개인용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 용달이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불렀는데, 횡성에서 진부까지 3~4만원이었다.

정선장을 보는 경우는 하루 전에 간다. 횡성장을 보고 원주에서 기차를 타고 가서 정선 하숙집에서 잔다. 보통은 2~3명이 같이

115)이범주, 남·68세,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2011년 2월 1일 채록.

116)이병기, 「횡성 가축시장의 기능 및 집우권」, 『강원지리』제2호, 강원대 지리교육학과, 1984, 60-2쪽.

다닌다. 혹 돈을 아끼느라 다른 사람과 어울려 잘 때는 우시장에 근처에 밥집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밥만 팔아주면 잠은 그냥 잤다. 횡성우시장에 있는 오복식당, 미원식당 등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식당에서 자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러나 요즘은 교통이 좋아 장날 전에 와서 자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전날 미리 와서 자는 경우도 있다.

횡성 우시장에서 송아지 경매 때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다 횡성 한우이다. 그리하여 황송아지는 6개월, 암송아지는 8개월인 송아지만 경매를 한다. 하지만 이 송아지들은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안 되고, 지역민이 아니면 판매하지 않는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횡성 우시장이 제일 크다고 그랬다. 그런데 횡성 한우라는 브랜드를 쓰고부터 우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장사꾼은 외지 소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송아지도 횡성 거 아니면 안 사고, 축협에서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외지에서 어미 소를 가지고 와서 그게 횡성에서 새끼를 낳으면 수매를 해야 하는데, 횡성소가 아닌 게 새끼를 낳으면 수매를 안 한다. 황송아지를 경매장에서 사서 거세를 해서 등급이 잘 나오면 전라도, 경상도 등 어느 소든지 그 가격은 똑 같다. 그런데 횡성소는 군에서 보상, 성금으로 주는 돈이 55만원, 70만원 이렇다. 따라서 이들 소는 매매가 되더라도 타지로는 못가고 횡성군 관내에서만 사육된다.



우시장에 경매하러 나온 소



경매가격 및 낙찰자 이름을 쓰는 장면

4) 말뚝세

옛날에는 완장차고 중개를 했다. 그 당시에는 소를 가져 와서 팔 때는 아무 것도 없이 시장에 들어오는 입장료만 냈다. 그걸 ‘말뚝세’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송아지는 100원, 큰 소는 200원 말뚝세를 냈다. 조곡리에 처음 왔을 때도 처음에는 말뚝세를 냈다. 말뚝세는 팔러 간 사람이 아침에 들어갈 적에 내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영수를 쓴다. 영수를 쓸 때 완장차고 중개하던 사람들이 그 영수를 쓰게 되면 수수료 중 20%를 가졌다. 지금은 우시장관리를 축협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군청 축산과에서 했다. 지금 횡성 우시장에서 수수료는 송아지는 5천원, 큰 소는 만원이다. 그런데 지금은 중개들이 없는 까닭에 송아지 5천원, 큰 소는 1만원의 수수료를 축협이 다 갖는다.

예전에는 중개인의 수수료 일년치 통계를 내서, 영수 다 쓴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장 찬 중개인이 갖는다. 횡성우시장에 중개완장을 10명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10명 중에 1등한 사람이 있으면 연말에 가서 1등한 중개인에게 금반지도 주고 그랬다. 중개인은 소장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축산과에서 선발하여 중개인 완장을 주었다.

우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중개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시장에 들어와서 중개인의 개입 없이 자기네끼리 사고팔아도 된다. 하지만 소를 가지고 나갈 때는 영수를 확인하니까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인 한 명을 지목하여 이름을 적어야 한다. 따라서 중개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지금은 사고파는 사람과 날짜만 쓰지만, 그때는 어느 중개인이 썼다는 게 있어야 연말에 통계를 낸다.

지금도 그렇지만, 농협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출금을 끊을 때 잘못

쓰면 찢어버리면 되지만, 우시장에 나오는 영수철은 찢으면 안 된다. 잘못 쓰면 잘못 쓴 것대로 놔두고 그대로 넘겨서 다시 써야 한다. 잘못 썼다고 찢어버리는 경우는 없다.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영수증이 100장이 한 권으로 나왔으면 100장이 있어야 한다.

5) 벌중개

예전에는 매매를 중개인이 했지만, 지금은 ‘벌중개’라고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시장에 가면 몇몇 사람이 한다. 소를 사고파는 데 있어 서로 흥정이 어려울 때 벌중개가 나서서 거래를 성사시켜주기도 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쌍방에서 각각 송아지는 1만원, 큰 소는 2만원씩 준다. 이렇듯 중개해주고 받는 돈을 ‘출몰’ 또는 ‘구전’이라 한다. 만약에 구전을 안 주면 다음 우시장에 소를 사거나 팔러 나왔을 때 훼방을 놓기도 한다. 그래 거래가 되려고 하다가도 안 된다. 이러한 까닭에 소를 사고파는 사람들은 줄 건 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소를 사고 팔 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 거래를 하고 난 후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주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 중간에서 잘못된 경우 벌중개가 그것을 해결해주기도 한다. 이렇듯 물건 값이 안 들어왔거나 소가 터무니없이 좋지 않거나 그럴 때 벌중개에게 얘기를 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혹시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를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면 벌중개가 나서서 해결하기도 한다.¹¹⁷⁾

117) 우시장에 대한 내용은 이범주와의 대화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범주는 1967년 제대 후부터 지금까지 우시장을 다니며 소장사를 하고 있다.(이범주, 남·68세,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2011년 2월 1일 채록.)

7. 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횡성장

횡성군민 사이에서는 “횡성장은 동대문 밖에서 가장 큰 장이다!”라고 자랑스럽게 회자되고 있으며, 이 말에 횡성군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인구나 면적 등을 비교할 때 횡성군은 강원도 감영이 있던 인근의 원주시는 물론 홍천군보다도 열세에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횡성군이 한때 ‘동대문 밖 가장 큰 장’의 명성을 누렸다는 사실에 타 지역 사람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의 시장』에는 당시 전국의 1,237개 시장 중 연간 20만圓 이상 거래한 135개의 주요 시장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 연간 50만圓 이상 거래한 대시장이 40여 개소이다. 여기에 연간 100만圓 이상 거래한 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 연간 100만圓 이상 거래 시장표(1922)>¹¹⁸⁾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류	기타	합	비고
동대문 시장	1,448,000	54,000	43,440	700	253,400	1,799,840	경기도
천안시	1,312,978	55,600	58,600	294,296	251,512	1,974,986	충 남 천안군
서문시	422,565	494,895	319,758	242,028	628,155	2,107,401	경 북 대구
부산 어시장		2,221,220				2,221,220	경 남 부산
읍내 시장	505,655	338,548	432,280	227,070	150,271	1,653,824	경 남 하동군
사리원시	397,000	106,500	284,000	197,252	278,200	1,262,952	황해도 봉산군
신막시	385,000	33,800	75,000	1,059,500	285,000	1,848,300	황해도 서흥군
염전 시장	1,083,760	12,695	82,687	290,665	29,499	1,499,306	평 남 안주군
읍내시	301,200	32,820	612,600	165,300	595,200	1,707,120	평 북 선천군
읍내시	1,585	4,860	25,000	155,000	836,000	1,022,445	강 원 횡성군
영흥시	446,685	84,195	1,458,051	2,695	43,000	2,074,626	함 남 영흥군

118) 『조선의 시장』, 조선총독부, 1924, 160~171쪽 참조. 책 발행은 1924년에 했지만, 책에 정리된 연액 자료는 1922년 것이다.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횡성장은 서울 동대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부산어시장 등 대도시의 시장들과 비견되는 큰 규모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정리된 11개 시장 가운데 연간 거래액이 가장 적지만, 안성장, 수원장, 청주장, 예산장, 전주장, 남원장, 김천장 등과 같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장들보다도 연간 거래액이 더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횡성장은 대단한 것이다.

당시 圓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강원도의 주요한 장과 비교하면 횡성장의 연간 100만圓 이상의 거래액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강원도 연간 20만圓 이상 거래 시장표(1922)>¹¹⁹⁾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류	기타	합	비고
강릉	140,000	110,000	410,000	65,793	184,000	919,793	
원주	66,272	31,216	35,850	61,722	20,930	215,990	
횡성	1,585	4,860	25,000	155,000	836,000	1,022,445	
홍천	39,841	13,510	14,280	211,672	14,369	302,672	
철원	29,533	28,990	136,028	735,942	51,815	984,311	
이천	36,000	9,360	15,000	180,000	5,760	246,120	
지식	41,040	15,310	13,900	371,162	56,100	497,512	이 천 군 낙양면

이와 같이 횡성장의 연간 거래액이 높은 것으로 전국에 알려지고, 강원도에서도 연간 거래액이 가장 많은 장으로 알려진 것은 1922년 한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923년과 1926년에는 철원장이 횡성장에 비해 연간 거래액이 조금 앞섰지만, 1938년에는 강원도의 그 어느 장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횡성장의 연간 거래액은 앞섰다.

119)『조선의 시장』, 조선총독부, 1924, 168-9쪽.

<강원도 연간 20만圓이상 거래시장표(1926)>¹²⁰⁾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류	잡품	합	비고
양양	122,769	13,360	50,700	40,550	50,350	277,720	
강릉	353,970	66,900	241,000	76,200	202,000	940,070	
북평	69,000	60,000	69,000	38,150	110,000	346,150	
대화	26,450	64,744	32,650	127,101	26,245	277,190	
원주	57,230	19,853	22,973	115,938	42,835	258,829	
횡성	35,000	6,800	30,061	82,260	893,510	1,047,631	
홍천	22,320	6,500	8,780	228,592	16,329	282,521	
철원	235,000	25,000	55,000	750,000	250,000	1,315,000	
이천	35,000	8,000	31,100	198,479	28,300	300,879	
지석	32,400	8,520	103,700	108,600	12,200	265,420	이 천 군 낙양면

한편 횡성장이 동대문 밖에서 가장 큰 장으로 명성을 얻은 이유에 대하여 대부분의 횡성군민들은 ‘우시장’을 꼽는다. 하지만 위의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20년대 횡성 우시장은 전국은 물론 강원도 내에서도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다. 당시 횡성 우시장 거래액은 인근의 원주, 홍천, 대화보다도 적을 뿐 아니라, 철

<강원도 주요 재래시장 연간 거래 일람표(1938)>¹²¹⁾

시장명	총거래액(단위 圓)	비고
강릉	1,934,257	강릉군 강릉읍
주문진	801,331	강릉군 주문진면
망상	478,030	강릉군 망상면
북평	1,360,000	삼척군 북삼면 북평리
읍내	404,130	울진군 울진면 읍내리
원주	448,451	원주군 원주읍
횡성	3,153,200	횡성군 횡성면
둔내	565,567	횡성군 둔내면
홍천	420,679	홍천군 홍천면
창도	686,500	금화군 창도면
철원	1,332,870	철원군 철원읍
평강	621,300	평강군 평강면
지석	1,000,200	이천군 낙양면 지석리

120) 『조선의 시장경제』, 조선총독부, 1929, 324-5쪽.

121) 문정창, 『조선의 시장』, 일본평론사, 1941, 241~322쪽 참조. 여기에는 당시 개장된 전국 시장의 거래액이 정리 되어 있으나, 본 글에서는 강원도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액이 400,000圓 이상인 시장만 정리한다.

원의 축류 거래액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1920년대의 횡성 우시장은 지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산물, 직물 등에 있어서도 강원도의 다른 장보다도 거래액이 적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횡성장의 연간 총 거래액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위의 표에 정리된 ‘기타’ 및 ‘잡품’의 품목을 통하여 대강 살필 수 있다. 다시 말해 횡성장은 농산물, 수산물, 축류, 직물류보다 ‘기타’ 및 ‘잡품’의 거래액이 두드러지는 장이다. 그런데 ‘기타’ 및 ‘잡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횡성장에서 주로 거래 되는 품목이 “곡류(穀類), 우(牛), 잡화(雜貨), 신탄류(薪炭類) 등”¹²²⁾이라는 설명으로 미루어 ‘기타 및 잡화’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공산품 소비재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인구도 많지 않은 지역에서 유난히 잡화류가 많이 거래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통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강원도의 주요 장인 춘천장, 강릉장, 주문진장, 홍천장, 철원장, 평강장 등을 이용하는 이들은 주로 관내 주민이 대부분인 반면, 횡성장에 오는 분들은 횡성군민뿐만 아니라 원주 소초면·호저면 나아가 평창군 대화면 주민들까지 횡성장을 이용하였다.¹²³⁾ 따라서 잡화류 거래액이 많았던 까닭도 이와 같이 횡성군 인근의 타군 주민들이 횡성장을 많이 이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횡성에는 금과 은을 캐던 광산이 여러 곳에 있었다. 1930

122)『조선의 시장』, 조선총독부, 1924, 640쪽.

123)위의 책, 462-474쪽 참조.

년 9월 29일자 <중의일보> 기사에 “강원도의 모든 산업은 근대 가속의 형세로 개발되는 중인데 그 중 중요한 자의 하나로 광산업의 현상에 대하여 보건데 1일 58인 이상의 노동자가 사역하는 곳은 통천군 ○천○○ 동척회사, 정선군 김○ 어영중 64, 횡성군 ㄸ 이제식 297, 김화군 중출광산 中出○ 125, 김화군 우익기광 박기우 66, 평강군 삼릉우익광 삼릉기광주식회사 72 등의 6개소인데 그 중 횡성군 정곡면 하안흥리 금광은 ○금성○이 ○히 ○○하여 월근 각지로부터의 생계자가 비상한 형세로 증가함은 근자에 이르러서는 종래 3~4호에 불과하던 산○○가 수십호의 면리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기광에는 기어이 따르는 주막 음식점 등이 즐비하여 대변창을 이루는 중이며 이곳만은 불경기의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별천지를 이루었다.”¹²⁴⁾고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횡성군의 한 금광에 29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3~4호에 불과하던 마을이 갑자기 수십 호에 이르고 주막을 비롯한 음식점이 즐비하여 불경기를 모르는 별천지를 이뤘다는 내용에 주목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갑자기 수십 호의 마을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광산개발에 따른 이주민의 전입에 따른 결과이다.

1934년 7월 9일자 <조선중앙일보>의 기사에는 “강원도 횡성군 일원에 산재한 ○○광산 5개소에서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에 금은 산출액은 실로 10만5,189원으로 이제 산출수량을 종별로 보면 금이 4,113○○, 은 59만이라 하며 전기 생산고를 내기 광촌에 수용된 노동자수는 393명이라 하는 바 광산 부근 농촌에 경제 노동할 로 이상기같은 금, 은 광산물에 의하여 기분 간 수습하여 온다는데 광산별로 산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4)박미현, 『한말 ·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속의 횡성』, 횡성문화원, 2009, 192쪽 재인용.

한다.”¹²⁵⁾고 정리되어 있는데, 노동자수가 393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1935년 3월 16일자 <조선중앙일보> 기사에는, 황성군에 산재한 금은광산의 수는 40여 광에 달하며 연간 산출액은 60만원에 이른다고 했다.¹²⁶⁾ 그렇다면 40여 광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될까?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없으나, 위의 두 광산에서 종사했던 297명과 393명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황성군에 산재해 있던 40여 곳의 광산이 위의 두 광산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한 광산에 종업원 수가 수십 명에 이르렀다면, 당시 황성군 관내에는 천여 명이 광산업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들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였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들은 농산물 등을 생산하기보다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 등을 모두 구입하는 적극적인 소비자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 해 동안 황성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더 많았을 것이며, 그에 따른 지출액 또한 늘어남은 당연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황성장’에 대한 얘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황성장의 명성은 연간 거래액이 많아서 얻어진 것이며, 이처럼 거래액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원주 소초면·호저면 및 평창 대화면 주민들까지도 황성장을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황성군 관내에 40여 곳이나 되는 많은 광산에 천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과 그의 가족 수천 명이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즉 광산 종사자 대부분은 이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의

125) 박미현, 위의 책, 221쪽 재인용.

126)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6일. 박미현, 위의 책, 236쪽 재인용.

농업인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들의 씀씀이는 주로 소비재인 공산품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황성장이 '동대문 밖에서 가장 큰 장'이라는 명성을 얻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둔내장



IV. 둔내장

둔내장은 둔내면사무소 앞 자포1리부터 둔방1리까지(둔내터미널 방향에서 둔내교를 건너서부터 농협 앞까지) 150여m의 일직선 도로 위에서 열린다. 길 중앙으로 물건을 사려는 마을 주민들로 분주하고, 양 옆으로 농기구와 해산물, 건어물, 밀반찬, 곡식, 야채, 그릇, 어묵 등을 파는 장꾼들이 늘어서 있다. 장터 한 켠에서는 오래간만에 만난 인근 마을 할머니와 아낙네들이 “겨우내 못 보았는데 오늘 만나 반갑다!”며 손을 맞잡고 얘기꽃을 피우는 모습도 보인다. 조선시대인 1770년대부터 이미 횡성지역의 대표적 장터로 명성을 떨쳐온 둔내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면 인근 청일면과 안흥면, 평창군 방림면 주민들까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번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둔내장도 다른 농촌 지역의 오일장과 마찬가지로 마을 인구의 감소, 도로 교통의 발달, 마트 등의 상가 형성 등으로 점차 번창하던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오일장으로서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여 년전부터 어물전을 열어온 김복녀(여·68세·횡성군 둔내면 거주)씨 옆에는 30대 아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씨는 냉동 명태와 오징어를 도마 위에 놓고 능숙하게 자르면서 “30년 전에는 장사가 잘돼 장꾼들이 큰 트럭에 물건을 가득 싣고 5일장을 돌아다녔다.”며 “트럭이 하도 가득 넘쳐 흙길, 바위길을 ‘윙윙윙’ 흔들며 달리다보면 눈깜짝할 새에 장꾼 아낙네가 아이를 트럭에서 떨어뜨리기도 했다”며 과거를 회상하였다. 즉석 김구이를 파는 장국현(남·59세·원주시 문막읍 거주)씨 부부 상점에

손님이 줄을 잇자 손님이 없어 손 놓고 있던 옆집 옷가게 주인이 달려와 일손을 돕는다. 장씨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형마트를 엄격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의 재래시장을 위한 지혜는 필요하다.”며 “경제가 하루속히 풀려 서민이 먹고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손님이 없어 숯불에 몸을 녹이던 옷가게 주인 박상무(남·65세)씨와 정정교(남·38세)씨는 “옛날에는 설빔으로 성인 옷, 아이 옷 모두 불티나게 팔렸는데 요즘은 보시다시피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한숨을 지었다.¹²⁷⁾



둔내교 건너 둔내장이 시작되는 곳

1. 둔내장 입지 배경

1) 자연지리적 위치

둔내면은 횡성군 동부 산간지대에 위치한 면으로 북위 37°30′30″, 동경128°12′33″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쪽으로 평창군

127) 여기서는 『강원도 시장민속』(국립민속박물관, 1995)의 내용과 2010년 11월 20일과 11월 25일에 있었던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봉평면, 서쪽으로는 갑천면과 우천면, 남쪽으로는 안흥면, 북쪽으로는 청일면과 홍천군 서석면 일부지역이 접하고 있다. 동서남북으로 태기산(1,261m), 청태산(1,200m), 수리봉(896m), 덕고산(705m) 등 많은 산들이 위치해 있으나, 경사는 대체로 완만하다. 주천강은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대체로 둔내면의 중앙부를 흐르며 그 좌우에 크고 작은 들판을 형성, 옥토를 이루어 둔내의 곡창지대를 이룬다. 산이 많아 발농사가 두드러지며, 기후는 기온차가 심한 대륙성기후이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수량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많으며, 평균기온이 낮아 식물생육기간이 짧은 고랭지기후를 나타내어 고랭지 채소 및 양채류와 화훼 재배에 적합하다.



둔내면사무소 앞에서 장이 열림



뒷장터에 있는 둔내농협

2) 인문지리적 위치

둔내지역은 구석기~초기 철기시대의 유적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고분 등 많은 유적·유물이 발견되었다. 둔내면이라는 지명은 둔창(屯倉)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둔창이란 둔전(屯田)에서 수확되는 곡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둔내면 ‘둔방

내리'에 둔창이 있었다. 언제 설치되었는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둔전(屯田)은 고려 후기에 설치되어 조선시대에 성행하였으므로 둔방내리의 둔전도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둔내면 둔방내리 둔창에서는 주민에게 매년 양곡 300섬 썩을 대여하였다고 한다. 그 규모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둔창이 있는 곳이라 하여 '둔창내(屯倉內)'라 부르다가 발음상의 편리를 위해 창(倉)자를 빼고 '둔내(屯內)'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둔내면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해발고도 890m에 위치한 영동1호터널(둔내터널)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터널로 평창군 봉평면과 연결된다. 마을 입지는 주로 서부에 분포하며 대부분 '산촌(散村)'을 이루고 있다. 자연마을은 102개 반이 있다. 총면적은 128,063km² (횡성군의 12.8%)이며, 밭은 21,446km², 논은 7,465km²이다. 가구수는 2,367세대이고, 인구수는 5,382명(남 2,790명, 여 2,592명) 등이다(2010. 02 현재).

1906년 행정 명칭을 '둔내면'이라 칭하였으며, 1912년 11개 리(里)를 두었다(중전 군곡리가 없어지고 두원리가 신설됨). 1917년에서 1927년까지 면사무소를 자포리에 두었으며, 1958년 11개리 124개 반으로 편성하였다. 1973년 11개리에서 13개리로 증가하였다(영랑리 일부를 안흥면에 편입, 안흥면 궁종리와 갑천면 신대리 일부를 둔내면에 편입). 1979년 태기리를 삼교3리에 편입하였으며(법정리는 중전대로 존재), 2010년 현재 둔내면은 행정 25개리, 법정13개리 10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둔내면의 법정

리는 자포곡(自浦谷) · 현천(玄川) · 영랑(永浪) · 조항(鳥項) · 우용(右用) · 두원(斗元) · 석문(石門) · 화동(禾洞) · 마암(馬巖) · 삼교(?橋) · 궁중(弓宗) · 태기(泰岐) · 둔방내(屯坊內) 등이다.

2. 둔내장의 형성과 변천

둔내장은 전형적인 농촌 오일장이다. 1770년대 이전부터 존속해온 둔내장은 현재 5일과 10일에 장이 열리며, 장날이 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온다. 평상시에는 조용한 골목이던 곳이 장이 열리는 날만 되면 사람들로 북적거리 활기가 넘친다. 원래 둔내장은 주천강을 이용한 자포곡 포구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도로가 생기면서 장을 옮겨 현재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1993년에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중앙로의 교통이 시장으로 인하여 혼잡하여지자 도로 뒷골목(뒷장터)에서만 장이 열린다.

예전 둔내장에는 횡성읍, 청일면 사람들도 이용할 정도로 성시를 이루었지만, 현재 둔내장에는 40여 명의 상인들이 난전을 펴고 있으며, 시장에 나온 품목들이 다른 시장과 차별되는 것이 거의 없다. 둔내면의 경우 생산되는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특산물이 거의 없다고 한다. 상인들에 따르면 봄철에 나오는 ‘산나물’ 정도이다. 따라서 정기시장에 나온 공산품이나 혹은 농산품들도 모두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다. 현재 둔내장은 대체로 아침 8시 정도에 여는데, 장터의 중심부에 있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포장을 치고, 팔 물건을 진열해 놓는다. 그러

나 시장터의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상인들은 포장을 치지 않고 물건을 벌려놓거나 혹은 차에 물건을 실은 채 판매하고 있다.



자포곡리 마을유래비 전면



뒷면 - 자포상선(自浦商船)

1) 조선시대

둔내장이 언제부터 섰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18세기 부터 이미 장이 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우리나라 각지에 소재한 전국적인 장시를 각 도별 장시(場市)와 장날 등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770)에 의하면, 횡성 읍내장(1일·6일)과 함께 둔내장(4일·9일)이 개설되어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¹²⁸⁾ 곧 횡성군내에 개설한 장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장 가운데 한 곳이 둔내장이었다. 장날은 4일과 9일이었고, 장이 섰던 곳은 현재의 둔내면 둔방내리¹²⁹⁾에 소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둔방내리’는 조선시대 중기 때부터 역둔(驛屯)이 설치되어, 정부 식량을 저장해 두는 창고인 ‘둔창’이 설치된 곳이

128) 『증보문헌비고』 165권, 시적고 3.

129) 조선시대 둔창(屯倉)이 있었으므로 ‘둔방안’, ‘둔방내(屯坊內)’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말, 님은골, 샘골, 새터를 병합하여 ‘둔방내리’라 하였다.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둔내면이 되었다. 둔창이 있던 곳은 현재 문화마을이 있는 곳으로 ‘창말’ 또는 ‘창촌’ 등으로 불린다.(이영식,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p.197쪽.)

었다. 그리고 이러한 물산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곳에 강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둔방내리에는 ‘주천강’이 흐른다. 예전에는 물이 많아 상선이 드나들었고, 또 이곳에 배가 닿은 포구가 있어 ‘자포곡’이라고 불리는 ‘자포곡리’도 인접해 있었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둔내는 역원 및 창고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自浦商船

飽聞自浦數多魚	예부터 자포에 고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吳楚商船日夜居	여러 곳의 장사배가 밤낮으로 머무르네.
頻不往來因遠近	자주 오고가지 못함은 먼거리 때문이요
易言賣買有親疎	쉽게 팔고사는 것은 오랜 친함이 있음이라.
住民生活眞皆富	주민들의 삶이 항상 풍요로우니
行旅經綸累萬餘	찾아오는 손님들도 마음이 넉넉하구나.
山紫水明風景好	산과 물이 어우러져 풍경이 좋으니
名區發展古今如	이름난 이 곳 발전도 옛날과 오늘이 같구나.

- 안운담130)

1759년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둔방내리에 오일장이 설 수 있었던 근거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둔방내리에는 물산의 집산지로서 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고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횡성군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 『여지도서』에 “둔방내리는 관문에서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

130) 둔내면에서 1937년 주병황, 강홍길, 김복래 등의 지역민들이 둔내면 11개리의 지명과 자연환경을 관찰한 다음 명승지 11곳을 골라 ‘둔내11경’을 선정하였다. 또한 30여 명이 참가한 시회를 열어 안운담의 시를 장원으로 뽑았다. (『강원도민일보』2006년 12월 15일자.)

고 있는데, 자포곡리에 이르기 전에 위치해 있다. 둔방내리에는 당시 18칸인 창고가 위치해 있었다. 이를 둔창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당시 횡성군 전체 호수가 2,610호, 인구가 5,745명(남자2,839명, 여자2,852명)이었는데, 둔내면에는 10개 마을에 전체 호수가 571, 인구가 1,285명(남자 571명, 646명)이었다. 둔내면은 횡성군내 다른 면보다 인구가 많은 편이었으며, 오히려 현재의 횡성읍보다도 인구가 많았다.¹³¹⁾ 18세기 말 면별 횡성군의 인구와 둔내면의 인구를 리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명칭	호수	남자	여자	행정명칭	호수	남자	여자
현내면	176	208	193	북청일면	212	228	222
서공근면	412	456	459	정곡면	442	474	476
갑천면	346	355	358	우천면	181	210	209
둔내면	571	646	639	계	2,610	2,893	2,852
남청룡면	270	316	296				

18세기말 횡성군내 면별 인구

18세기 말 둔내면 리별 인구 현황

목동리(木洞里, 편호51, 남자58구, 여자59구), 마여미리(馬余味里, 편호33, 남자40구, 여자37구), 석문리(石門里, 편호31, 남자40구, 여자35구), 자포곡리(自浦谷里, 편호38, 남자43, 여자40), 군이곡리(軍伊谷里, 편호40, 남자45구, 여자40구), 우용리(右用里, 편호63, 남자70구, 여자72구), 조항리(鳥項里, 편호22, 남자30구, 여자29), 영랑리(永浪里, 편호101, 남자110구, 여자120구), 도청리(도청리, 편호90, 남자100구, 여자95구), 구해천리(口亥川里, 편호102, 남자110구, 여자120구)

131)현재의 횡성읍인 현내면은 전체 호수 176, 인구 401명(남자 208명, 여자 193명)이었다.

둔내장은 도로 교통의 편리성을 토대로 장이 형성되었다. 물산이 유통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도로 사정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18세기 말 둔내장은 물산 수집지인 ‘창(倉)’을 중심으로 열렸다고 할 수 있다. 횡성에서 둔내장까지는 50리 떨어져 있으며, 개시일의 반복 없이 매순(每旬) 2회씩 개시되고 있었다. 특히 우기 때에는 상선을 이용하여 주천강을 거슬러 올라가 둔내장에서 물물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도 둔내장은 장터와 개시일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1830년에 편찬된 서유구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서도 둔내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내리장은 현으로부터 60리 떨어진 둔동면에 위치하는데, 4일과 9일에 열린다.”라고 하였다. 그 후 1913년 춘천헌병대본부에서 편찬한 『강원도상황편개(江原道狀況梗概)』에 따르면, 그 당시에 횡성군에는 읍내장과 안흥장(2일, 7일)¹³²⁾이 개시되고 있고, 둔내장이 보이지 않는다. 곧 1830년과 1910년 사이에 둔내장이 일시 중단된다. 이는 191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신작로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의 조운을 통한 물산의 유통보다 육로를 이용한 물산의 이동이 보다 원활한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32) 안흥장은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영서와 영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동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 서울로 운송되는 중간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험준하고 굴곡이 심한 대관령과 어우재, 둔재를 넘어 수 많은 화물 차량들이 쉬어 가는 곳으로 성시를 이루었으며, 또 동해안으로 넘어가는 영서 지역의 차량과 서울 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 차량들이 안흥에서 쉬었다가 가는 관계로 성시를 이루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조선의 역로를 바탕으로 하여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신작로 개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당시에 건설된 원주-강릉의 2등 도로는 조선시대의 원주-강릉대로와 거의 같다. 이 노선 가운데서 하안흥리(下安興里)가 횡성군의 새로운 교통중심지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선의 통과 는 횡성군 정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왜냐하면 20세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시장망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 당시 상인들의 이동 경로는 원주 문막을 거쳐 원주장을 온 일군의 장꾼들이 횡성을 거쳐 흥천 방면으로 빠지던가 혹은 둔내면 자포곡리로 빠지기 보다는 새로운 신작로를 따라 안흥면을 거쳐 평창군 방면으로 길목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¹³³⁾

2) 일제강점기

1926년 출판된 『시가지(市街地)의 상권(商圈)』에는 “둔내면 자포곡리에 위치한 둔내장이 5일과 10일에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곧 현재 열리고 있는 둔내장은 1830년과 1910년 사이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1910년과 1920년 사이부터 다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시일이 현재와 같이 5일과 10일이었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둔내장은 둔방내리를 흐르는 주천강을 이용한 수로가 점차 막히면서 장이 소멸되었는데, 장이 새로이 등장하면서 둔방내리보다는 바로 인접한 ‘자포곡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시일의 이동까지 있었던 것이다. 1929년에 간행된 『조선(朝鮮)의 시장경제(市場經濟)』에도 둔내장은 둔내면 자포곡리에서 5일과 10일에 열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1년 간행된 『조선(朝鮮)의 시장(市場)』에 따르면, 둔내장의 거래액이 565,967원으로 읍내장(3,153,200원)에 이어서 횡성군

133) 『강원도 시장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5, 75-83쪽.

내 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3) 광복 이후

1963년에 간행한 『국토구역총람(國土區域總覽攬)』에는 둔내장의 개시일이 4일과 9일로 되어 있으며, 1983년 『황성군지』에는 개시일이 다시 4일과 9일에서 현재와 같이 5일과 10일로 다시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1940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기존과 같이 개시일이 4일과 9일로 되었다가,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다시 현재와 같이 개시일이 5일과 10일로 되었다. 그러나 장터의 변화는 없었다. 1994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사했을 당시에 이미 모든 상권이 원주에 치중된 관계로 둔내장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많이 축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10년 실시한 현지조사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둔내장이 열리는 날이며, 원주와 황성에 거주하는 장꾼들이 짐을 ‘제무시(GMC)’¹³⁴⁾편으로 보내고, 자신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둔내까지 왔다. ‘제무시’를 운영하는 곳을 ‘정기화물’이라고 불렀으며, 장꾼들이 짐을 맡기면 짐 한 짝에 얼마씩 ‘정기화물’ 업체에 주었다. 곧 장꾼들의 짐은 원주에서 제무시로 둔내장까지 이동시켰으며, 장꾼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둔내장으로 이동하였다. 둔내장이 끝나면 물건을 다시 제무시로 옮기고, 장꾼들은 다시 버스를 타고 나갔다. 둔내장이 열릴 때면 ‘버스가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 간혹

134) 제무시(G.M.C)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에서 만든 트럭이다. 1944년경에 제작되어 우리나라에 해방 무렵에 들어왔는데, G.M.C의 발음이 일명 ‘제무시’였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이 군용으로 사용하다가 두고 간 트럭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였다.

원주나 횡성에서 출발한 버스가 둔내로 오다가 고장이 나면, 중간에 장꾼들이 내려 버스를 밀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장 난 버스를 고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버스에서 내려 둔내까지 걸어오기도 하였다.

1970년에서 1980년대 무렵 둔내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을 때는 명절을 앞 둔 대목장과 추수가 모두 끝난 ‘늦가을’ 이었다. 당시 둔내의 생활권이 횡성군 갑천과 청일, 태기리, 안흥, 평창군 계촌과 봉평까지였다. 대목장이 서는 날이면 “부흥상회 앞자리에 생선을 판매하던 할아버지가 200~300 짝을 팔았을 정도로” 장이 성하였다. 또한 시골에서 가을걷이가 끝나고 난 후, 각자의 팔 거리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1970년대 담배 수매할 때 둔내장이 컸으며, 현금 유통이 활발하기 때문에 유흥업소들까지도 성시를 이루었다. 그 당시에는 인근 시골에서 거주하고 있는 ‘나무장사’ 들이 장작을 지게에 지고 와 팔기도 하였다. 또한 둔내장이 열리는 날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쓰리꾼(소매치기)’ 이 판을 칠 정도였다. 체보자 윤철규(남·64세)는 둔내장 열린 그 다음날 쓰레기통에서 빈 지갑을 여러 개 줍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전에는 차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둔내장날 원주나 횡성에서 차가. 물건을 날라주는 차가 있었어요. 제무시라고. 그 차에다 물건을 싣고 와서 부리면. 내려놓으면. 상인들이 인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 물건을 받아서 팔고. 갈 때는 그 제무시에다 물건을 싣고 나가고. 사람은 버스를 타고 나가고.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쓰리꾼이라고 있었어요. 쓰리꾼.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날에는. 그래 그 이튿날 보면은. 장이 선 다음날 골목에 보면은 지갑들이. 돈은 다 빼고, 지갑만 있는 것들이 있어서 파출소에 갖다주거나, 우체통에 넣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¹³⁵⁾

135) 윤철규, 남64세,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둔내면 인근인 현천리, 영랑리, 삽교리, 화동리 등지에 있었던 초등학교에도 500~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고, 둔내면소재지에 있었던 둔내초등학교에만 1,500명 정도가 되었다. 곧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았기에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하락으로 둔내장도 점차 쇠퇴되어 갔다. 성행하던 둔내장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다. 농사가 어려워지자 마을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농사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주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도시로 전부 물리는 바람에 그래서 인구가 확 줄었지요. 지금 인제 지금은 초등학교가 둔내초등학교, 화동리에 있는 초등학교. 거기 인원이 몇 명 안되요. 10여명 되는지.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현천에 있고, 영랑리에 있고, 화동에 있고, 삽교리에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어린이들이 500명, 600명 정도 되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둔내초등학교에는 1,500명 이상.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았으니까. 생활도. 자체내의 소비성도 많았고. 또 외부에서 주변에서도 생활권이 되다보니까. 그 정도로 되었었어요. 근데 이 문화가 바뀌면서. 세대가 변하면서. 둔내장이 쇠퇴해 갔지요.¹³⁶⁾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둔내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둔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상인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둔내에 사는 주민들은 원주와 횡성읍까지 쉽게 나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 횡성읍이나 원주시 등으로 나가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둔내면소재지에도 중·대형 마트가 4곳이 생겼다. 또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면소재지에 들어서는 고정상가들로 인하여 오일장의 필요성도 점차 줄어들었다.

136)윤철규, 남64세,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1980년대부터 둔내장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경제적 상황에서 둔내면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탓에 시장의 이용자들이 줄어들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둔내면소재지의 건물주들이 대부분 상인들이었다. 그러다가 ‘소도읍가꾸기’가 이루어질 무렵에 건물주가 2/3 정도 바뀌었다. 기존부터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만 두고,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가게를 하고 있다. 또한 둔내면소재지만 하더라도 4개의 중·대형 마트가 들어서 있어서 조그마한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둔내면에서는 고정상인들도 장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가게를 하던 사람들은 허무한 마음뿐이다. “자신이 주가 되었던 삶에서 관망만 하는 삶으로 변화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관광특구나 기대해 볼까. 둔내에서 다른 것으로 발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



둔내 앞장터



둔내 뒷장터

둔내장 상가(이동상인) 배치도



3. 둔내장터와 상인, 점포 종류

1) 장터

둔내장터는 ‘앞장터’와 ‘뒷장터’로 구분된다. 현재, 앞장터는 둔내면소재지 주도로이다. 앞장터에는 고정상인들이 하는 가게들만 위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장이 서는 곳은 ‘뒷장터’이다. 1980년대 앞장터까지 장이 열렸을 때에는 고무신, 피복장사 등의 공산품 등을 앞장터에서 팔았다. 뒷장터는 ‘어물골목’이라고 불렸으며, 생선류와 채소류 등을 팔았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앞장터 뒷골목인 ‘달동네’라고 부르는 곳으로 장을 옮긴 적이 있었다. ‘달동네’는 현재 농협마트와 농기계수리센터를 잇는 골목이다. 달동네 자리는 원래 논이었다. 주택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잠시 장이 섰었다.

그 후 다시 앞장터와 뒷장터에서 옮겨왔다. 그러던 중 마을주민 가운데 장애인이었던故 이재복이라는 분이 앞장터 자리가 “사고도 많이 나고, 차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뒷장터에 몇 개씩 갖다 놓지 말고, 아예 뒷장터로 몰아라.”라고 둔내면사무소에 제안을 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 후부터 현재까지 뒷장터에서만 장이 선다. 뒷장터에서만 서는 둔내장은 둔내버스정류장에서 둔내교를 건너게 되면 큰 도로 왼쪽으로 나 있는 소도로(소방도로)에 펼쳐져 있다. 상인들은 뒷장터 길을 따라서 길 양쪽으로 천막을 치고 물건을 늘어놓았다.

2) 상인

둔내장을 찾는 상인들은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상가 건물 또는 시장터 내의 가게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거의 매일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고정상인과, 이와는 달리 장터 내의 일정한 공간에 임시 텐트 및 좌판을 깔아서 장날마다 이장 저장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이동상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동상인들과 함께 둔내지역에 거주하는 고정상인들도 둔내장이 열리면 좌판을 펴 놓고 장을 보았다. 그러나 현재 고정상인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동상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천막을 치고, 좌판을 펼치며 장을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고정상인들이 ‘장을 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옷가게인 ‘오화동동’과 둔내교를 건너 뒷장터 초입인 ‘보금당’ 앞에서 좌판을 펴고 양말, 내복 등을 판매하는 상인만이 둔내면에 거주하는 분들이다. ‘오화동동’에서는 장날이면 가게 앞에 옷가지 등을 내어 놓고 판매를 한다. 그 외에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 이동상인이다. 다만, 뒷장터 골목에 있는 식당들은 둔내장이 열릴 때마다 장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인근 시골마을에서 생산한 생산물들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이들은 전문 상인은 아니다. 지금은 수매제도가 있지만, 예전에는 ‘모곡장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각 마을 어귀나 시장 변두리 골목에서 농사를 지은 생산물들을 그들에게 팔았다. 그러면 모곡장사는 화물차에 구입한 농산물들을 원주나 서울로 실어 나갔다. 담배, 벼, 옥수수(옛날에는 옥수수도 수매했음) 등은 수매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농사지

은 것들은 대부분 모곡장사에게 판매를 하였다. 또한 둔내장에서 난전을 열고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다. 2010년 11월에 이루어진 현지조사에서 둔내면 인근에 시골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 두 분만이 마늘, 엿, 가래떡, 밤, 더덕, 양배추, 청국장 등을 가지고 와 난전을 보았다.

둔내장을 보는 이동상인들은 원주, 횡성, 평창(봉평, 진부), 홍천 등지에서 오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원주에서 오는 상인들이 가장 많다. 이전의 장과 현재의 장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장꾼이 많이 줄어들어 예전의 절반도 안 된다.”는 말처럼 장꾼들의 수가 많이 감소한 것이다. 현재 둔내장터에서 가장 오래된 장꾼 가운데 이동상인은 야채판매상과 생선판매상인데, 둔내장 한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다. 야채판매상 같은 경우 40여 년 되었으며, 생선판매상은 30여 년 되었다. 점포상인으로 가장 오래된 분은 ‘부흥그릇상회’를 운영하는 윤철규(남·64세)씨이다. 윤철규씨는 현재의 자리에서 36년 정도 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하였다고 한다. 둔내장을 찾는 이동상인의 경우 많이 바뀌었으며, 현재는 10여 년 안쪽에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둔내장의 경우, 오전에 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오후가 되면 비교적 한산해진다. 그러면 이동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한담을 나누거나 쉬는데, 손님들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일찍 짐을 싸서 귀가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이동상인들은 대부분 1톤 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며, 때로는 좌판을 펴지 않고 차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점심은 인근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든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기도 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한다.



둔내면 시골에 거주하며 난전을 보는 할머니

3) 점포 종류 및 판매 상품

둔내장에서 출장하는 이동상인 등의 물품 구입처는 각 상인이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청과물과 야채류는 원주 공판장, 신발류는 서울 청계천, 모자와 의류 등은 서울 평화시장 등에서 구입한다. 1994년 조사에서는 의류상(5명), 과일상(3명), 그릇상(3명), 야채상(2명), 건어물상(2명), 침구상(2명), 상판매상(1명), 떡거리상(1명), 양말상(1명), 신발상(1명), 어류상(1명), 모자상(1명) 등으로 이동상인이 23명 정도였다. 반면에 2010년 현지조사에서 둔내장에 출장한 이동상인들의 수는 55명 정도였다. 의류상(5명), 과일상(4명), 그릇상(1명), 야채상(4명), 건어물상(3명), 침구상(2명), 상판매상(1명), 떡거리상(반찬, 과자 등 11명), 양말상(1명), 신발상(1명), 어류상(7명), 약초상(2), 모자상(2명), 화장품상(2명) 도서상(1명), 곡물상(3명), 가방상(1명), 건강식품상(1명), 화초상(1명), 공구상(2명) 등이었다.

1994년 조사와 2010년 조사를 비교해 볼 때 점포 종류는 거의 비슷하며, 판매상의 증감이 보일 뿐이다. 특히 2010년 조사에서는 떡거리상과 어류상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이동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들은 여타 시설시장이나 인근 지역의 오일장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예전에 비해 의류상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판매 물품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의류'이다. 그 이외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 현재는 기성복(공장에서 생산한 옷) 등을 주로 판매하나, 예전에는 포복상이 의류상의 대부분이었다. 비단 등의 옷감을 두루마기로 갖다 놓고, '한 마, 두 마, 한 자, 두 자' 등으로 끊어서 팔았다. 또한 정장은 '대광라사', '명동라사' '신일라사' 등에서 맞추어 입었다.

생선류를 판매하는 상인 등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신선도 부분에서 마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도 생선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가 되는 물품이다. 생선류는 대부분 원주에서 온다. 둔내가 지리적으로 강릉과 인접해 있어서 동해안에서 직접 오는 것 같지만, 동해안에서 잡은 생선 등이 원주로 모이고, 그 모인 생선을 어류상들이 구입해 둔내장으로 실어 온다. 물품의 유통은 횡성보다는 원주가 월등히 많다.

① 청과물

과일류와 야채류를 포함한 청과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대개 원주의 공판장 또는 도매상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청과물 같이 부패성이 빠른 식품류는 운반거리를 짧게 함으로써 신선도를 유

지하러 한다. 또한 신선도가 좋은 야채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상인들보다 일찍 일어나 원주 공판장을 이용한다.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수산물의 경우는 매일 아침 구입을 한다. 구입을 위해 이동상인들은 새벽 경에 부부가 함께 구입을 하러 가거나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은 장사를 하러 나가고 나머지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직접 생산지로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청과물이 계절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시기에는 직접 산지로 다니면서 구입하게 된다. 그 이유는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직접 산지에서 청과물을 싸게 구입, 판매함으로써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 원주 공판장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한다. 둔내장에서 판매되는 과일류는 사과, 배, 귤, 감, 참외, 바나나 등이며, 야채류는 배추, 대파, 쪽파, 양파, 무, 총각무, 시금치 등이다.



과일판매상



야채판매상

② 식품류

식품류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계절별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에 청과물이나 야채류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야채류는 과일이나 생선과 달리 소비자들이 거의 매일 반찬거리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주로 이들이 취급하는 물품은 계절성 야채류가 주류를 이룬다. 감, 포도, 바나나, 사과, 배, 상추, 오이, 밤, 표고버섯, 파, 미역 줄기, 무, 양파, 고구마, 새우젓, 젓갈, 생강, 감자, 달걀, 마늘 등으로 일상 음식류가 주류를 차지한다. 한편, 어리굴젓,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의 젓갈류와 장아치와 같은 반찬만 전문적으로 판매하기도 하며, 메밀묵, 도토리묵, 순두부, 두부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김을 현장에서 직접 구워 판매한다.



식품판매상



두부판매상

③ 공산품류

둔내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품은 공산품류이다. 공산품류는 대개 도매상 중심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도매상 중심형’이란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통경로로써 도매상을 중심으로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는 경로를 말한다. 이들 공산품류 상인들은 주로 평화시장을 이용한다. 평화시장은 값싼 원단이나 불량품을 구입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

여 제품을 생산해 낸 값싸고, 질 낮은 제품과 덤핑 의류를 취급하는 시장이다. 예전에는 주로 의류는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평화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모자를 포함한 잡화류도 평화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신발을 취급하는 공산품 상인들은 원주에 있는 대리점이나 서울 청계천 도매상에서 구입을 한다. 인근 대리점을 통해서 신발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팔다가 부족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또는 물품 구입에 소비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리점에 전화를 해 구입을 한다. 이와는 달리 서울 청계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하는 대목일 때다. 둔내장에서 판매되는 공산품류에는 의류, 모자, 장갑, 신발, 화장품, 도서류, 침구류, 공구류, 그릇류, 상 등이 있다.



의류판매상



신발판매상



모자, 가방 판매상



양말판매상

④ 생선·건어물류

둔내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가운데 한 가지가 생선류와 건어물류이다.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뒷장터’를 ‘어물골목’이라고 부를 정도도 생선류와 건어물류가 많이 판매되었다.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꾸준하게 판매가 되는 상품이기도 하다. 생선류와 건어물류는 대부분 원주 도매상으로부터 구매를 해오거나, 원주 도매상이 직접 둔내장에 와서 판매하기도 한다. 둔내장에서 판매되는 생선류에는 코다리, 동태, 새우, 도루묵, 오징어, 조기, 양미리, 홍합, 조개, 꼬막, 고등어, 임연수 등이며, 특히 2010년 조사에서는 김장철이 갖 지난 때라, 생굴을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많았다. 건어물로는 통복어, 북어를 비롯해서 쥐치, 오징어, 새우 말린 것 등을 판매한다.



생선판매상



건어물판매상

⑤ 음식류

예전 둔내장터에서 파는 음식류에는 올챙이국수, 감자전, 메밀부침개, 칼국수, 찌뽕, 만둣국 등이었다. 현재의 면사무소 앞에 있는 골목이 먹을거리 골목이었다. 그러나 현재 장터의 난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분식점이 전부다. 도너츠, 각종 튀김

(고구마, 오징어, 김말이), 순대, 어묵 등을 판매한다. 또한 생과자와 빵튀기, 구운 오징어 등의 간식거리를 판매한다. 예전에는 장터의 난전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술 한잔 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광경을 전혀 볼 수 없다.



도너츠판매상



빵튀기판매상

⑥ 약초 · 곡물류

둔내장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생산한 약초와 곡물을 판매한다. 판매하는 약초에는 도라지, 산머루, 민들레, 질경이 등의 진액과 더덕, 은행, 인삼, 흑지, 밤, 대추, 장뇌삼, 산마, 건쑥, 구기자, 감초, 각종 버섯류 등이며, 곡물류는 메밀, 보리, 수수, 콩, 조, 율무, 옥수수 등이며, 곡물을 갈은 도토리 가루, 메밀가루, 감자가루 등도 판매한다.



약초판매상



곡물판매상

④ 화초류

최근들어서 장식용 화초와 화분을 취급하고, 판매상도 있다. 이를 구매하는 층도 증가하고 있어서 장사가 괜찮다고 한다. 화초를 구매하는 지역은 대개 서울 근교 화초재배지에서 구입한다.



화초판매상

4. 둔내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1) 운영 시간

2010년 11월 조사에서 둔내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침 08시였다. 08시에 이동상인들이 각처에서 도착하고, 2시간 정도 물건들을 진열 해 놓는다. 그러면 손님들은 10시 정도가 되어야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둔내장에 나온다. 예전에는 이른 시간부터 시작되었지만, 조사 시점이 겨울이기에 10시가 넘어서 손님들이 장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손님들이 거의 빠져 나가며, 오후 5시 정도면 이동상인들도 짐을 싸서 거주지로 돌아간다. 여름철에는 1시간 정도 빠르게 시작하며, 폐장도 1시간 정도

늦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장이 잘 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손님들이 특별하게 몰리는 시간도 없으며, 일정하게 이어진다.



둔내장을 준비하는 이동상인들

2) 인근 장과의 연결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구매 품목에 따라 다른 구입 방법을 지니고 있으며, 이동상인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장을 순회하고 있다. 곧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위치한 여러 장을 순회하는 통근식 이동상인이 주류를 차지한다. 순회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자져올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먼저 도로교통이 발달하였다는 것과 자기 차량의 소유가 증가하였다는 것에 있다. 물론 자신의 집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는 상인도 일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순회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그 전에 장이. 오늘이 둔내장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횡성장. 내일모레는 서석장, 아니 저 갑천장. 그 다음에는 청일장. 그 다음에는 서석장. 또 그 다음에는 둔내장. 그 이튿날은 횡성장. 예전에는 오일장을 그렇게 해서 돌아왔지요. 장사꾼들이 모여 다니는 게 그렇게 다녔지. 그래서 그 이전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옷장사들.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차에다 싣고 오는데. 그 전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인제 여기서 보고, ‘택가’ 를 지켜요. 보따리 하나에 얼마씩 돈을 주고. 횡성장보고 도요타라고 하는 쪼그만 차가 있었는데. 모두 다 그거에 싣고 가고. 횡성장 보고, 인제 그 다음에 갑천장 볼 때는 그렇게 들어오고. 청일장볼 때는 갑천서 청일은 얼마 안되잖아요. 거기서는 인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보따리를 지켜가지고 청일장 보고, 서석은 차로 조금 옮기고 청일 와가지고는 청일장에 와가지고 둔내장을 보러 올려면은 청일 시장에서 요기 저 지금은 봉덕학교라고 하지요. 거기까지 지켜요. 청일 사람으로 해서. 그러면 둔내 사람은 또 짊어지고 둔내장에 갖다 놓는 거래요. 그전에는 장사꾼들은 그렇게 다녔어요.¹³⁷⁾

해방 직후 둔내장을 중심으로 인근 장들과의 연결을 살펴보면, ‘둔내 → 서석 → 횡성 → 갑천 → 청일’ 등으로 장꾼들이 이동하였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차가 없었던 시절이기에 이동상인들은 짐 하나에 얼마씩 돈을 주고 작은 ‘도요타’ 를 이용하였다. 횡성장을 보고 갑천장까지 차를 이용하였으며, 갑천장에서 청일장으로 갈 때는 거리가 가까워 ‘택가(지계꾼)’ 라고 부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어 짐을 옮겼다. 청일장에서 둔내장으로 올 때도 청일 장터에서 청일면 ‘봉덕학교’ 까지는 청일면 사람에게 품삯을 주어 옮기고, 이어서 둔내 사람이 받아서 둔내장까지 옮겨 주었다. 그 후, 6.25한국 전쟁 이후에는 흔히 ‘계무시’¹³⁸⁾라고 불

137)손환열, 남75세,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138)계무시는 ‘십발이’ (앞 바퀴 2개, 뒷바퀴 8개)라고 불렀다.

리는 군대 ‘후생 사업차’ 로 옮겼으며, 제무시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개인사업자에 의해서 짐을 옮기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육발이’ (앞 바퀴 2개, 뒷바퀴 4개)라고 불리는 차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4년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근장과 연결이 되었다.

● 3개 장을 이용하는 경우

횡성읍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둔내장(5·10일)

횡성읍장(1·6일) → 서석장(4·9일) → 둔내장(5·10일)

원주풍물장(2·7일) → 문막장(3·8일) → 둔내장(5·10일)

원주풍물장(2·7일) → 서석장(4·9일) → 둔내장(5·10일)

● 4개 장을 이용하는 경우

횡성읍장(1·6일) → 안흥장(3·8일) → 서석장(4·9일) → 둔내장(5·10일)

● 5개 장을 이용하는 경우

횡성읍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문막장·양동장(3·8일) →

서석장(4·9일) → 둔내장(5·10일)

횡성읍장(1·6일) → 원주풍물장(2·7일) → 양동장(3·8일) →

영월읍장(4·9일) → 둔내장(5·10일)

2010년 조사에서는 1994년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와 같은 인근 장과의 연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3개의 장을 이용하는 경우

횡성읍장(1·6일)→문막장(3·8일)→둔내장(5·10일)

봉평장(2·7일)→안흥장(3·8일)→둔내장(5·10일)

홍천장(3·8일)→서석장(4·9일)→둔내장(5·10일)

봉평장(2·7일)→대화장(4·9일)→둔내장(5·10일)

주천장(1·6일)→문막장(3·8일)→둔내장(5·10일)

● 4개의 장을 이용하는 경우

횡성읍장(1·6일)→안흥장(3·8일)→서석장(4·9일)→둔내장(5·10일)

봉평장(2·7일)→안흥장(3·8일)→서석장(4·9일)→둔내장(5·10일)

● 5개의 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천장(1·6일)→봉평장(2·7일)→진부장(3·8일)→대화장(4·9일)→
둔내장(5·10일)

1994년 조사에서는 횡성읍장을 시작으로 해서 둔내장으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동상인들이 많았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횡성읍장을 보지 않는 이동상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횡성읍장’의 경우, 시장번영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번영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횡성읍장을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곧 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혹, 장을 보더라도 변두리에야 난전을 펼 수가 있다. 또한 시장번영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장세를 많이 받는다. 둔내장에서 먹거리를 판매하시는 분은 거주지가 횡성인데도 횡

성읍장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동상인들의 장 순회 경로를 보면, 주거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횡성읍장, 둔내장, 원주 풍물장, 문막장, 서석장, 영월읍장 등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평창과 홍천 거주자들의 증가로 평창과 홍천, 영월 장을 보는 이동상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순회 경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1~2개의 상설시장이자 정기시장을 근거로 하여 나머지 소규모의 면 단위 장을 순회하는 1파수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도시의 장 혹은 읍장을 기본 순회 경로에 포함 시킴으로써 1파수에 따라 구입한 물품을 재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원주 풍물장이나 횡성읍장을 기본 이동 전략으로 삼고, 거기에서 남은 재고를 면단위 장들에서 판매함으로써 장 순회의 1파수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4개의 장을 순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 나머지 남은 물건을 재구입한다거나 차량의 보수 또는 휴식을 위해서 소비된다. 물론 장 순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거리의 확보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장이 거주지와 얼마만 큼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거리 문제도 장 순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둔내장은 오전장의 성격을 보여준다.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장이 개시되기 시작하는 아침 8시경부터 농촌에서 농민들이 나와 물건을 구매한다. 12시 경을 기준으로 하여 장에는 거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산해진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둔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나와 장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장의 분위기는 오전에는 농촌에서 나온 농민들로 오

후에는 둔내에 위치한 지역민들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장 특성에 맞추어 이동상인들은 자신들의 하루 판매량이나, 개시 시간, 파장 시간 등을 맞추게 된다.

5. 둔내장 관리

1) 장 자리

‘장 자리’는 오일장에서 장사를 하는 이동상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장 자리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장 자리가 위치한 ‘목’이 또한 중요하다. 어떠한 ‘목’을 차지하였는가 혹은 장 변두리에 있는가에 따라 판매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 상인들은 장 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을 차지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들인다. 좋은 목에 위치한 상인은 대개 장사 경력이 오래 되었거나 또는 의류 상인이나 농산물 상인들이다. 이들도 처음 장사를 할 때는 변두리에 위치하였다가 차츰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좋은 ‘목’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니면 기존 상인으로부터 그 자리를 물려받거나 또는 장 자리와 함께 기존 상인이 취급한 물건을 같이 구입하여 확보한 경우도 있다.

장 자리의 인계가 이루어질 때는 해당 자리에 해당하는 자릿세를 주고받는다. 또한 남의 장 자리에 난전을 펴기 위해서는 해당 자리 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사용 승낙을 얻어야 난전을 펼 수 있다. 장 자리 주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난전을

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찍 왔다고 해서 좋은 목을 차지 하여 난전을 떨 수도 없다.

2) 장세

둔내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장들과 마찬가지로 상인들로부터 쓰레기 오물세의 일종인 ‘장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 오물세는 대개 상인이 장에 물건을 깐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동일한 면적이라도 장에 따라 장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동상인들의 수와 시장의 면적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그 자리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터의 어느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다. ‘장자리’에 대한 이러한 권리 주장은 현재에도 관습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장자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그 장자리는 계속 타인에게 양도되고 있으며, 또 누군가에 의해 양도받고 있는 상태인 유동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세를 내지 않으며, 외부에서 온 이동상인들만 장세를 받는다. 예전에는 나무장사에게도 장세를 받았던 것으로 제보자 윤철규(남·64세)는 기억한다. 인근 시골 마을에서 나무장사가 지계에 나무를 지고 오면 나무 몇 개피를 빼는 정도로 장세를 받았다. 그러나 누가 장세를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가게하는 사람은 장세를 안낸 것 같아요. 장세를 가게하는 사람은 안 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만 장세를 내고, 그 재미있는 얘기가 그 전에는 나무 파는 것도 세가 있었어. 나무도 한 가치, 두 가치, 이렇게 지고 오면. 받아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시장에.¹³⁹⁾

둔내장 장세는 둔내 노인정에서 건다가 1990년부터 장애인협회(둔내면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 347명)에서 걷는다. 둔내 장애인협회 회장은 고태환(남·79세)이다. 1990년 ‘이재복’이라는 장애인(외팔이)이 장세를 받기 시작하였고, 당시 장세는 500원이었다. 군에서 장세 걷는 기관을 입찰해서 결정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세금은 1년에 70만 원 정도다. 2009년에는 78만 원을 납부하였다. 1990년에는 40만 원이었으며, 입찰을 볼 때마다 인상이 된다. 그 이전에 노인정에서 장세를 걷을 때는 둔내면사무소에서 장세의 일부를 납부하였는데, ‘한 장’에 5,000원씩을 납부하였다.

그 전에 노인정에서 조금 보다가 지금은 장애인협회 둔내분회로 넘어온 거지. 우리가 1990년대부터 받았어. 장애인협회 둔내분회에서 받으니까. 이 뭐 불쌍한 사람들이 받으니까. 그냥. 허가를. 군에 가면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딴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500원 이렇게 받았지요. 그걸 받아가지고는 세금도 안돼요. 품값도 안 되고, 지금은 한 1,000원 이상 받지요. 군에다 내는 게 보통 70만원 정도 낸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받으면 그냥 받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세금 얼마씩 내고 받아요. 인건비 나가지. 전화세 나가지. 여기서 크게 남는 것도 없어요. 그저 장애인들 일 년 관광이나 가고 그거예요.¹⁴⁰⁾

139)윤철규, 남64세,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140)고태환, 남79세,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현재 둔내장의 장세는 얼마 전부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 걷고 있다.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큰 이동상인들에게는 2,000원을 받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이동상인들에게는 1,000원을 받는다. 장세에 대한 규정은 특별하게 없다. 둔내장터에 대한 관리 운영이 되지를 않아서 얼마 전에 올린 것이다. 이 장세로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청소 등에 이용된다. 장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싸움 싸움’을 할 정도로 시끄럽다고 한다. 장꾼들은 대부분 장세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세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다. 장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며칠을 따라다니며 싸우고 해야 낸다.”고 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다. 장세는 법적으로는 일종의 도로 점령료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 번 입찰을 받으면 보통 5년 정도의 장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장세를 걷고 있기에, 다른 기관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하고 받는 형식으로 장세 걷는 기관이 결정된다. 그렇지만 지금도 나물 파는 할머니들에게는 여전히 500원을 받기도 한다.

1990년대 처음 장세를 걷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장날로 밀고 나가지를 못했는데.”라는 말처럼 많은 장꾼들이 많았다. 지금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장세는 오전에 받지 못하고 오후에 받는데, 그 중간에 가는 장꾼들도 많다. 걷은 장세는 장세 걷는 분의 인건비(연 60만원)와, 둔내장 청소 등의 관리에 사용하며, 1년에 한 번 장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관광을 다녀온다. 그러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우시장이 열렸던 자리(농협마트)



우시장이 열렸던 자리(마을회관)

6. 둔내 우시장

1) 위치

둔내장날 우시장도 함께 열렸다. 우시장은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자리에 있다가, 자포1리 마을회관 자리로 옮기고 나서 중단되었다. 마을회관 자리로 옮겨온 것은 1960년도 무렵이며, 1975년도에 우시장이 횡성읍으로 통합·이전하여 없어졌다. 우시장이 마을회관 자리로 옮겨오게 된 이유는 농협이 땅을 매입하고, 그 곳에 창고를 지었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창고를 허물고, 하나로마트와 농기계수리센터, 주요소 등이 들어왔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만해도 우시장 규모가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편이었다고 한다. 우시장의 규모는 마을회관으로 옮겨 온 뒤가 더 컸었다. 농협마트 자리에 있을 때는 소를 맬 때가 모자라 뚝방 너머에도 소를 맬곤 하였다.

우시장이 여게 온 제는 60년도 정도에 이리로(자포1리 마을회관) 왔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75년도에 여기서 횡성으로 나갔지. 여기 농협이 있

잖아요. 농협이 요기 있었는데, 농협이 땅을 자꾸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 가지고 지금 가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농협 창고가 엄청 많았어요. 농협이 창고를 지으면서 땅을 자꾸 사니까, 그 다음에 이리로 옮겼지요. 그 다음에 여기 우시장이 잘 되지 않으니깐 횡성으로 합쳐버렸잖아요.¹⁴¹⁾

현재 자포1리 마을회관 옆에 만미식당(김인귀)이 예전에 우시장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크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으며, 당시에 장사를 했던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 우시장 옆에는 만미식당만 있었다. 우시장이 옮겨오기 이전에는 '손사준' 씨가 하던 식당과 '개고기 안서방네'라 불리던 '안씨'라는 분이 했던 보신탕집이 우시장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였다.

이쪽에 함석집이 '만미식당'이라고 그전에 그 그집이서 우시장 보러 온 사람들 전부 거기서 밥을 먹었어. 그 집에서 음식장사를 했어. 우시장 옆에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시장이 그 밑에 아주 본토박이로 우시장이 설 때는 저기 손사준이라고 그 집애가 식당을 했지. 그리고 그 옆에는 이름은 모르는데, 그냥 안씨네가 개기고 보신탕 장사를 해서. '개고기 안서방네'라고 별명이 있었고. 예전에 그랬지¹⁴²⁾

141)손한열, 남75세, 횡성군 둔내면 자포1리 **우시장에 옆에 있던 만미식당**

142)손한열, 남75세,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2) 운영 시간

둔내 우시장은 일반 장이 서는 날 같이 열렸다. 우시장은 일찍 열지 않았다. 일반 장꾼들이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날 무렵이 되어 서야 평창 봉평, 횡성 갑천, 청일 등지에서 걸어서 소를 끌고 나왔다. 갑천이나 청일에도 우시장이 별도로 열렸으나, 그쪽 장에서 산 소를 둔내장에 와서 팔기도 하였다.

장날만 우시장이 열렸지. 그렇게 우시장이 일찍도 안되었어요. 여기 장사분들 보따리 다 펴고, 떠들고 그러면 소를 끌고 오고. 그 때는 평창 봉평 스키장 있는데. 그 쪽에서 다 소들 끌고 걸어서 왔지요. 고삐로 해서 끌고 와 팔고. 저 갑천, 청일 그쪽에서도 넘어 오고.¹⁴³⁾

3) 거래 방식

소를 이용해 받을 갈던 시절에, 소를 여러 마리 살 때는 혼자 끌고 갈 수 없어서 ‘채취꾼(채찍꾼)’에게 품삯을 주어 우시장으로 끌어 왔다. 예를 들면, 봉평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사 놓으면, 둔내장까지 끌어다 주는데, 얼마씩 품삯을 주었다. 채취꾼 품삯은 정

143)손한열, 남75세,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소를 잘 모는 채취꾼의 경우, 많이 몰 때 세 마리까지 몰고 다닐 수 있었다. 앞에 한 마리를 두고, 뒤에 두 마리를 끌고 다녔다.

소를 여러 마리를 사게 되면, 채취꾼이라고 해서 품삯을 주고. 봉평 스키장 있는 데 가서 소를 사면 채취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마리 끌고 오는데 얼마. 그래가지고. 우선 소를 끌러가지고 왔지요. 거리에 따라서 품삯이 다르지. 잘 하는 사람들은 앞에다 한 마리 몰고, 뒤에다 두 마리 끌고. 소장사가 자기가 다 끌러가지고 못 오니까. 품삯을 주고.¹⁴⁴⁾

우시장에서는 ‘대행수(댕수라고 불렀음)’가 있어 흥정·중개를 맡았다. 중개료는 양쪽에서 모두 받았으며, 소를 팔려는 사람과 소를 사려는 사람 사이에서 중개하였다. ‘댕수’는 팔에 완장을 차고 다녔다. 소는 정해진 가격이 없고 댕수가 정하는 가격이 곧 거래가격이 되었다. 댕수와 소장사, 소 구입할 사람 등의 흥정이 이루어진다. 우시장에서 댕수로 특별히 정해진 인원은 없고, 댕수는 소장사를 오래 한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소를 볼 줄 아는 사람 등이 주로 한다. 둔내면에 100두-300두, 100두씩 먹이는 사람은 소장사라고 봐야 한다. 우시장이 폐장한 뒤에는 말뚝세 받는 사람이 우시장 청소를 한다. 말뚝세 받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는 명칭은 없었다.

제보자(손한열)가 평창 방림 창수동에서 소를 사서 소시장에 팔은 적이 있다. 28~29세 때에 소장사를 하였는데 평창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도곡방(현재말로 경로당 같이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144)손한열, 남75세,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노는 곳)에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으면, 들어서서 소 팔 사람이 있는지 물은 후에 노인들이 소 팔 사람을 불러 소개시켜 주면 흥정을 한다. 중간에 소개시켜준 노인들에게는 ‘소주 대병’을 사서 대접한다. 평창을 주로 돌아다닌 이유는 평창이 살던 땅이라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4) 말뚝세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두수가 상당히 많았다. 일반 장에서는 장세를 걷지만, 우시장에서는 ‘말뚝세’를 걷었다. 말뚝세는 우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일 년이나 한 달 단위로 면사무소에서 입찰 공고하여 선출하였다. 말뚝세의 경우 송아지는 덜 받고 큰 소는 더 많이 받았다. 예전에는 ‘장세’와 ‘말뚝세’를 한 사람이 걷었다. 두 사람이 나누어 한 사람은 장세를 걷었고, 다른 한 사람이 말뚝세를 걷었다. 우시장에서 말뚝세를 받는 사람은 말뚝이 부러진 것이 있으며, 교체해 주는 일을 한다. 예전에는 입찰 경쟁이 더러 있었다고 한다. 말뚝세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말뚝세는 마리로 따지면 장세보다는 썼지만, 대신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갔다.

장세를 받는 사람과 말뚝세를 받는 사람이 달랐어요. 입찰을 봐서 개인이 받았어요. 그 사람이 관리라는 게. 우전에 말뚝세를 받잖아요. 예전에 나무 말뚝이니까. 말뚝이 부러지든지 그러면은 그건. 그거는 말뚝세 받는 사람이 깎아다 박지요. 우전에 말뚝이나 갖다가 박고. 새로 깎아 갖다가 박고. 그것 밖에 없지요. 입찰 공고를 붙으면, 거기다 많이 쓴 사람이 되는 거지요.¹⁴⁵⁾

145)손한열, 남75세,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5) 기타 - 불세

우전 옆에 있었던 ‘만미식당’은 우시장에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판매하였다. 또한 당시 노름꾼들이 노름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였다. 주인집에서 그들에게 ‘불세’를 받았다. 불세는 소위 말하는 ‘초 값’, ‘전기세’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종의 자리 임대료인 셈이다. 돈을 잃은 사람이 ‘나 개평 좀 줘’라고 이야기 하면, 돈을 딴 사람이 딴 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다. 주로 하던 노름은 ‘짓고땡’이었다. 아가씨들까지 있던 곳은 앞장터에 ‘개명옥’과 ‘중앙옥’ 등이었다. ‘개명옥’은 전에 둔내정 육점이 있던 자리이고, ‘중앙옥’은 현재 ‘단골식당’이 있던 집이다. 그 외에도 여로 곳이 있었다. 인구가 많고 고랭지 채소가 잘 되고¹⁴⁶⁾, 장이 크게 설 때는 둔내면소재지에 다방이 12개까지 있었다. 현재는 6~7개로 줄었다. 고랭지, 특용작물이 잘 될 때는 유흥업소 또한 잘 되었다.

7. 둔내장터와 속담

둔내 지역의 특징이 ‘외부 사람이 오면 실패율이 없다. 외부인들은 모두 성공하여 몇 년 안에 집을 사게 될 정도라고 한다. 옛말에 “황재(황성에서 둔내면을 넘어오는 해발 500의 높은 고개)를 올 때는 울면서 넘어 오고, 나갈 때는 웃으면서 넘어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둔내에서 담배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 ‘부촌’이라고 할 정도로 생활의 여유가 있었다. 그 만큼 장꾼들에 있어서도 둔내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46)고랭지 채소를 많이 재배할 때는 서울에서 도매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고 한다.

옛날에는요. 상인들이 예전에 떠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있지요. 시장 보는 사람들. 시골에. 그 사람네들이. 하여튼 일 년에 한 번을 보더라도 둔내장을 한 번 봐야지만 장사하는 맛이 난다는 말이 있었어요.¹⁴⁷⁾

옛말에 ‘장꾼이 놀음판에 있어도 둔내장은 열어야 한다.’, ‘일 년에 한 번 봐도 둔내장은 봐야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둔내장은 유명하였다. 지금과 같이 도로가 확장되기 이전에 대목장(설날, 추석 등) 때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꽉찼다.”라는 둔내 사람들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둔내장을 찾았다. 특히 현재는 없어졌지만 우시장이 있을 때 둔내장은 더 컸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의 감소, 차량의 증가 등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147) 윤철규, 남·64세,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2010년 11월 25일 채록.



안홍장



V. 안흥장

안흥은 원래 보미(寶味)라 불리다가 조선시대에는 정곡면(井谷面)이라 했으며, 1937년 안흥역(安興驛)의 이름을 따서 안흥면이 되었다. 이로 보면 안흥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면이 된 것이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올해가 2011년이니 정확히 74년 전에 안흥면으로 불리게 되었다.



안흥전빵축제 때 시장골목에서 부두자리를 매는 장면

그러나 안흥은 동해안에서 서울(한양)로 가는 길목에 있어 동해의 모든 산물이 이쪽을 거쳐 갔다. 「강원도지」에서 황성은 “강원이라는 한 도가 서울로 통하여 물건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장소가 되어 대대로 이어 살고 있는 사대부들이 많고 또한 주상(舟商)으로 부(富)를 이룬 자들도 많다.”¹⁴⁸⁾ 고 했듯이, 일찍이 황성일대는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그래서 1940년대 황성의 시장은 황성시(황성면) 1,6일, 안흥시(안흥면) 3,8일, 둔내시(둔내면) 5,0일, 동명시(갑천면) 5,10일, 류동시(청일면) 0,0일, 창춘시(서원면) 0,0일¹⁴⁹⁾에서 열렸다. 이것은 모든 면 단위로 시

148) 『국역 강원도지』상, 강원도, 2005. 84쪽.

149) 위의 책, 929쪽. 0,0일은 날짜가 누락되었다.

장이 열렸음을 뜻하는 것이다. 옆 동네 홍천군에서는 당시 홍천면, 서면, 서석면에서만¹⁵⁰⁾ 장시가 열렸던 것에 비하면 횡성의 경우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 1830년에 편찬된『관동지』에 의하면 안흥리에 인구가 편호 64호에 남자 67명 여자 68명이 살았다고 했는데, 당시 현내면의 어느 마을보다도 많은 인구 분포이다.¹⁵¹⁾ 그리고 안흥면 지구리(池丘里)에는 동창(東倉)이라는 창고가 있었는데 14칸이나 되었으며, 횡성의 물산으로 인삼, 오미자, 자초(紫草), 복령, 영양(羚羊), 봉밀(蜂蜜), 백화사(白花蛇)가 생산되었다¹⁵²⁾고 하였다.

이 같이 창고가 설치된 곳은 대체로 과거에 시장이 섰는데, 그것은 바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¹⁵³⁾ 주천강을 거슬러 오르내리는 주상(舟商)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강릉방면에서 올라 온 물품을 서울까지 배로 실어 나르고, 서울방면의 물품을 배로 이곳까지 실어 나르고 여기서부터는 육상으로 대관령을 넘어 서울방면의 산물을 옮겼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안흥에 시장이 서게 되었고,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안흥찐빵마을 찐빵상징 조형물

150)위의 책, 같은 곳.

151)『국역 관동지』상, 강원도, 2007. 592-4쪽.

152)위의 책, 598쪽.

153)황보명『김인규』김삼기, 『강원도 시장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5. 74쪽.

실제 당시의 시장권은 원주장 개시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길이 원주-횡성-홍천과 원주-안흥-대화 방면으로 이분화되어 장꾼들이 활동했다고 하였다.¹⁵⁴⁾ 그러나 안흥장은 원주에서 평창방면으로 이어진 장길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1913년에 편찬한 「강원도상황경개(江原道狀況梗概)」에 의하면 횡성에는 횡성장과 안흥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⁵⁵⁾ 결국 1830년과 1910년 사이에 둔내장이 사라지고 안흥장이 새로 생긴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시장민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 두었다.

1830년대와 비교해서 볼 때 몇 가지 변화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둔내장의 소멸을 들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아마도 191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신작로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의 조운을 통한 물산의 유통보다 육로를 이용한 물산의 이동이 보다 원활한 것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안흥장이 새로이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안흥장은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영서와 영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동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 서울로 운송되는 중간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험준하고 굴곡이 심한 대관령과 여우재, 문재를 넘어 온 수많은 화물차량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성시를 이루었으며 또 동해안으로 넘어가는 영서지방의 차량과 서울 경기지방을 비롯하여 전국 차량들이 안흥에서 쉬었다 가는 관계로 성시를 이루었다.¹⁵⁶⁾

이처럼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안흥이 동서교

154)위의 책, 75쪽.

155)위의 책, 76쪽.

156)위의 책, 76-7쪽.

통로의 중심지로 안흥장이 아주 활성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안흥은 중간 종착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시장의 규모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되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 안흥장 입지 배경

1) 자연지리적 위치

안흥면(安興面)은 횡성군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3.07km²이고, 안흥리에 면소재지가 있다. 차령산맥이 남서방향으로 지나고 있어 사자산(獅子山, 1,120m), 매화산(梅花山, 1,84m) 등 1,000m 내외의 높은 산지가 많다. 안흥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주천강과 상안천 유역에 논이 있고,¹⁵⁷⁾ 대부분 밭농사이다. 교통은 46번국도가 안흥리를 지나 동서로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주요교통로였으나, 영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 때문에 시장의 기능도 예전만 못하다.



주천강에서 축제 때 뗏목을 타는 장면



주천강의 뚝다리

157) 1911년에 출간된 『조선지리지자료』에 의하면 안흥은 상하안흥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안흥리 앞을 흐르는 강을 ‘안흥·’로 표기하였다. 한자로는 하안흥천(下安興川)이라 하였다. 그리고 하안흥에는 ‘하안흥주막이 있었다고’·안흥주막’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과거에 주막은 숙식을 모두 제공하던 곳으로 오가는 길손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소식을 주고받던 상당히 중요한 구실을 하던 곳이다. 당시 설화에 보면 주모와의 로맨스도 있는 것을 봐서 숙식 외에도 다른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도 신작로가 뚫리기 전이어서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중요 교통수단이었던 역말을 관리하던 역촌의 표기가 안흥역(安興驛)으로 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강원도편, 경인문화사, 2007, 71쪽.

안흥은 강원도의 다른 지역처럼 고지대에 있지 않고 500여 미터 정도의 산간 지대에 위치한다. 그리고 안흥면 소재지는 산으로 빙 둘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지도 않고 기후도 안온한 편이다. 옆으로 주천강이 지나가는 하지만, 홍수가 나도 물이 넘쳐 마을을 침범하는 일이 없었고, 또한 가뭄이 들지도 않았다. 안흥 옆을 흐르는 주천강에는 새코 미꾸라지, 수수 미꾸라지, 기름종개, 논 미꾸라지, 송사리, 버들치, 모래무지, 매자, ‘괘리’라고 부르는 갈겨니, 피라미, ‘달팽이’라고 불리는 다슬기 등이 많이 살아 이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기도 했다. 그리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소나무로 보를 만든 ‘솔보’ 사이에는 메기, 뱀장어들이 많았다. 쏘가리는 이곳에서는 잡히지 않았고 강림 쪽에서 잡혔다. 한두 시간만 잡아도 두세 사발 정도로 물고기가 시글시글해서 쉽게 잡아먹을 수 있으므로, 따로 매운탕을 끓여 파는 집은 없었다.¹⁵⁸⁾

그렇지만 수로가 시멘트 관으로 바뀌고, 강변을 콘크리트로 제방 공사를 하면서 물고기의 수가 급감했다. 지금 안흥면에는 주천강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파는 음식점도 있다. 이들 물고기들로 매운탕을 하면 양식 물고기로 만드는 것보다도 맛이 개운하고 뼈도 세다. 매운탕을 끓일 때는 잡아온 물고기를 맑은 물에 넣은 다음 ‘해금’을 게우게 한 다음 끓인다. 미꾸라지의 경우에는 소금에 미꾸라지를 넣었다가 끓인다. 매운탕에는 된장을 약간만 넣고 고추장을 많이 푼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넣는다.

158) 정화찬, 남80세,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011년 3월 22일, 23일 채록.

2) 인문지리적 위치

안흥에는 역이 있었다. 그래서 안흥을 ‘관촌’ 이라고도 부르고 ‘관말’ 이라고도 부른다. 과거에는 역이 있는 곳은 점잖은 동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역졸과 같은 천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근세에는 서울과 강릉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 인심이 그리 좋다는 평은 듣지 못했다.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깽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¹⁵⁹⁾ 그리고 외지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유행을 가장 많이 타는 곳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안흥시장 안의 매운탕집



안흥의 옛 역촌이 있던 관말공원

안흥면은 과거 횡성군에서 가장 큰 면이었다. 지금의 우천면 정금리나 오원리도 안흥면에 속했고, 강림면도 안흥면에 속했다. 이런 관계로 안흥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위세가 섰다. 그래서 안흥 사람들이 횡성이나 둔내 등지에 나가도 기가 죽지 않았고, 다른 동네 사람들을 두들겨 패기 일쑤였다. 체육대회도 대부분 안흥에

159) 횡성사람이 깽쟁이라는 것은 <횡성깽쟁이>이라는 설화에도 나온다. 깽쟁이로 소문난 횡성사람과 개성사람이 누가 더 깽쟁이인가 내기를 하였다. 이 내기에서 횡성사람은 창호지를, 개성사람은 초를 선택하여 외딴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때 횡성사람은 문에다 창호지를 발라 바람을 막고 개성사람은 촛불을 커서 방안을 밝히면서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날이 밝자 횡성사람은 문에 바른 창호지에 물을 묻혀 떼어 가지고 가고, 개성사람은 초가 다 타서 가져갈 것이 없어 횡성깽쟁이가 이겼다고 한다. 또 <강원인 성품요>에는 '횡성 약동이 라고 할 정도였으며, 횡성사람이 서울 사람을 속여 먹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다.

서 일등을 차지했다. 이처럼 안흥 사람들은 패기와 자신감이 있어 그 일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연극 무대를 꾸며 강원도 일대에 공연을 다니기도 했다.¹⁶⁰⁾

그리고 하꼬방 넓은 마당에서 가설무대를 꾸며 ‘신파’를 하기도 했다. 이 신파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내려왔는데, 안흥 읍내에 사는 20대, 30대 청년 20여 명이 모여 각본을 만들었는데, 도라무쌍(드럼통)으로 받침을 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가로 세로 5미터 3미터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1막, 2막을 구분하기 위해 무대와 관중석 사이에는 검은 포장으로 가리기도 했다.

이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옷을 해 입고 〈춘향전〉, 〈심청전〉, 〈이수일과 심순애〉 등을 공연하기도 했으며, 그 사이사이에 노래도 불렀고, 장기자랑도 했다. 이들은 장이 끝나고 저녁에 주로 공연을 했는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연을 했다. 주로 추석이나 단오 등과 같은 명절 때 했는데, 다른 마을에 가서 공연을 하지는 않았다. 시골 마을에서는 각본을 꾸밀 청년 구성원들이 없어 신파를 못했고, 안흥 읍내에도 1팀만이 있었다.

이발소를 하던 이춘혁, 상점을 운영하던 여흥원, 목상을 하던 김창규 등이 농막 등에 모여 각본도 짜고 연습을 했다. 이들은 안흥 지역 각 동네에 언제 신파를 한다고 광고문을 붙였다. 추울 때는 하지 않고 명절 때 했는데, 6·25 사변 전까지 했다. 그때는 텔레비전 등과 같은 집안에서의 소일거리가 없어 신파를 하면 안흥 각지에서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70년대부터는 월급을 받지 못했던 의용소방대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윗놀이로 척사대회(擲柶大會)를 개최하기도 했다.

160)정화찬, 남 80세, 황성군 안흥면 안흥리, 2011년 3월 22일, 23일 채록.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신파를 했던 곳 예전에 차량들로 붐비던 차부 터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찬조금을 받기도 했다. 주로 정월 그믐께 1주일 정도 진행되었는데, 척사대회 날짜와 상품 등에 대한 광고문을 만들어 사전에 각 리에 광고를 했다. 90년대 초반까지 척사대회를 했다.

각 마을에서 척사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 들었는데, 한 번 떠는 데 지금 돈으로 약 2000원 정도를 냈다. 계속 이겨 결승에 참여하여 1등을 하면 송아지 한 마리를 우승자에게 태우기도 했다. 2등은 광목 1통 정도를 주었고, 5등까지 상품을 주었다.

안흥장은 둔내장 못지않게 컸다. 우선 행정 구역이 광대할뿐더러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강경국도' 즉 42번국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날 이외에도 항상 사람이 붐볐다. 안흥 중간에 위치한, 차들이 쉬어 가는 '차부' 에는 어느 때는 버스가 4,5대씩 주차해 있기도 했다. 서울에서 안흥까지 완행버스로 6시간이 걸리고, 안흥에서 강릉까지도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중에 내려 쉬는 중간지 역할을 했다.

차부에 있던 ‘함홍식당’ 이나 ‘대성식당’ 등은 장사가 잘 되어 하루에 쌀 2가마니 정도를 소비했다. 함홍식당은 이북에서 월남한 독신 할머니가 운영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초등학교, 소방대, 교회 등에 논 10마지기씩을 기증하기도 하는 등 안홍의 최고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대성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새말휴게소’를 사서 운영하기도 했다. 맞은편에 ‘강릉식당’도 있었지만, 손님들이 가는 곳에만 가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다. 이 식당들은 저녁보다는 아침과 점심 때 손님들이 붐볐다. 그리고 차부 한 구석에는 자동차의 고장을 수리해주는 ‘빵구 나우시’가 있었는데, 이곳을 운영하던 사람도 큰돈을 벌었다. 그리고 식료품점도 많은 돈을 벌었다. 이들 중 일부는 돈을 빌려 주고 논이나 밭 등을 담보로 잡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취함으로써 더 큰 돈을 벌기도 했다.

안홍은 서울 사람들이나 강릉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었다 가는 경우가 많았고, 동네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약아져 안홍 사람들을 ‘서울 사람 깡데기 벗겨 먹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장날이 되면, 물건을 사기 위해 나온 장꾼, 특별히 물건을 살 일도 없는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온 구경꾼들로 붐볐다.

안홍장은 1975년 10월 14일 영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쉬어가던 역할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왕래도 소원해졌고, 5일장도 시들해졌다. 게다가 슈퍼나 농협 마트 등이 들어오면서, 동네 구멍가게도 타격을 받았음은 물론 5일장도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안흥에 5일장이 서면, 안흥면 사람들은 장을 보러 안흥장을 찾기도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 구경삼아 장에 오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 정보도 교류하고 막걸리를 기울이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끼리끼리 모여 투전을 즐기기도 했다.

장날에는 사람이 많아 자전거를 타고 가기는 물론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둔내의 경우는 청일, 봉평, 계촌, 현천 등지에서 장꾼이나 사람들이 왔지만, 안흥의 경우는 주로 운학, 강림, 계촌 등지에서 왔다. 안흥장이 매우 크기는 했지만, 둔내장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다.

해방 뒤에는 하루 품값이 옥수수 서 되었다. 그 후 품값이 올라 옥수수 1말이 되었다. 상머슴인 경우에는 1년 쌀 3가마니 정도 주었는데, 80년도에 들어서서는 쌀 5가마니 정도를 주었다. 보통 논 150평 1마지기에서 1가마니 반 정도 소출이 났다.



안흥시장 골목에서 강냉이 등을 튀기는 장면

6·25 이후 국가에서 ‘분배농지’를 시행하여 소작을 하던 땅을 분배받아 소출로 원리금 상환을 하라는 제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일부의 땅을 경작했었지, 그 전에는 안흥 사람 대부분이 소작

농이었다. 안흥 땅의 경우 대지주 세 사람이 소유했었다. 안흥 읍내에 사는 김응규의 경우 안흥 앞들 400마지기를 모두 소유했었다. 그리고 양지말의 오은영은 초등학교 앞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무더미에 살았던 이만진의 경우도 200마지기 이상의 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천리에 사는 한만석의 경우는 그 근방의 논 100마지기를 모두 소유했었다. 이들은 논 이외에도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야도 소유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에게서 논을 얻어 소작을 했었는데 가을에 소출의 반을 지주에게 주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봄에 1말을 빌려 가면 가을에 1말가웃을 갚는 ‘십오장려’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농토는 몇 명의 지주에게 모두 귀속되게 되었다.

2. 안흥장의 형성과 변천

1)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안흥이 정곡면에 속해 있었고, 독립된 면소재지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치상으로는 중요성이 인정되어 역촌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시장이 형성될 만한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가까운 둔내장이나 횡성장 등을 이용했다.

20세기 초에는 조선의 과거 길을 바탕으로 신작로를 활발하게 개설했다. 그 당시에 개설된 ‘경강국도’도 조선시대 원주와 강릉을 오가는 길과 거의 같았다. 이 신작로가 개설됨으로써 안흥리가 횡성군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가 되었다. 이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원주장을 본 장꾼들이 횡성을 거쳐 홍천으로 빠지든가 혹은 둔내면으로 빠지기보다는 새로운 신작로를 따라 평창군 방면으로 길목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10년대에는 둔내장이 사라지고 안흥에 새로운 장이 생기게 되었다.

2)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들어와서 횡성군에 새로운 장이 형성됨에 따라 개시일의 조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안흥장은 그 전에는 2·7일장이었는데, 3·8일장으로 변했다.

해방 전후까지 안흥장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길인 ‘경강국도’ 즉 지금의 42번 국도를 따라 섰다. 즉, 현재 면사무소 앞길에 장이 섰었다. 이를 ‘앞장’ 이라고도 불렀다. 이 길을 따라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버스가 다녔는데, 길 양쪽에 장이 들어섰다. 이 길에는 사람이 가득 들어섰다가 버스나 차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 줬다.

해방 전에는 □ ‘좌전’ 이라고 불렀던, 구멍가게, 막걸리집, 음식점 등의 ‘앉은가게’ 가 40여 군데가 있었고, 난전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오는 ‘상인’ 이라고도 부르는 ‘장돌뱅이’ 도 약 4,50여 명 이상이 있었다. 장을 보러 오는 ‘장꾼’ 들도 300여 명 이상이 왔었다. 명절 밑에 대목장에는 장에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장꾼들이 왔었다. 장돌뱅이들은 대부분 물건을 지게에 지고 다니든지 질빵에 메고 다녔다. 장돌뱅이 혼자 물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면, 집안 식구들도 물건을 나르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1941년에 간행된 『朝鮮의 市場(조선의 시장)』에 따르면, 그 당시

장 거래액을 보면, 횡성장이 3,153,200圓 이었고, 안홍장은 279,760圓 이었다. 그 당시 횡성군은 횡성읍장, 안홍장, 둔내장을 중심으로 주위의 장들과 상권을 형성하면서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3) 광복 이후

상인들이 6·25 사변 때문에 피난을 갔다 다시 돌아오자 이들이 기거할 곳이 없었다. 6·25때 시장이 모두 불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이들에게 현재 현대의원이 있는, ‘앞장’의 뒷골목에 하꼬방 집을 마련해 주었다. 이 하꼬방 집은 뒷골목 길을 따라 양쪽 옆에 지어졌는데, 한 집에 부엌 하나, 방 두 칸이 위 아래로 달려 있었다. 이들 집은 균유림에서 목재를 베어다 지었는데, 총 30여 가구를 만들었다. 군에서는 골조만을 만들어 주었고, 지붕을 이거나 도배를 하는 것은 입주하는 상인들이 했다. 지금 보신탕을 하는 집이 과거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인들은 그 하꼬방을 개조하기도 하여 술을 팔기도 하고 식당을 하기도 하고 여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 집에서는 낮에는 방에서 술이나 음식을 팔고 밤에는 그 곳에서 가족들이 잠을 잤었다. 그리고 집들 앞에는 물건을 진열시키고 팔기도 했다. 이 하꼬방 구역에는 ‘신흥여관’이 있었는데, 하꼬방 집 둘을 합쳐 네 칸으로 여관을 운영했다. 안홍에는 신흥여관 이외에도 ‘동아여관’, ‘안창여관’이 있었다. 그 여관들은 과거에는 잘 됐었는데, 최근에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안홍은 서울과 강릉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서울과 강릉까지의

거리가 약 300여 리가 되었다.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42번 국도가 안흥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위치 때문에 안흥은 외지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편이었고,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둔내장 못지않게 큰 장이 섰었다. 보통 200여명 내외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는 ‘장꾼’들이 왔었고, 설날이나 추석 등과 같은 대목장에는 100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오기 때문에 안흥 장날은 사람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안흥장이 컸고 번잡했기 때문에 원주나 횡성 등지에서 소매치기들이 많이 왔었다. 이들 소매치기들을 장꾼들은 다 알아보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소매치기들도 장꾼들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았었다. 소매치기가 많았기 때문에 장날에는 면사무소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안흥시장 내에 남아 있는 당시 하꼬방 건물

그리고 양아치들도 몰려와 산마이라는 화투로 시골 사람들을 속이는 사행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 놀이를 구경하던 순진한 시골

사람들은 금방 돈을 딸 것 같아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 결국에는 빈손이 되었다. 자식들의 혼수를 장만할 돈을 다 잃고 우는 사람 까지 있었다.

과거에는 큰 길에만 장이 선 것이 아니라 동네 고살에도 장이 섰었다. 동네 남쪽 하단에는 어물전이 섰는데, 10여 명의 장사꾼들이 어물을 차렸다. 지금 현대의원이 있는 중간 부분의 길에서는 여러 잡화상이 섰었다. 그리고 북쪽 길에서는 곡물장이 섰었다. 최근에는 42번 국도 근처에서는 장이 서지 않고 남북으로 된 동쪽 도로에 약 150미터 정도 장이 선다.



잡화장 자리터



안흥시장의 잡화전

장날에는 각설이들이 구걸을 하러 다기도 했다. 각설이들은 가게나 음식점 앞에 와서 <각설이타령>을 불렀다. 춤을 추지는 않았다. 그러면 주인들이 돈을 조금 주거나 음식을 주거나 술도 한 잔 줬다. 각설이와 달리 거지들도 구걸을 하러 다녔는데, 거지들은 각설이처럼 재주가 없이 얻어먹기만 했다. 과거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상이용사들이 네다섯 명의 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갈취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금품도 갈취했다. 이들은 연필 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쌀 서너 되씩을 달라고 하는 등 강매를 했다. 그리고 화투 세 장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삼마이 노름’을 하는 야바우패들도 있었다. 이들은 5명 정도가 한 패를 이루는데, 시장에서는 노름을 못하고 시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오는 길목에서 판을 차렸다. 자기들끼리 서로 돈을 걸고 잃고 따는 행위를 하면서 돈을 들고 시장에 가는 사람을 유혹했다. 그러다 그 노름에 걸려든 사람은 가진 돈을 몽땅 털리기도 했다. 자식 혼수를 마련하기 위한 돈을 잃고 넋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다.¹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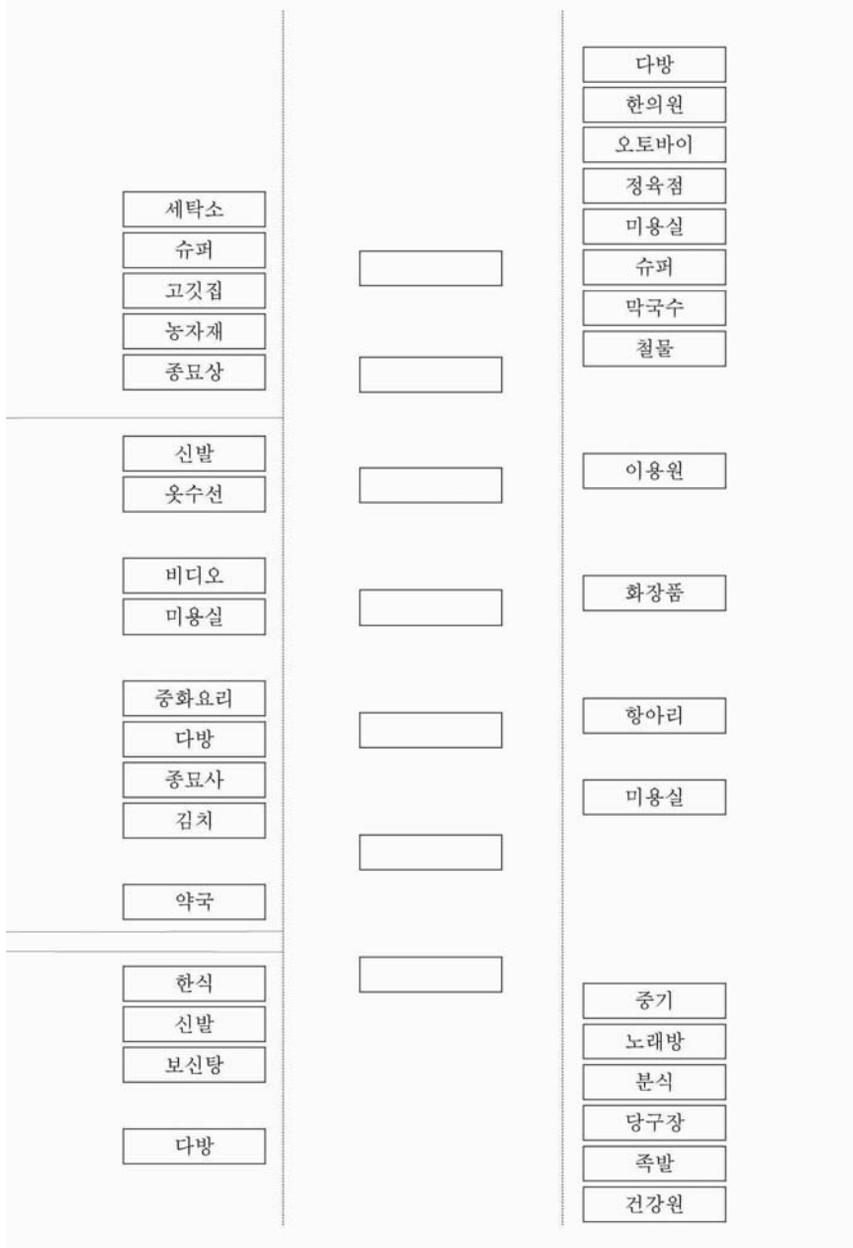
3. 안흥장 상인과 점포 종류

1) 상인

이 장 저 장을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을 ‘장돌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인’이라고 하기도 했다. 장돌뱅이라는 말보다 장꾼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사용되었다. 장돌뱅이 중에서도 장사를 오래한 사람을 ‘공원(고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안 공원, 김 공원 등으로 서로를 호칭했다. 이 호칭은 장사를 오래 다녔고 나이가 많은 장돌뱅이에게 붙여 줬다. 장돌뱅이들은 팔 물건들을 질빵에다 메고 이 장 저 장을 떠돌아다녔다. 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부인이나 아들과 함께 물건을 메고 다니기도 했다.

161)권양락, 남 75세, 황성군 안흥면 안흥리, 2011년 2월 11일 채록.

안흥장 상가 배치도



90년대 초반에는 등짐을 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보다 여러 사람이 트럭과 계약을 해 이 장 저 장으로 물건을 싣고 다니기도 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과자집, 잡화집 등과 같은 도매상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도매로 사서 여럿이 트럭을 불러 안흥에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 이때 원주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그 짐차 위에 올라타고 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그 위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짐은 ‘장차’라고 부르는 짐차에 보내고 자신은 버스를 타고 오기도 했다.¹⁶²⁾



안흥시장의 나무전



안흥시장의 과자전

과거에는 시장에서 가게를 보는 사람들이나 장돌뱅이들을 하대를 하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장돌뱅이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원주 같은 곳에 가서 물건을 떼어 와 파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편이었다.

장은 주로 봄이나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겨울에 북적거렸다. 봄부터 일이 시작되고 여름에는 덥고 농사일이 많기 때문에 장이 상

162) 김호영, 남 68세,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011년 2월 17일 채록.

대적으로 한가한 편이었다. 가을과 겨울의 장이 북적거리는 편이었는데, 겨울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이 왔고, 가을에는 곡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이 찾았다. 그리고 여름보다는 봄에 장꾼들이 많았다.

상인들 중에는 가게에 앉아 ‘앉은장사’를 하는 사람과, 이 장 저 장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가 있지만, 간혹 여러 마을을 직접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도부 장사꾼’도 있다. 주로 원주, 강릉 등지에서 새우젓 등을 사오기도 하고 영랑리에 가서 옹기를 사다가 머리에 이고 이 마을 저 마을에 다니며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개 돈보다는 곡식을 받아 왔는데, 그 곡식은 머리에 들어올리기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누군가 머리에 이어주면 집에까지 곡식을 이고 왔다. 이 곡식을 가져와 다시 팔기 때문에 난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았다. 도부 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게를 보다 기회가 있으면 직접 물건을 이고 마을에 나가기도 한다.

2) 점포 종류와 판매 상품

시장은 크게 ‘앉은장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게를 보는 ‘좌전’이 있었고, 장돌뱅이들이 장날에만 와서 길거리에 물건을 파는 ‘노점’을 일컫는 ‘난전’이 있었다. 좌전에는 잡화상, 바느질 집, 철물점, 쌀가게, 정육점, 대장간, 고무신 가게, 향아리 파는 가게, 이발소, 옷가게, 약국, 문방구 등이 있고, 난전에서는 계란, 강냉이, 콩, 팥, 포묵, 칼, 농기구, 나물, 약초, 생선, 철물, 담뱃대, 소설책, 참빗, 물감, 고무줄, 창호지, 광목, 삼베, 오꼬시, 사탕, 옥

수수 엿 등을 팔았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주로 강냉이, 두태, 약초, 나물 등을 가지고 나와 팔았다. 그리고 안흥에는 담배와 누에고치를 수매하는 사람이 많았다.

요즈음 가게들은 대형 슈퍼가 들어와 장사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원주나 횡성에 가서 물건을 싸게 사오기 때문에 동네 가게들이 잘 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동네 가게들은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연속된다.



안흥시장 내의 세탁소



안흥시장 내의 철물점

① 잡화

‘얕은장사’라고 불리는 고정 가게에서 여러 가지 잡화를 파는 집이 있기도 했다. 그 가게에서 파는 잡화로는 칫솔, 치약, 양말, 학용품, 화장품, 고기 등이 있었다. 일종의 만물상이다.

여러 잡화들은 장날 전에 원주에서 도매로 떼다가 팔았다. 도매상회에 가서 물건을 해 놓으면, 주인은 그 물건을 안흥 가는 트럭에 실어 보냈다. 안흥에 가는 장차는 두 대나 되었는데, 장차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수집하여 안흥에 싣고 온다. 나중에는 잡화를

잘 파는 가게에는 원주 도매상에서 물건을 직접 배달해 주기도 했다. 오일장날에는 평일에 비해 약 열 배 정도 더 팔렸고, 대목 장에는 아주 많이 팔려 밤늦게까지 돈을 셀 정도로 물건을 파는 집도 있었다.

② 포목

4,50여 년 전에 안흥에서 포목상을 하던 사람은 3명뿐이었다. 이들은 장돌뱅이들로 원주 등지의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떼와 소매를 했다. 이들 도매상들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는 대부분 외상이 아니라 현금을 주었다.¹⁶³⁾

포목상이 3사람이었지만, 서로 가격을 담합하지는 않았다. 각자 나름대로 적당한 이윤을 붙여 팔았다. 이들은 광목이나 삼베를 팔았다. 삼베는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등이 있었는데, 4승은 올이 굵고 9승은 명주라고 불렀는데, 올이 가늘고 가격이 비쌌다. 주로 안흥장에서는 6승을 많이 팔았다.

난전에서 포목상을 하면서도 다른 고정가게 주인들과 마찬가지로 외상을 주기도 했다. 다른 장돌뱅이들도 아는 사람한테는 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돈을 떼이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거의 외상을 주지 않지만, 과거에는 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는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 외상을 놓는 경우가 많았다. 50여 년 전부터는 포목을 팔면 돈을 받았지만, 그전에는 쌀로 받기도 했다.

포목상 중에는 장에서 물건을 팔지 않고 시골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팔기도 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곡식으로 물건 값을 받았다. 이들은 장돌뱅이라고 하지 않고 ‘보따리장사’라고 불렀다.

163)윤희중, 남80살, 황성군 안흥면 안흥리, 2010년 12월 13일 채록.



안흥시장 내의 옷전



안흥시장 내의 그릇전

③ 곡식

장날에는 여러 마을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안흥장에 나온다. 그 중에서는 강냉이나 두태 등을 서너 말 지고 안흥장에 팔아 다른 물건을 사 가지고 간다. 이들이 장에 와서 곡식을 팔기 전에 그들이 오는 골목에 대기하고 있다가 곡식을 사기도 한다. 곡식을 살 때는 ‘말깡구’라고 불리는, 말질을 잘하는 사람이 곡식을 모은다. 이들은 원주 등 외지에서 오기도 하는데,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상인들로부터 한 가마니 당 얼마간의 수고료를 받았다. 이들을 ‘모곡장사’라고 하는데, 이들은 앓은장사보다 곡식 값을 조금 더 주었다. 원래는 곡식을 장터 안에서 말깡구들이 사 들였는데,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서 안흥 장터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 말깡구들은 곡식 말질을 해 주고 남은 곡식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자루에 수고비로 넣었다. 이들은 하루에 한 가마니 정도의 곡식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이 말을 다루는 기술에 따라 한 가마니에 닷 되가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한다. 그들은 쌀을 뒷박에 담을 때 뒷박을 약간 치든지 뒷박의 위를 짚을 때 잘 미는 등의 수법으로 곡식을 남긴다.

이 모곡장수들은 주로 원주에 사는 곡식상들이 돈을 주고 가면, 그 돈으로 곡식을 사 모은다. 그러면 그 도매상이 오후에 와서 곡식을 거두어 간다. 그 곡식은 제무시라고 불리는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걷어 간다. 장날에는 2대 정도에 곡식이 안흥에서 외부로 실려 나간다.

이 모곡장수들은 어느 한 골목에 여러 사람이 몰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손님을 잡으려고 다투기도 한다. 안흥시장으로 오는 여러 골목에 모곡장수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삼십 년 전부터는 모곡상들이 자동차로 시골로 돌아다니며 곡식을 사들였다.

장이 안 서는 날에 시골 사람들이 곡식을 가져오면 안흥에 있는 ‘쌀점(짜전)’에 판다.



안흥시장 내의 신발전



안흥시장 내의 미곡상점

④ 생선

생선은 주로 주문진에서 물건을 떼 와 팔았다. 안흥 사람이 가서 사오기도 했고, 주문진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했다. 상인들은 주문진에서 생선을 많이 사 와 안흥 가게에 도매로 넘기기도 하고 난전에서 소매로 팔기도 했다. 주문진에서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물건이 싱싱한 편이다. 다른 지역의 생선보다

물건이 싱싱한 편이어서 둔내 등지에서도 안흥장에 와서 생선을 사가기도 했다. 이처럼 안흥 지역에 싱싱한 생선이 있었던 것은 주문진에서 오는 차가 안흥을 지나가기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생선을 한 마리 한 마리씩 팔았던 것이 아니라, 도루묵이나 콩치 같은 경우에는 뒷박으로 팔았다. 고등어, 이면수(임연수어) 등도 팔았다.



안흥시장 내의 생선전



안흥시장 내의 약초전

⑤ 음식

〈술〉

과거에는 술은 전매품이었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 만들지 못했다. 개인들이 술을 만들면, 이를 엄하게 금했다. 그렇지만 상갓집이나 잔칫집에서는 ‘특약’ 집에서 막걸리를 몇 동우(동이) 사갈 경우, 나머지 일부는 집에서 담가 먹어도 모른 체했을 뿐이다. 술집에서 술을 살 때는 양조장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조장에서 허가를 내주고 술을 공급해 주는 ‘특약’ 에서 사갔다. 안흥 면소재지에는 특약이 두 군데 있었다.

그리고 각 리에는 ‘도가집’ 이 1,2개가 있었는데, 이 도가집은 특

약에 가서 술을 받아 갔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도가집에 가서 술을 받아가든지 그곳에 앉아 먹기도 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도가집에서 술을 받아 가서 술을 파는 ‘술집’도 있었다. 양조장은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했지만, ‘특약’이나 ‘도가’의 경우는 허가가 없어도 됐다.

안흥에는 ‘대포장사’라고 불리는 막걸리 집이 열댓 집이 넘었다. 막걸리 집에서는 보통 노란 주전자로 한 주전자나 반 주전자를 팔았다. 안주는 말린 무청에다 된장을 넣어 끓인 ‘쓰레기국(시래깃국)’ 이거나 김치 정도였다. 그리고 메밀 부치기(부침개)나 두부찌개 등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집에서는 소주를 팔기도 했고, 장국밥 등을 팔기도 했다. 그리고 올챙이국수, 시루떡, 칼국수, 만둣국 등을 팔기도 했다. 문어가 싸기 때문에 문어 초장을 안주로 내놓기도 했다. 웬간한 음식점에서는 술을 다 팔았다.

장날 같은 경우에 막걸리를 많이 파는 집은 하루에 한 섬 즉 열 말을 팔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단골손님이나 왔고 매상도 장날의 1/1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시골에서 사람들이 강냉이나 두태 서너 말을 지고 나와 판 돈으로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막걸리 집에는 방이 두세 개가 있기 마련인데, 한 방에 서너 명이 들어 앉아 술을 먹었다. 이들은 술을 먹으면서 젓가락 장단에 맞춰 〈창부타령〉이나 〈어러리〉 등을 불렀다. 30여 년 전에는 옛날 소리도 했지만, 유행가도 부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술이 취하면 그 방에서 자고 가기도 했다. 강냉이 한 말 정도 팔면 하루 종일 술을 먹어도 될 정도였다. 과거에는 술을 먹고 취해 길거리에 자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 막걸리 집에는 주인아주머니 외에도 술시중을 드는 나이 먹은 과부가 한 명 정도 있었다. 이들이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매상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리고 ‘옥’ 이라고 부르는, 막걸리집보다는 좀 더 비싼 술집도 있었다. ‘신선옥’이 있었고, ‘춘천옥’도 있었고, ‘금강옥’도 있었다. 이 옥에는 젊은 처녀 2,3명이 술시중을 들었는데, 한 방에 서너 명이 술을 먹으면, 아가씨 한 명이 그 방에 들어가 술시중을 들었다. 그러면서 간혹 매음을 하기도 했다. 주인집에서는 장사가 잘 되게 하려고 두어 달에 한 번씩 아가씨를 바꾸기도 한다. 동네 사람들은 어느 옥에 어떤 아가씨가 새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옥을 찾기도 했다.

옥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도 있었지만, 금광이나 산판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소장수들이 주로 출입을 했다. 장꾼들 중에서도 크게 장사를 하는 장꾼들이나 옥에 갔었다. 안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술을 먹는 ‘먹세’가 세서 술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다.

〈개장국〉

안흥 지역에서는 과거 보신탕을 끓일 때 개고기에 막장을 넣고 끓인다. 그래서 탕이 뿌영지 않고 진갈색이 나면서 느끼한 맛이 없고 담백하다. 고기를 찢어 먹는 다대기는 개기름을 넣지 않고 고추장에 들깨를 넣어 만든다. 과거에 강원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개장국을 만들었는데, 개고기에 장을 넣고 끓인다고 해서 ‘개장국’이라고 불렀다. ‘개장국은 장맛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

었는데, 이는 개고기의 질은 동일했기 때문에 집에서 담근 장맛에 따라 개장국의 맛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과거의 하꼬방 집을 개조해 개장국을 파는 집이 장터에 있다.

〈전빵〉



안흥전빵축제에서 전빵 빨리 먹기대회 장면

현재 밀가루에 쌀을 집어넣은 전빵은 전국에서 주문을 받아 팔리고 이를 사기 위해 전국에서 오기도 한다. 이 ‘안흥전빵’은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돼, ‘안흥전빵’이라고 거의 유명 상표가 되었다.

과거에는 안흥에 전빵 장사가 없었지만, 60여 년 전에 지금 세탁소를 하던 장소에서 전빵을 만들어 팔았다. 그 때 전빵이 잘 팔린 편이었는데, 장날의 경우 밀가루 한 포 반 정도를 소비했다. 낮에는 전빵을 만들어 팔다가 밤이 되면 솥에 물을 때기 위해 빨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 전빵 장사를 하면서 막걸리나 소주 등도 팔았다. 이 집의 전빵 가게가 잘 되니까 안흥에 전빵 가게가 세 집이나 생겼었다.



안흥시장 내의 찐빵가게



안흥찐빵축제 때 옥수수긋을 하는 장면

그러다 찐빵 장사로 돈을 벌어 잡화상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찐빵 장사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집도 찐빵 장사를 안 하면서 그 후 안흥에서는 찐빵을 팔지 않았다. 그러다가 20여 년 전부터 찐빵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생기더니, 그 집 찐빵이 맛있다고 소문을 타면서 지금과 같이 20여 개의 찐빵 가게가 생겼다. 안흥찐빵이 유명세를 타자 찐빵을 만드는 기계를 두고 대량 생산을 하는 가게가 생겼지만, 아직도 찐빵을 손으로 빚어 방바닥에서 발효를 시켜 만드는 집도 있다. 빵을 찢을 때 기계로 만드는 빵보다는 손으로 빚은 빵이 더 맛있다.

현재 안흥에서는 매년 가을에 찐빵축제를 열고 있다. 면사무소 앞에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공연을 하고, 인근 시장을 중심으로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농기구, 짚공예, 부들자리, 소코뚜레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축제의 열기가 대단하다. 앞 내에는 섣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게 하고, 뗏목을 만들어서 직접 탈 수 있게 하였으며, 경운기를 이용하여 꽃길을 따라 안흥 일대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안흥에서 생산되는 옥수수과 감자 등을 옛날 방식의 삼굿형태를 이용하여 익혀 먹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다. 이 행사는 무엇보다 안흥의 명물 찌빵을 알리고, 안흥의 특산물을 직판하는데 있으므로, 안흥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작은 시골마을의 축제로서는 그 규모도 상당히 클뿐더러 내용도 알차서 축제에 다녀간 사람들은 대부분 흡족해 한다.

〈통닭〉

90년 초에 최초로 안흥에 통닭집이 생겼다. 서울에는 통닭집이 이미 생겼는데, 이를 안흥에 도입했다. ‘정원통닭’이라는 상호를 가진 집이었는데, 서울처럼 맥주, 양주 등을 팔자 장사가 잘 되었다. 정원통닭은 체인점이 아니라 손수 닭을 튀겨 팔았다. 통닭집을 하면서 노래방기기를 들여 놓 것은 아니었지만, 화면만 나오는 영상기기를 들여다 놔는데도 장사가 더 잘 됐다.

장사가 잘 되니 술장사를 하는 다른 사람이 고3인 학생을 시켜 손님으로 들어가게 하여 술을 먹게 시켰다. 그렇게 일을 꾸민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영업 정지를 먹기도 했다. 한 달 정지에 과태료가 120만 원이었다.

술집에서는 보통 매출의 5% 이상을 외상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외상을 떼이는 경우가 많은데, 외상을 갚지 않는 손님은 대개 그 집에 다시 가지 않기 마련이다.

3년 정도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자, 소문이 나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페리카나 통닭도 안흥에 들어왔다.

⑥ 시골 물건



안흥시장 내의 종묘가게



안흥시장의 채소전

장꾼이 아닌 시골 아낙들이 산에 가서 잔대, 두릅, 고사리, 여러 가지 약초를 가져와 조그마한 광주리에 넣고 팔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고사리를 몇 지게 꺾어 말려 팔기도 했다. 가끔 산토끼를 잡아 장에 내다 파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남자들의 경우 산에 가서 장작을 패와 팔기도 했다. 200가치(개비)를 한 '광지', '강다리' 라고 불렀고, 100가치가 한 짐이었다. 장작은 한 가치의 길이가 두 자 정도였는데, 스물 네 광지 정도를 트럭에 실으면, 한 차가 되었다. 나무는 대체로 국유림에 가서 해 왔는데, 리어카가 나오면서부터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나무를 해오기도 했다. 장작을 해 와 팔기도 했지만, 소나무 잎 등을 꺾어 엮어 만든 '각지나무' 를 팔기도 했다. 각지나무는 한 짐 단위로 팔았다. 이들 빨감은 외지에 팔기도 했지만, 안흥면에서 장사 등을 하는 사람들이 샀다. 나중에는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산 밑에 해 놓으면, 원주의 상인들이 차로 마을 마을을 돌며 사 가기도 했다.

대개 나무를 하는 사람들은 산림간수의 눈을 피해 몰래 국유림에서 도벌을 해 나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인 하에 도벌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시골에서는 장작을 팔아 용돈으로 쓰기도 했고 살림에 보태기도 했다.

⑦ 소설

장꾼 중에는 <춘향전>이나 <옥단춘전> 등과 같은 소설책을 파는 사람도 있었다. 최근까지도 이들이 책을 펴 놓고 팔았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주로 남자들이 이런 책을 사다 등잔불 밑에서 심심풀이로 읽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좋은 남자는 밤에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들 네다섯 명을 모아 소설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남자에게는 아주머니들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⑧ 숙박

안흥에 객관이나 역사가 있었다는 옛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황성에는 화성관(花城館)이라는 객사가 있어서 손님을 맞고, 또 그에 관한 시문이 전하고 있다.

燕雀堂新賀 제비와 참새 집 새로워졌다고 흥겹게 우는데,
 萍蓬客又來 정처 없는 나그네 또 온다.
 鳳塵廿載後 벼슬길 들어선지 이십년 뒤,
 歌舞一樽開 춤과 노래 속에 한바탕 술 단지 열었다.
 玉節今方伯 아름다운 신표 받아 지금은 지방의 수령이지만,
 金貂舊上台 옛날엔 지위 높은 정승이었지.
 寧辭比日醉 차라리 사직하고 날마다 술 취하고자.
 頻把使君盃 자주 이곳 원님 술잔이나 잡았으면.¹⁶⁴⁾

164) 『강원도지』, 앞의 책, 524쪽.

객사에서 나그네를 맞아 가무와 술과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솔직하게 읊었다. 조선조 선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안흥에는 안흥역이 있었고, 하안흥주막(下安興酒幕)¹⁶⁵⁾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은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안흥이 강릉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가 쉬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관업도 잘 되는 편이었다. 신흥여관, 동아여관, 안창여관 등이 있었다. 이들 여관은 방이 네다섯 개 되었는데, 한 방에 십여 명 정도가 함께 잤다. 여관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사람들이거나 장꾼들이 주로 이용했다. 그리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머물다 가기도 했다.

⑨ 대장간

일정 때부터 대장간이 2개가 있었다. 시골에서 사용하던 농기구를 버리러 왔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었다.

4. 안흥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1) 운영 시간

장꾼들 중에서 장이 열리기 전날에 와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아침밥을 먹을 때쯤 물건들을 편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아침 새벽에 출발해 아침 일찍 장에 도착하는 장꾼들도 있었다. 장은 아침에는 열 시 정도부터 붐비기 시작해서 해가 넘어갈 때까지 선다.

165) 『조선지리지자료』, 앞의 책, 71쪽.

장날에는 현재의 주유소 자리에 있었던 신흥여관 앞마당에 가설 극장이 들어와 ‘활동사진’ 이라고 부르는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었다. 이때는 휘장을 두르고 입장료를 받았다.

2) 인근 장과의 연결

장꾼들이 안흥에서 둔내장까지 걸어서 가려면 보통 아침 3시 경에는 출발해야 한다. 그러면 거의 오전 10시쯤 도착하여 물건을 팔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어두워지면 다시 물건을 지고 돌아온다. 그런 다음에 잠시 잠을 자고 다시 새벽 3시 경에 다른 장으로 출발해야 한다.

다른 장으로 옮겨 가기 힘이 들면 여관에서 하루저녁 잠을 자고 가기도 한다. 아니면 한테에서 천막을 치고 자기도 한다. 안흥에서는 주로 강림, 둔내, 계촌 등의 장을 옮겨 다녔다.

5. 안흥장 관리

1) 장자리

난전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펴 놓는 곳을 ‘장자리’ 라고 한다. 이 장자리는 고정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곳에서 물건을 펼쳐 놓은 곳에 다른 장꾼들이 그곳에 물건을 펼쳐 놓지 못한다. 일찍 장에 도착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장자리’ 를 마련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장자리를 침범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큰 싸움이 난다. 장자리의 권리는 관습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권리는 자기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물려준다.

이 장자리를 길 가운데에 차려 놓기도 하지만, 고정가게 바로 앞에다 차려 놓기도 한다. 그 고정가게 출입문을 막지만 않으면 된다. 고정가게 주인들도 자신의 가게 앞에 장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 난전 손님이 바로 자신의 손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장돌뱅이들끼리 모임을 갖거나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

2) 장세

옛날에는 장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장깡구’ 라고 했다. 장세를 걷는 사람은 면사무소에서 지정했다. 면사무소에서는 장세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입찰을 봐서 입찰가에 가까운 사람을 장세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다. 장세를 받는 사람은 대체로 상이용사였는데, 면사무소에서 이들에게 먹고 살라고 특혜를 준 것이다. 장세 받는 사람들은 주로 오후 두세 시 정도에 장세를 받으러 다녔는데, 장세를 내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좀 크게 차린 사람에게는 장세를 좀 더 많이 받았다. 그리고 모곡장사들에게 모곡을 많이 거둔 정도대로 장세를 받았다. 이렇게 모은 장세는 일부를 면사무소에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다고 한다. 현재는 장세를 걷지 않는다.



안흥시장 내의 다방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도 입찰을 봐서 관리권이 개인에게 넘어갔다. 2003년도에 입찰 가격이 35만 원이었는데, 입찰 예정가에 가장 가까운 액수를 쓰는 사람이 당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가가 사전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상존했다. 1년마다 입찰을 다시 했다.

복지회관에서는 안흥 면민들의 환갑잔치나 결혼식 등의 경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보통 8건에서 11건 정도를 치렀다. 결혼식은 금방 끝나지만, 환갑잔치의 경우 하루 종일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매출이 많았다. 국수 한 그릇에서 1000원 정도였는데, 한 그릇의 원가가 인건비를 포함하여 200원 내지는 300원 정도였다.

6. 안흥 우시장

안흥 소시장은 면사무소 옆에 있는 다리 밑에 있었고, 그리 크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장날 하루에 약 30여 마리가 거래가 될 뿐이었다. 안흥 소시장에 나오는 소는 대체로 인근 지역에서 사고파는 형태로 자가 소비적 성향을 띠었다.

둔내 소시장의 경우 그 규모가 안흥보다 컸다. 그 이유는 평창에서 큰 소시장인 대화의 장이 끝나면 팔지 못한 소들이 둔내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둔내를 거쳐 횡성읍 소시장으로 가게 된다. 소가 이동하는 경로 가운데 둔내가 있었기 때문에 둔내 소시장은 안흥보다 훨씬 컸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선의 소가 대화로 넘어온 것을 고려하면, 둔내는 소의 주요한 이동 통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소가 거래되었다.

7. 안흥 장터와 속담

안흥장은 거래가 활발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안흥 사람들은 씹씹이가 해피 큰 부자가 없다고 한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번 돈으로 자식들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한다.



강림장



VI. 강림장

강림장은 안흥농협 강림지소를 중심으로 열린다. 안흥농협 강림지소 구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를 지나는 강림면소재지 중심도로가 ‘장터’다. 조사자가 9시 무렵 강림장을 찾았을 때 ‘장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다. 장터에는 ‘장꾼’도 없었으며, ‘제사 장거리’를 구입하러 나와 장꾼을 기다리는 할머니 한 분만 있었다. 오전 10시 쯤 되어서야 기존 농협 건물 자리 앞에서 장꾼 한 명이 1t트럭에 물품을 싣고 들어와 난전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는 조사자의 말에 장꾼은 “집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다.”라고 한다. 평상시에는 9시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데, 그 날만 늦은 것이다.

강림장은 1920년대에 개설된 ‘산촌장’으로서 번성하다가 1980년대 이후 ‘화전(火田)’ 정리가 끝나게 되면서 쇠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의 기억 속에도 화전 정리 이후 강림면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강림지역의 전체 상권과 강림장이 쇠퇴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2010년 안흥농협 하나로마트 강림지소가 지어짐에 따라 강림장은 ‘오일장’으로서의 명목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강림장터

1. 강림장 입지 배경

1) 자연지리적 위치

국립공원 치악산 동쪽에 위치한 강림면은 비교적 산골오지마을에 속한다. 치악산국립공원이 전체 면적의 58%에 이르는 무공해 청정지역이다. 비로봉(1,288m)·향로봉(1,043m) 등이 솟아 있는 서쪽 일대는 치악산국립공원에 속한다. 강림면은 치악산맥이 원주시와의 서쪽 경계를 이루며, 북쪽에는 매화산(1,084m), 남쪽에는 배향산(808m)·남태봉(1,182m) 등이 솟아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500~1,000m의 험준한 산지를 이루는 산촌마을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쪽에는 주천강이 남북방향으로 곡류한다. 벼와 잡곡·채소를 주로 경작하고, 부분적으로 버섯·산채·토종꿀·공예작물(특용작물) 등을 생산한다.

2) 인문지리적 위치

강림면은 동쪽으로 원주시, 서쪽과 남쪽으로 영월군, 북쪽으로 횡성군 안흥면과 접한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영토로 ‘각림(覺林)’이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원주군 신림면 강림(講林)마을이었다. 1910년 원주군에서 영월군으로, 1931년 영월군 신림면에서 수주면으로 편입되었고, 1937년 수주면 강림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63년 1월 1일 영월군 수주면의 강림리·부곡리·월현리의 3개리가 안흥면에 편입되었고, 1989년 안흥면 강림출장소 관할의 강림리·부곡리·월현리가 강림면으로 승격하였다. 관광수입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관광지로 치악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산천어와 열목어가 사는 청정계곡인 ‘고둔치계곡’이

있고, 문화재로는 태종대(강원문화재자료 16)·의병총 등이 있다. 면적은 96.33km², 가구수는 747가구, 인구는 1,578명(남자:806명, 여자:772명)(2009년 현재)이다.

2. 강림장의 형성과 변천

강림면은 1910년 이전에는 원주군에, 1963년까지는 영월군에, 1963년 이후부터 횡성군에 포함된 지역이다. 따라서 강림장의 형성과 변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주군, 영월군, 횡성군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강림장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원주군 오일장과 관련한 문헌에서도 1910년 이전에는 ‘강림장’을 확인할 수 없다. 『동국문헌비고』(1770년)에는 강림면 인근 지역인 영월군 주천면의 주천장(3·8일)이 기록되어 있다. 『관동지』(1825년)와 『임원십육지』(1830년)에도 주천장이 계속해서 개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830년에 와서 주천장의 개시일이 3일8일에서 1일·6일로 현재와 같이 바뀌게 된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선의 역로를 바탕으로 하여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신작로 개설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때 하안흥리(下安興里)가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등장하게 된다. 『강원도상황경개』(1913년)에 보면, 강림면 인근 지역인 안흥면에 안흥장(2일·7일)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⁶⁶⁾ 또한 영월군 주천장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근 지역인 횡성군 안흥면과 주천면에 장이 열리기 때문에 강림장이 개설될 필요가 없었던 듯 보인다.

166) 강원도 시장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5. 참조.

그러던 중 1923년과 1926년 사이에 ‘강림장’ 이 개설되게 된다. 개시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4일과 9일이다. 1963년 강림면이 횡성군 관할이 되기 이전에 강림면은 영월군 관할 지역이었다. 그러나 영월군 오일장 루트에 강림장이 특별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월군내의 장은 주천장과 영월읍장 중심으로 장이 형성되었다. 또한 횡성군 오일장 루트에도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횡성군내의 장은 횡성읍장-안흥장-둔내장 중심으로 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강림면의 횡성군 편입으로 횡성관내 오일장의 개시일의 변동이 일어난다. 바로 횡성읍장을 중심으로 우천면 우향장, 안흥장, 강림장 순으로 장 패턴이 형성될 수 있게 개시일이 맞춰지게 되었다.¹⁶⁷⁾ 그러나 강림장의 경우 개시일 및 장터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강림장은 전성기를 맞는다. 장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밀고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전선옥(여·71세)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옛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날이면 사람을 이렇게. 밀어야지 나갔던 거래요. 그랬는데 화전 정리 하고 사람을 다 내모는 바람에 확 줄어가지고. 줄어가지고. 그래서 한 집의 두 내우 사는 사람이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지요. 뭐.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림면 지역에서는 화전을 많이 하였다. 화전을 통해 옥수수, 조, 콩, 보리 등을 수확하고, 수확한 것을 장에다 내다 팔아 생필품을 구입하였다. 장꾼들도 화전민들을

167)위의 책, 참조.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였다. 장꾼들은 대부분 원주나 횡성에서 들어왔으며, 때로는 물물교환도 하였다. 장꾼들은 ‘제무시(GMC)’ 두 대를 이용해서 강림장에 왔다. 나갈 때는 장에서 구입한 곡식들을 가득 채워 나가곤 하였다. 강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리면 관할지역 사람들이었다. 영월군 주천면이나 수주면, 안흥면 사람들이 강림장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거리가 멀고, 그 지역에 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강림장을 가장 많이 찾을 때는 명절을 앞 둔 대목장과 추수가 모두 끝난 ‘늦가을’ 이었다.

강림면이 구개 리잖어. 그러니까 월현, 부곡 등 다 이리로 왔지요. 원주에서 장꾼이. 이제 장차가 두 대 들어와요. 옷장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에. 또, 곡식 장사하는 사람들. 그 골짜 골짜에서 짊어지고 나오면 장사꾼이 다 사가지고. 차가 하여튼 두 차씩 나가던 게. 곡석이. 인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농협에서 다 팔고. 곡석 팔아가지고 짊어지고 가던 게. 지금은 인제는 저 산 너머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 전에는 오래골¹⁶⁸⁾ 이런 데서 전부 여와서 장보고 이랬는데. 화전 못해먹게 하고 내보내니까. 확 줄었지.¹⁶⁹⁾

지금은 차가 있으니 다 나가서 사고, 또 다 마트가 있으니. 마트에 가면은 차가 있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지만, 내부팀에도 거기 가 살라고 그러지 이런 가게는 안 온다고요. 강원도 영월에서는 안 오고요. 요기가 이제 이 저 강림면이 구개리에요. 구개리 사람들이 왔지요. 화전하는 사람들 곡석 가지고 와서 팔고, 장 봐가지고. 장보러 오는 사람은 영월 이런 데서는 안 오고요. 원주서도 안 오고요. 그 사람들은 팔러 오는 사람들이고. 그렇지요.¹⁷⁰⁾

168) 강림면 부곡리 오류동마을로 예전에는 사람이 거주 했었으나, 지금은 거주하지 않는다.(이영식, 『횡성의 지명 유래』, 황성문화원, 2001.

169) 전선우, 71세, 황성군 강림면 강림리, 2011년 02월 19일 채록.

170) 김분영, 76세,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2011년 02월 19일 채록.

1980년대 이후 화전 정리가 끝나면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강림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강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상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강림면에 사는 주민들은 원주와 횡성읍까지 쉽게 나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에 횡성읍이나 원주시 등으로 나가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10년 안흥농협 하나로마트 강림지소가 새로이 건립되면서 오일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1년 2월 19일 조사 당시에 장꾼으로서 20여 년째 강림장을 다니고 있는 장꾼 한 명만이 난전을 폈다. 평상시에는 횡성에 거주하는 식료품을 파는 장꾼이 한 분 더 들어오고, 뽕튀기나 분식을 파는 장꾼이 가끔씩 들어오기도 한다.



2010년 문을 연 하나로마트

3. 강림장터와 상인, 점포 종류

1) 장터

강림장터는 안흥농협 강림지소 구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를 지나는 강림면소재지 중심도로이다. 1960년대부터 새로 지은 안흥농협 강림지소를 중심으로 ‘ㄷ’자 형태로 장이 열렸으나, 지금은 농협 앞부터 강림교까지 열린다.

예전에는 장이 농협 있는 데서부터 저쪽으로 이 안으로 이렇게 썼었지. 다리 건너지 않고 이쪽에서만 썼는데.¹⁷¹⁾

2) 상인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동상인들과 함께 강림면소재지에 거주하는 고정상인들도 강림장이 열리면 좌판을 펴 놓고 장을 보았다. 오히려 이동상인들보다도 고정상인들 중심으로 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고정상인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동상인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1t트럭을 세워놓고 난전을 펴는 것과는 달리 고정상인들은 ‘장을 본다.’라는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50여 년 동안 강림면소재지에서 가게(강원상회)를 운영한 제보자 김분영(여·76세)씨도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되었지만 최근에는 하루 종일 가게에 있어서 손님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며 장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이 뭐 그렇지 뭐. 제가 올래는 여기 이사 온 지가 스무여섯 살에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칠십여섯이거든요. 그러니깐에. 따지

171)전선옥, 여71세,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2011년 02월 19일 채록.

고봐도 오십년이잖아요. 우리가 인제 요. 마트 생긴 요 자리에 살았어요. 요 집에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 집을 농협에다 팔고. 이 집 사가지고 이리 왔는데. 인제는 장사가 밥 먹고 살. 밥이 아니라, 죽도 못 먹고 살아요. 그렇게 안돼요. 하루 진종일 있어야. 사람 뭐 구경도 못하고. 사람이 온다 해도 다 마트에 가 사지 쪼그만 가게는 안들어 오지요. 그래서 장사는 안돼요.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¹⁷²⁾

예전에는 강림면 구역의 9개 리(里)에 거주하며 화전을 하는 화전민들이 직접 생산한 곡식을 가져다 팔았다. 장이 열리는 날이면 원주나 황성에서 ‘곡물장사’ 들이 제무시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곡식들을 팔았다. 그러나 난전을 펴고 팔지는 않았다고 한다. 음식물의 경우도 난전을 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과 식당에서 팔았다. 판매하였던 음식은 찌빵과 막국수 등이다.

화전을 해서 곡물을 가지고 사람들은 난전에서 팔지는 않고, 차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 곡물을 팔았지요. 장날마다. 장날 아닌 날에는 화전하는 사람들도 안 가지고 오고요. 장날이면 원주서 제무시가 들어와요, 곡석장사가. 그 사람들이 들어와 곡석을 사가지고 나가요. 곡석을 난전에서 팔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요 밑에 집에서 쌀도 팔고, 곡식을 거두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돼서 그만 집어 치웠지요. 지금은 그 집도 다 이사 가고 없어요. 다 이사 갔지요. 먹는거는 뭐 빵 정도로. 빵

172) 김분영, 여76세, 강원도 황성군 강림면 강림리, 2011년 02월 19일 채록.

도 여기 나와서 판 것이 아니고, 집에서 해가지고 누가 인제 사러 가면 팔고 그랬지요. 찌빵 같은 거. 떡도 해서 팔고. 뭐.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막국수 이런 거 눌러서 팔고요, 식당에서.¹⁷³⁾

가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원주까지 갔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차가 없던 시절이라, 버스를 타고 원주로 나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장날 들어오는 제무시 편에 물건을 보냈다. 원주까지는 2~3시간이 걸렸다. 강림지역이 산촌이라 강림장에는 예전에도 나무장사가 없었다고 한다.

물건을 하러 여기서는 원주까지 갔어요. 차가 없었던 시절에 제무시에 붙여가지고 오지요. 와서 떨구어 주고. 그러면 운임을 주고. 내가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집 아저씨가 물건을 해오고. 여기는 나무장사는 없지요. 자기네들이 대부분 해서 때니. 떨 나무해서 때야지. 나무장사는 없었어요. 제무시가 많이 들어올 때는 세 대까지 들어왔어요. 제무시로 원주까지 그 때 완전히 비포장도로여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걸렸어요.¹⁷⁴⁾

강림장을 보는 이동상인들은 원주, 횡성 등지에서 주로 온다. 현재는 횡성읍과 우천면에 거주하며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두 분이 강림장을 고정적으로 찾는다. 식료품을 판매하는 이동상인 가운데 두 내외 함께 오는 분들은 강림장에 온지 20여 년 되었으며, 또 다른 식료품 판매상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오는 데 10여 년

173) 김분영, 여76세,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2011년 02월 19일 채록.

174) 김분영, 여76세,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2011년 02월 19일 채록.

정도 강림장에 왔다고 한다. 강림장의 경우, 장꾼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대부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물건을 구입하러 나온다. 조사자가 만난 제보자 전선옥(여·71세)도 제사상 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이동상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강림장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손님들이 가장 많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진다. 이들 이동상인들은 모두 1톤 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며, 차를 옆에 세워 놓고 난전을 편다.



20년째 강림장을 찾는 김해철씨 부부

3) 점포 종류 및 판매 상품

1980년대 이전에는 강림장에서 포목, 의류, 신발, 생선, 양말, 농기구 등을 팔았다. 포목판매상과 의류판매상 등은 황성과 원주에서 왔으며, 신발판매상과 생선판매상 등은 안흥에 거주하면서 강림장을 찾았다.

가게가 있고, 여느 물건은 별로 없었구요. 옷 같은 거 파는 사람. 참 천 같은 것 파는 사람. 그런거는 팔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곡식을 팔아

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가지고 그랬지요. 제무시를 타고 와서 장을 보고,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 차를 타고 나가지요. 파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구요. 그저 좀 오긴 왔지요. 스물까지는 안 될 거예요. 옷 팔고, 천 팔고, 포목 같은 거 팔고. 포목 장사는 원주에서 오고. 신발 파는 사람이 오고. 신발 파는 사람은 안흥에서 왔어요. 어물장사도 있고. 양말장사도 있구. 어물장사도 안흥에서 왔었어요. 내가 여기 오니까. 가게하는 사람이 있어두요, 우리 처럼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냥 뭐 촌에 농사짓는 쟁기 같은 거. 호무, 낫 이런 거 파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집이 다 헐려서 그렇지. 그 집에서도 대장간도 와서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개 인제 사가야, 가게에서 사가고 그랬지요.¹⁷⁵⁾

현재, 강림장에 출장하는 이동상인의 물품 구입처는 원주 공판장이다. 이들은 청과물과 식품류를 함께 판매한다. 청과물 같이 부패성이 빠른 식품류는 운반거리를 짧게 함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하려 한다. 또한 신선도가 좋은 야채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상인들보다 일찍 일어나 원주 공판장을 이용한다.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수산물의 경우는 매일 아침 구입을 한다. 구입을 위해 이동상인들은 새벽 경에 부부가 함께 구입을 하러 간다. 이들이 취급하는 물품은 계절성 야채류가 주류이며, 과일류, 수산물 등도 포함한다. 품목은 계절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난다. 감, 포도, 바나나, 귤, 사과, 배, 감, 참외, 상추, 오이, 밤, 표고버섯, 미역 줄기, 고구마, 생강, 감자, 배추, 양배추, 대파, 쪽파, 양파, 무, 총각무, 시금치 등이다.

175) 김분영(여76세),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2011년 02월 19일 채록.



강림에서 50년 동안 이어진 가게(강원상회)

4. 강림장 운영 시간과 인근 장과의 연결, 장세

1) 운영 시간

2011년 02월 19일 조사에서 강림장이 시작되는 것은 오전 10시였다. 그러나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횡성에 거주하는 이동상인 한 분이 1t트럭에 물건을 싣고 들어와 1시간 정도 난전을 편다. 난전을 다 펴기 전이라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며, 해당 물건부터 차에서 꺼내 놓는다. 손님이 물리는 시간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가면, 잠시 뒤 또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는 형태로 꾸준히 이어진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가서야 짐을 싸서 거주지로 돌아간다. 겨울철에는 6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오전 10시 난전을 펴는 김해철씨 부부

2) 인근 장과의 연결

횡성읍에 거주하며 강림장을 20년째 찾고 있는 김해철(남?64세) 씨는 안흥장(3일?8일), 강림장(4일?9일), 둔내장(5일?10일) 등 주로 횡성관내의 면소재지에 열리는 장을 본다. 횡성읍과 인근 지역의 큰 장은 자리가 없어서 장을 볼 수 없다고 한다.

3) 장세

강림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장들과 달리 장세를 걷지 않는다. 이는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여기는 장세가 없었어요. 뭐 사람이 있어야지 장세를 걷지요.¹⁷⁶⁾

176) 김분영(여76세),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2011년 02월 19일 채록.

참고문헌

- 『시가지의 상권』, 조선총독부, 1926.
- 『조선의 시장』, 조선총독부, 1924.
- 『조선의 시장경제』, 조선총독부, 1929.
- 고미현, 「변개시장(Flea Market)의 형성과 발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국립민속박물관(황보명·김인규·김삼기), 『강원도 시장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5.
- 국사편찬위원회 편, 『장사에서 마트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
두산동아, 2007.
- 김성훈, 『한국의 정기시장: 5일시장의 구조와 기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김의숙, 『강원전통문화총서』 민속, 국학자료원, 1997.
- 류승열, 「일제강점기 강원도의 상업과 시장 변동」,
『강원사학』 제15?16합집, 233-270쪽, 2000.
- 문정창, 『조선의 시장』, 일본평론사, 1941.
- 박미현, 『한말·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속의 횡성』, 횡성문화원, 2009.
- 서원면·기관장협의회, 『서원지(書院誌)』1973.
- 옥한석, 『향촌의 문화와 사회변동』, 한울아카데미, 1997(1994).
- 이덕성, 「한국의 정기시장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인류학논집 제2집, 69-97쪽, 1976.
- 이병기, 「횡성 가축시장의 기능 및 집우권」, 『강원지리』
제2호, 강원대 지리교육학과, 1984.
- 이영식,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2001.

향토사료 제24집

횡성군 오일장의 어제와 오늘

인 쇄 / 2011년 9월 1일

발 행 / 2011년 9월 1일

편 집 / 영서문화연구회

발행인 / 김광수

발행처 / 횡성문화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91-1
(033)343-2271

인쇄처 / 서원기획인쇄사 (033)343-2404

[비매품]

※ 이 책은 횡성군의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